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 한스타일의 본산, 전주 |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 한스타일연구센터

전주학총서 21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초판 1쇄 인쇄_ 2011년 10월 17일

초판 1쇄 발행_ 2011년 10월 22일

발행처_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주 소_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전 화_ 063 - 228 - 6485 ~ 6

전 송_ 063 - 228 - 6484

펴낸곳_ 디자인흐름

주 소_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14-1

전 화_ 063-287-1231

팩 스_ 063-287-1232

홈페이지_ www.heureum.com

등 록_ 제2002-8호

© 2011,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ISBN 978 - 89 - 93003 - 95 - 6 04080

978 - 89 - 93003 - 81 - 9 (세트)

비매품

* 이 책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 한스타일의 본산, 전주 —



전주역사박물관
전 주 시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주 제 :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일 정 : 2011년 10월 15일 ~ 11월 26일(매주 토요일 2~4시)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모집인원 : 일반인·대학(원)생 등 100명(무료, 답사비 별도)

접수기간 : 2011년 9월 19일(월) ~ 10월 10일(월)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전주역사박물관(www.jeonjumuseum.org)

〉 교육마당 〉 박물관 아카데미

주 관 : 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학교 한스타일 연구센터·전주학추진위원회

문 의 : 전주역사박물관(063-228-6485~6)

강좌내용

구분	일정	내용	강의자	비고
1강	10월 15일	전주음식의 역사와 문화	이영은(원광대학교 교수)	개강
2강	10월 22일	전주한옥마을의 건축 이야기	남해경(전북대학교 교수)	
3강	10월 29일	전주한지의 역사성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4강	11월 5일	전라도의 혼례복식	박현정(전주대학교 교수)	
5강	11월 12일	현장답사(한지유적)	전주역사박물관	답사
6강	11월 19일	전주대사습놀이와 전주판소리	최동현(군산대학교 교수)	
7강	11월 26일	완판본 한글교전소설과 전주	이태영(전북대학교 교수)	종강

전주음식의 역사와 문화 | 이영은 | 12

1. 머리말
2. 전주음식문화의 배경
3. 문헌에 나타난 전주의 음식문화
4. 전주음식의 근간, 식재(食材) 전주
5. 전주의 대표 음식
6. 마무리

한옥마을 건축 이야기 | 남해경 | 12

1. 서론
2. 한옥마을의 역사
3. 한옥마을의 건축
4. 결론

전주한지의 역사성 | 이동희 | 12

1. 머리말
2. 전주 · 전라도 한지의 연원과 위상
3. 전라도지방의 지장(紙匠) · 지소(紙所)와 전주
4. 전라도지방의 저(楮) · 지(紙) 생산과 전주
5. 맺음말

전라도의 혼례 복식 | 박현정 | 12

1. 머리맡
2. 조선시대 궁중 원삼의
3. 전라도의 청색 원삼
4. 결론 및 제언

전주 판소리와 전주대사습 | 최동현 | 12

1. 들어가며
2. 판소리의 기원과 초기의 판소리
3. 전기 8명창시대
4. 후기 8명창시대
5. 전주대사습
6. 5명창시대(일제강점기)
7. 해방 이후
8. 전주의 소리
9. 마무리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전주 | 이태영 | 12

1. 서론
2. 완판 방각본의 생성과 발달
3. 완판 방각본의 종류
4. 결론

전주음식의 역사와 문화

이 영 은(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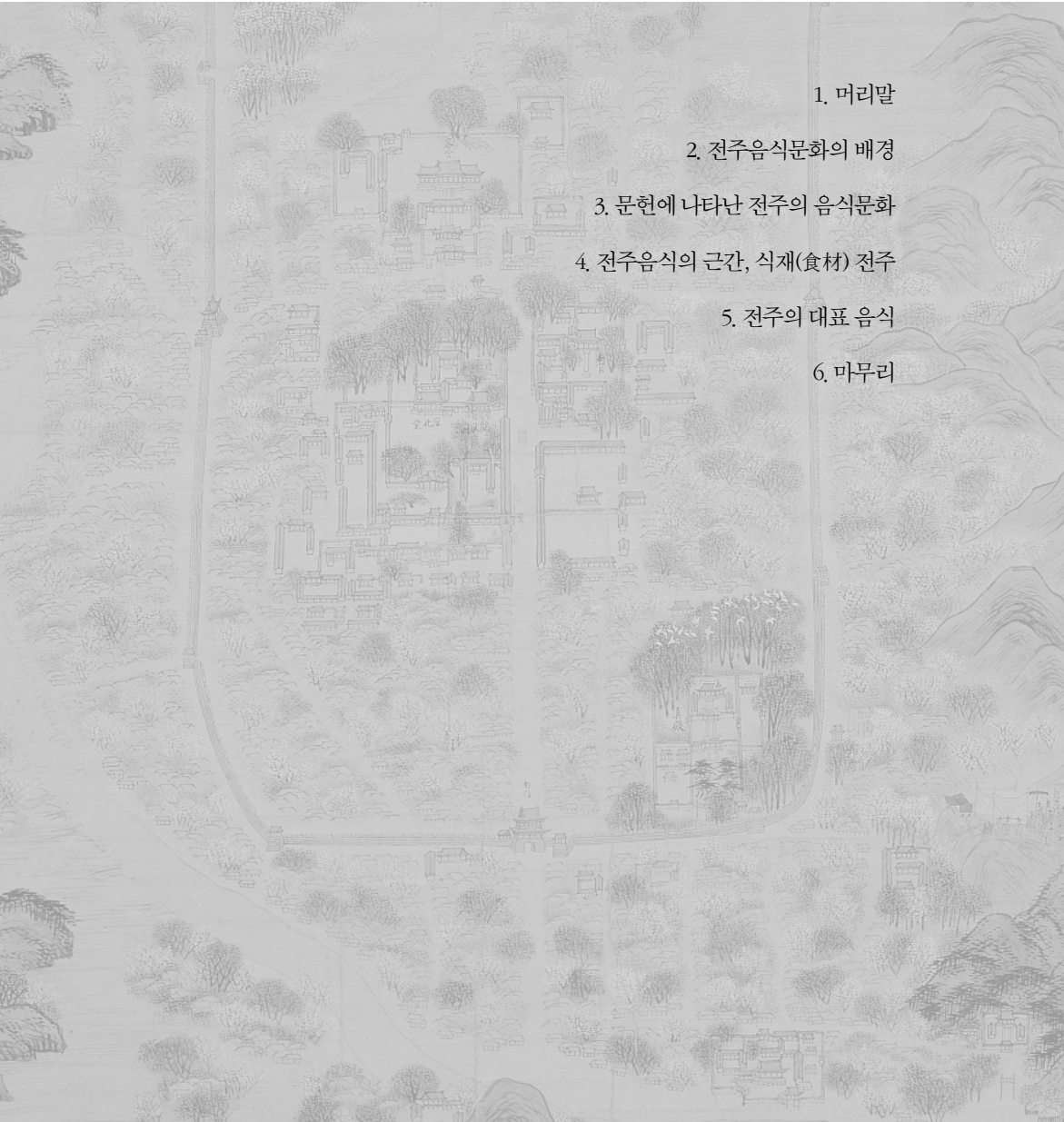
2. 전주음식문화의 배경

3. 문헌에 나타난 전주의 음식문화

4. 전주음식의 근간, 식재(食材) 전주

5. 전주의 대표 음식

6. 마무리



1. 머리말

한 지역의 음식문화는 그 지역의 기후, 지리, 지형 등의 자연적 환경과 역사, 종교, 정치, 산업구조 등의 인문·사회적인 요인이 융복합되어 식량의 생산, 조리가공법, 식기와 용구, 상차림과 의례음식의 규범 등에 영향을 미쳐 삶의 과정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지역의 향토전통음식은 그 지역만의 식재료를 이용한 지역성과 독특한 조리법의 고유성과 의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민으로 하여금 동질성과 소속감을 갖게 하고 심리적인 충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기본 요건인 의·식·주 중에서 의복과 주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하나 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기층적인 요소로 인간의 정신적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지역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2. 전주음식문화의 배경

1) 전주음식문화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삼국사기에 의하면 전주는 757년(통일신라 경덕왕 16)에 전주라는 명칭

으로 불렸으며, 서기 900년에는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왕조를 일으킨 전주이씨의 관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전 지역을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있던 행정 중심지로서 전라도의 행정, 군사, 교통,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천 년을 내려온 역사적인 도시이다.

마한시대(BC 1~AD 3세기)에는 원산성(圓山城)으로 불렸는데, 원(圓)은 ‘온’에서 따온 음이어서 백제시대(BC 18~AD 660)에는 완산(完山)으로 불렸으며, 757년(통일신라 경덕왕 16)에 ‘완(完)’을 의역하여 전주로 명명하였다. 전주와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의 첫 글자의 한자어는 모두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이상향의 조건을 갖춘 지역임을 시사한다.

지리적으로 전주는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하며 동(東)으로는 무주, 진안, 장수, 서(西)로는 익산, 군산, 김제, 부안, 남(南)으로는 정읍, 임실, 남원, 북(北)으로는 완주와 인접해 있으며,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기린봉과 마주보는 완산칠봉이 전주를 남쪽에서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전주의 형성 발전 과정에 전주천의 비중은 대단히 커 지하수를 제공하고, 기름진 평야를 만들어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다.

마한·백제시대 전라도의 중심은 전주가 아니라 익산이었다.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 쫓겨 이주한 곳도 익산이고, 백제 무왕이 별도를 설치하고 중흥을 꿈꾼 곳도 익산이다. 그런가 하면 백제 멸망 후 고구려 왕족으로 유민과 함께 강제 이주된 안승(安勝)의 보덕국(報德國)이 자리한 곳 또한 익산이었다.

전주가 전라도의 수부(首部)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에 들어와서이다. 백제(百濟) 병합 후 신라(新羅)는 685년(신문왕 5) 완산에 주를 설치하여, 현 전북권의 중심지를 익산에서 전주로 이동시켰다. 즉 신라는 통일 직후 지방을 9주(州) 5소경제(少京制)로 편제해, 확대된 영토를 다스렸는데, 이때 9주에 익산이 빠지고 전주가 들어가고, 전남권에서는 광주가 들어갔으며, 남원이 5소경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이처럼 중심지를 익산에

서 전주로 이동시킨 것은, 익산 금마에 자리했던 고구려 왕족 안승의 보덕국이 난리를 일으키자 이를 약화시키려는 의지가 작용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 백제인들의 구심점 이동을 통해 백제 세력의 와해 내지 약화를 도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이 “호남은 우리나라 남쪽의 울타리로 산천의 경계가 뛰어나고 물산이 풍요로워 온 나라가 먹고 입는 자원의 절반을 호남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전라도의 경제적 위치를 잘 대변해 준다. 예컨대,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등재된 1807년(순조 7)의 토지 현황을 보면, 전라도가 총 340,103결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답(田畓)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이 경상도 337,128결, 충청도 256,528결이다. 당시 전국의 전체 전답이 1,456,592결이었으니, 전라도가 전국 전답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전체 전답 중에서 세금을 내는 전답(실결)만 따져 보아도 전라도가 204,760결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도 201,553결, 충청도 120,833결이다.

2) 전주음식문화의 사회 경제적 배경

예로부터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를 4불여(不如)의 고장이라 일컬어 왔는데 양반은 아전만 못하고(반불여리 班不呂吏), 기생은 통인(수령의 잔심부름꾼)만 못하고(기불여통 妓不呂通), 술은 안주만 못하고(주불여효 酒不呂肴), 배는 무만 못하다(이불여청 梨不呂菁)고 하여 무가 배보다 맛이 좋아 전주 8미와 같은 식재료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령으로 온 벼슬아치는 토박이 아전들만 못하고(관불여리 官不呂吏), 아전들은 기생들만 못하고(이불여기 吏不呂妓), 기생들은 음률 풍류만 못하고(기불여음 妓不呂音), 음률은 음식만 못하다(음불여식 音不呂食)고 하여 전주에서는 음식을 으뜸으로 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전주가 맛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었던 것은 기후와 지세 등 천혜

의 자연환경과 전주를 감고 흐르는 전주천의 수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름진 평야를 만들었고 여기서 생산되는 영양가가 풍부한 곡류나 소채류가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전주는 조선왕조 전주이씨의 본관으로 양반풍을 이어받아 상차림에 있어서도 엄격하였으며 어느 지방도 따를 수 없는 멋과 풍류가 배어 있다고 하겠다. 전주지방의 부녀자들의 음식 솜씨는 각별히 뛰어났고 그 정성은 지극하여 음식은 매우 호사스럽고 상차림은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의 가짓수 때문에 외지인을 놀라게 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전주지방의 풍부한 물산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인심과 더불어 부녀자들의 음식 솜씨가 좋고 조선조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음식이 사치스럽고 고유한 음식법을 지켜와 “멋과 맛의 고향 전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조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여 지방의 장터에는 주막이 운집한 주막거리가 생겼으며, 준비가 간편한 비빔밥, 탕반(국밥), 국수 같은 일품요리를 파는 노천 음식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같은 상업화된 향토음식은 조선 후기 시장의 발달로 활성화된 주막거리의 음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업의 발달로 식품유통이 활발해짐과 아울러 상인들에 의한 지역 간의 음식문화의 교류도 확대되었을 것으로 본다.

전주 남부시장은 조선시대 6대 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삼남지방 최고의 시장으로 물자가 풍성하고 전국적으로 장사꾼들이 모여들면서 남문밖시장은 항상 상인들이 붐비는 곳이었다. 원래는 전주성 남문과 서문 밖에 2일과 7일에 5일장이 열렸었다. 17세기 말 전주 남문밖장은 전라감영의 치소였기에 다른 지역의 장터보다 상설점포(시전 市廛)도 많았고, 보부상(난전 亂廛)들도 몰려들어 전라도 최대 규모의 시장풍속이 연출된 곳이다.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으며 그곳에서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1751년, 영조 27)에는 전주를 가리켜, “1천 마을이나 1만 부락에서 삶에 이용할 물건이 다 갖춰져 있고 … 관아가 있는 곳에는 민가가 뽁뽁하고 물화가 쌓여 있어서 한양과 다름없이 큰 도화지 …” 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전주를 한양과 다름없이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전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 문헌에 나타난 전주의 음식문화

전주는 오래전부터 맛과 멋의 고장이라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 이 지역의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향토음식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전북음식(전라북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 1996),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에 관한 연구(전북음식문화연구회, 1997), 전주 8미 및 장류 발굴 조사 보고서(전주시, 2001) 및 전주지방의 전통음식 조사 연구(차명옥, 1997)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주음식의 조리법 등이 채록 또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전주의 음식문화를 엿볼 수 기록으로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전주의 지방 관리로 내려와 성황제를 보고 그의 저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1241)에 다음과 같이 제신문(祭神文)을 남겼다.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三十七, 祭文, 祭神文.

全州祭城隍致告文■無韻謹以蔬菓清酌之奠, 致祭于城隍大王之靈. 予吏于茲, 蔬茹猶不續, 而有獵夫致一鹿于門. 予徵其由, 則曰此州自古每月旦, 使吾等

貢一鹿若雉兔充祭肉. 然後衙吏等受公之俸. 備酒饌致祭于城隍. 此成例也. 予怒而鞭之曰. 汝何不稟於吾而爲是耶. 凡不拒乃州之苞苴饋餉. 而致山之麋麇. 兔熊踏象白之肉. 海之鮫魴鰓鯉晨晡露鵠之差. 崇積於前者. 不忍獨享滋味. 其獻于大王宜矣. 豈以予蔬食之窮. 約月殺生物圖神之肥. 而積罪予躬耶. 神若正直. 亦不予是望也. 因戒衙吏. 自今不復奠肉. 其蔬菓酒饌之設. 則任爾爲也. 予之約束如此. 未審大王諒之何如也. 伏惟寬之. 毋以予頑然不遵舊典也.

“제신문(祭神文) 전주에서 성황(城隍)에 제사 지내는 치고문(致告文)인데 운(韻)이 없다.

삼가 채소·과일과 맑은 술의 제수로써 성황대왕(城隍大王)의 영전에 제사 지냅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평 또는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짖기를 ‘네가 어찌 나에게 알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무릇 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기를 거절하지 않고, 산의 살 켜 노루나 매끈한 토끼와 곰 발바닥, 꼬끼리 발가락과 바다의 상어·숭어·메기·잉어와 새벽 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맛난 음식을 불러들여 수두룩 앞에 쌓는 자들이야 차마 그 진미를 홀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대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알아 하게끔 맡겼다고. 나의 약속이 이러하니, 대왕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완악하여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

여기서 1200년대 초 고려시대 전주의 위상과 풍성한 식문화의 일면을

엇볼 수 있다.

첫째, 성대한 성황제의 관례가 전주의 전통문화이었다.

둘째, 전주 성황제에 선물을 바치는 고을의 범위가 광역적이었고, 청탁 고기에 전라도 지방에서 나지 않는 코끼리 발가락, 상어, 곰 발바닥 등 어류·조류·동물의 고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지어는 외국 상인들도 물품을 바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려시대부터 전주 사람들은 타 지역에 비하여 풍성한 음식을 차려먹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가 후백제와 조선 사이의 시기로 후백제의 견훤왕과 함께한 귀족들이 고려시대에 전주에 등지를 틀고 살면서 향촌사회의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주 성황제가 향촌 지배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일제시대 잡지인 『별건곤(別乾坤)』 1928년 12월 1일자 제 16·17호를 보면 「八道女子 살림사리評判記」의 내용이 있는데, 전라 여자 부분을 발췌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全羅 여자의 음식 잘 한다는 말은 다 개똥쇠 가튼 거짓말』이라 하면 너 무도 억울한 일이다. 약떡에도 곱이 편다고 잘못하는 곳은 잘못하지만은 대체로 말하면 全羅道의 여자들이 다른 도의 여자보다는 요리를 잘 한다. 그 중에는 全州 여자의 요리하는 법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맛도 맛있어니와 床배 보는 것이라든지 만드는 변때라든지 모도가 서울의 여자는 갖다가 눈물을 흘리고 潮南線 급행선을 타고 도망질 할 것이다. 서울의 神仙爐가 명물은 명물이지만은 全州 神仙爐는 그보다도 명물이다. 그외 全州의 약주, 비빔밥이며 淳昌 고초장, 光州, 潭陽의 竹筍菜, 求禮, 谷城의 濁酒, 銀魚膾, 高山의 식혜, 南原의 藥酒, 群山의 生魚脍 등이 다 음식 중 명물이다. 그리고 全羅道 여자들은 手工

을 잘한다. 특히 全羅道 여자들은 장독간 치레를 조와해야 어느 집이던지 장독간이 큰 陶器塵가티 보인다. 그것은 서울 여자의 마루시간 치레나 함경도 여자의 부엌시간(例如동의, 향아리두멍) 치레나 黃平兩西 여자의 침구 치레와 비슷한 일이다. …”

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전라 여자 중에 특히 전주 여자의 요리 솜씨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하며, 전주의 신선로, 약주, 비빔밥 등을 명물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음식상이 가문과 집주인, 그 집안의 여인들의 인품을 말해준다는 전주의 상차림에 대한 전통적인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일보 1959년 1월 29일자 풍토유람(風土遊覽)이라는 칼럼에 전주시편이 게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는 고색(古色)의 거리로 누구나 전주로 오는 나그네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라고 한다. 후백제의 건원이 도읍한 도시로 문화와 예술과 명승고적이 서울 못지않게 풍부한 곳이다. (중략)

시민들의 기질(氣質)은 극히 보수적이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격렬한 성격과 대모는 별로 없고 평화와 정적을 좋아한다. (중략)

음식에는 전국에서 전주음식이라 제일이라고 전평이 나 있다. 그중에서도 「비빔밥」은 전통과 명성을 자랑함에 손색이 없다. 「비빔밥」을 먹지 않으면 전주 온 기분이 나지 않는다. 전주는 토질이 나쁘다고 하여 「콩나물」을 애용하고 있어 콩나물을 먹으면 토질이 인체에 끼친 해독을 제거한다. 그래서 빈부의 차 없이 조식으로 식상에 오른다. 콩나물은 짬뽕(짬을 태운 재)에다 길러서 먹는다고 하나(이것은 겉뿌리가 나지 않는 관계로) 모든 것이 바뀐 이 시대라 그런지 지금은 기업화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하고 보니 명물로는 쇠퇴하여 가는 편이다. (중략)

앞의 신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식에는 전주가 전국의 으뜸으로 그중에서도 비빔밥이 가장 명성이 높으며, 전주 사람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을 먹어, 토질로 인한 해독을 하였다. 비록 지금은 기업화 대량생산화되어 짬재에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것이 전주에서 전통적으로 콩나물을 기르는 방법인 듯하다.

4. 전주음식의 근간, 식재(食材) 전주

가람 이병기(嘉藍 李秉岐, 1891~1968)가 1950년대 초 저작한 ‘근음삼수(近吟三首)’에 ‘완산 팔미(八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전주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전주 8미(무, 게, 모래무지, 황포묵, 애호박, 열무, 파라시, 서초) 또는 여기에 콩나물과 미나리를 더하여 전주 10미라 하여 특산물인 먹을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중 특히 콩나물은 전주의 대표 음식인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의 주재료로 빠질 수 없는 식품이며 콩나물 자체의 맛은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이면 고슬기도 하고 부드러우면서 나긋나긋한 맛이 한층 감칠맛을 주는 것이다.

콩나물은 옛날 부성 사람들이 하루 세 차례씩 음식상에 올려 먹었던 반찬이다. 전주 시내 전역에서 나오지만 특히 사정골과 자만동(현재의 교동일대)의 녹두포 샘물로 기른 콩나물을 일품으로 꼽았다.

한의학에서는 콩나물을 대두황권이라 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였다. 대두황권은 생콩으로 기른 길금(麤待)을 말하는데 길금 싹을 햇볕에 말린 다음 약간 볶아서[微炒] 약에 넣는다. 대두황권은 오랜 풍습비(風濕痺)로 힘줄이 당기고 무릎이 아픈 것(각기병)을 치료하며, 길이가 5푼 정도 되는 콩길금은 부인의 어혈을 해치는데 산모의 약에 넣어 쓴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전주에는 비타민 B1이 부족하여 생기는 풍토병으로 각기병이 유행하여 맛이

있는 식품은 아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먹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주의 좋은 수질의 물이 맛있는 콩나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유명하게 되었다.

1) 전주음식의 특징

① 음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다양하고 풍부하다: ‘식재 전주’, ‘완산 팔미’로 일컬어지는 고장으로 기후와 지형적으로 다양한 식재료가 집산되어진다.

② 쌀과 곡물로 만든 떡과 죽 그리고 전통주가 발달하였다: 전주는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쌀이 많이 나므로 철마다 떡을 많이 만들며, 특히 나복병, 감인절미, 차조기떡, 섭전, 부꾸미, 화전 등 손이 많이 가는 떡을 만든다. 또 보양식이 되는 죽의 종류가 많고, 물이 좋고 쌀이 많이 나므로 쌀로 빚은 약주로 송순주, 이강주, 죽령고 등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향토 명주가 있다.

③ 따뜻한 기후 덕분에 음식의 간은 세고 맛이 진한 편이며, 김치, 젓갈, 고추장과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식품이 잘 발달하였다: 전주음식의 매력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오랜 시간 발효에 의한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의 4가지의 기본 맛이 잘 어우러진 감칠맛과 깊은 맛으로 표현되는 ‘개미가 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개미’는 음식 맛을 보고 나서 발하는 토속 언어로 오랜 시간의 공력과 정성, 즐기는 사람의 기쁨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레 녹아난 참맛을 이룰 때 쓰는 말이다. 전주 김치는 고춧가루와 젓갈을 많이 쓰며, 반지(백김치), 고들빼기와 과김치 등 별미 김치가 특히 맛이 있다. 고추장의 명산지이고, 장류에 오래 박아두는 장아찌의 종류가 많고, 서해안에서 잡히는 해산물로 담근 젓갈이 다양하다.

④ 음식에 대한 정성이 극진하고, 한 상에 차리는 음식 가짓수가 유난히

많다 : 조선왕조 전주이씨의 관향이며, 전라감영이 있던 곳이라 음식을 만드는 부녀자들의 손끝이 야무지고 그 정성이 지극하여 음식은 매우 호사스럽고 상차림은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의 가짓수 때문에 외지인을 놀라게 한다.

⑤ 음식의 맛과 더불어 소리와 서화 등 생활의 맛을 즐기는 풍류를 즐겼다 : 역사적으로 지형적 배경으로 쌀과 채소, 수산물 등 물산이 풍부하고 생활의 여유가 있어 소리와 서화를 즐기는 풍류가 있다.

5. 전주의 대표 음식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것은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전주한정식을 꼽는다. 호암 문일평(湖岩 文一平, 1888~1939)은 전주비빔밥을 평양의 냉면과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의 하나라 극찬하였으며, 콩나물국밥, 한정식, 돌솥밥 및 오모가리탕은 또한 별미로 경향 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전주의 가정식 밥상은 역사적 전통이 강한 반면,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은 조선 후기 시장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전주 남밖장에 생겨난 것으로 불과 200여 년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전주의 한식 백반집과 한정식이 전라감영이 자리하였던 구 전북도청 주변에서 성업하고 있는 것도 전주시대 전주 관아의 아리(衙吏)들이 뿌린 씨앗으로 추정된다. 아리들의 입맛이 한식 백반집을 집성하게 된 동기일 수도 있다. 조선시대 전주의 아리들은 조선시대 중앙권력이 강화되면서 지방 관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지만, 고려시대 향리집단의 전통을 가진 전주의 향촌 지배세력으로 권세를 유지하는 집단이었고, 선비 집단으로 지방 문화를 유지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판소리도 이러한 아리들의 문화였지 농민들의 문화는 아니었다.

1) 전주비빔밥

비빔밥은 전주만의 고유 음식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음식이다. 비빔밥의 유래에는 궁중 음식설, 의례 음식설, 농번기 음식설, 선달그믐 음식설, 동학혁명설, 임금뫼진 음식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주비빔밥은 이 중에서 궁중 음식설에 더 가깝게 발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철수의 『전주야사』(1967)에서 “전주비빔밥은 조선조 때 감영(監營)내의 관찰사, 농악패의 판관 등이 입맛으로 즐겨왔었고 성(城) 내외의 양가에서는 큰 잔치 때나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외에는 입사치로 다루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전부터 고관들이나 부유층에서 식도락으로 즐겼던 귀한 음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궁중 음식에서 서민 음식으로 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전주부성 향토세시기』 중 2, 3, 4월령에 기호음식으로 비빔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주에서는 200여 년 전부터 이미 비빔밥을 즐겨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전래 과정에서 그 역사적·지리적 환경과 관련지어 볼 때 전주에서 특히 잘 발달한 이유로는 풍부한 식재료(전주 10미)와 부녀자의 음식 솜씨 등으로 인해 오늘날의 ‘전주비빔밥’이 탄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비빔밥이 처음으로 언급된 문헌은 1800년대 말엽의 『시의전서』인데 이 문헌에는 비빔밥을 부뽕밥(汙董飯)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골동반의 골(汙)은 ‘어지러울 골’ 자이며, 동(董)은 ‘비빔밥 동’ 자인데 골동(汙董)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골동반이란 이미 지어놓은 밥에다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주비빔밥의 유래로는 궁중 음식설, 임금뫼진 음식설, 농번기 음식설, 음복설, 묵은 음식 처리설, 동학혁명설 등으로 다양하나 그 어느 것도 유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궁중 음식설’은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에는 흰수라, 팔수라, 오곡수라, 비빔등 4가지가 있었는데, 비빔은 점심 때나 종친이 입궐하였을 때 먹는

가벼운 식사였다고 한데서, ‘임금뭉진 음식설’은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 임금이 뭉진하였을 때, 수라상에 올릴 만한 음식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밥에 몇 가지 나물을 비벼 수라상에 올렸다는 데서 그 유래를 들고 있다. ‘농번기 음식설’은 농번기에는 하루에 여러 번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때마다 구색을 갖춘 상차림을 준비하기 어려워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게 되었다는 데서, ‘동학혁명설’은 동학군이 그릇이 충분하지 않아 그릇 하나에 이것저것 받아 비벼 먹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음복설’에서 음복(飮福)은 제사를 마치고 제상에 놓은 제물을 빠짐없이 나눠 먹는 것을 말하는데, 산신제(山神祭), 하제(河祭)의 경우에는 집으로부터 먼 곳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식기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없어 결국 제물을 골고루 먹으려면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제물을 받아 비벼서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묵은 음식 처리설’은 설날 그믐날 새해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음식을 장만하면서, 묵은해에 남은 음식을 없애기 위하여 몽땅 집어 넣어 비벼 먹었다는 것이다.

비빔밥이 어떤 유래를 갖든 결국 여러 가지 나물을 비벼 먹는 것으로, 각 지방마다 특산 농산물의 사용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전주, 진주, 해주 등의 비빔밥이 유명한 것은 이 지역들이 삼국시대 이래 전란이 잦았던 곳이어서 군사들의 집단 급식이 많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전주비빔밥의 유래를 볼 때 비빔은 궁중 요리로 점심때 가볍게 들은 음식이라고 사료되어지며 농번기 음식설, 음복설, 묵은음식 처리설, 동학혁명설 등은 그 유래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빔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건 결국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을 비벼 먹는 것으로 각 지방마다 특산 농산물의 사용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나 전주, 진주, 해주에서 향토 명물 음식으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전주비빔밥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의 하나로 꼽히는데 그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의 사용, 장맛 그리고 음식에 드리는 깊은 정성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라 하겠다.

전주의 콩나물은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데 이로 인해 자연히 콩나물을 사용한 전주콩나물비빔밥이라고까지 부르게 된 것이다.

일제시대 잡지인 『개벽(開闢)』(1925. 7. 1) 「팔도대표(八道代表)의 팔도 자랑」에 소개된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全羅道 代表 金廣大 登壇 날신한 몸집으로 생글생글 우스며 두 손을 한번 잡았다 퍼면서 「全羅道에는 자랑거리가 하도 만흐닛가 대표 一人으론 안되겄소. 적어도 열 사람은 되야겄소(잡담 일엽다는 야지가 날어난다). 여러분, 金堤萬頃 넓은 들이란 말을 드리 보았소. 즉 朝鮮의 穀倉인 朝鮮 유일의 대평야가 어대 있는지 아시오? 그것이 즉 全羅道랍니다. 그리고 朝鮮에 어느 道가 섬(島)이 제일 만소. 또 朝鮮의 제일 큰 섬은 어느 道에 있소. 그것이 다-全羅道에 잇답니다. 全羅道 竹器 全羅道 漆器 全羅道 부채, 全羅道 珠簾-이것이 다 朝鮮의 명물이고 그리고 金德齡 가튼 名將軍도 全羅道에서 나싯고 鄭忠信 가튼 忠臣도 있고 全捧準 가튼 大革命家도 全羅道 양반이요 大時國天子 車京錫도 全羅道 井邑에 본부를 두엇소(이놈 흠치무리로구나 하고 야단이 날어난다). 그뿐임닛가. 全羅道 광대가 유명하지오. 앓차 이것소. 萬古烈女 春香이도 全羅道 産이요(이놈아 사실엿다 하고 떠든다). 그뿐임닛가. 濟州島의 海女도 朝鮮의 명물이요 三神山의 一인 漢拏山도 朝鮮의 名山이요 竹林이 유명하고 濟州橘, 靈光굴비, 靈岩찬빛, 全州누른밥, 淳昌고초장, 羅州소반, 錦山인삼- 그것이 다- 全 鮮이 아는 명물이요. 그리고 全羅道 人의 교제술이란 참 유명하지오. 그리고 理智에 밝지요. 자-엇덧습닛가? 그만둡니다.」…

작촌 조병희 선생은 『완산고을의 맥박(脈搏)』에서 1920년대 남밖장의 정경과 전주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책 「남밖장의 낭만 어린 정경」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흥행이 없었던 당시 사정으로는 장에서 볼 용건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 물건을 사고파는데 거간이나 붙이고 친구하고 어울려서 막 걸리나 기율이면서 시름도 풀고, 세상 소문을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리라.

...

음식점에 들르게 되면 널따란 양푼을 손에 받쳐 들고 옥권 숟가락 두어 개로 비빔밥을 비벼대는 장정을 보게 된다. 흥이 나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빙빙 돌렸던 양푼을 허공에 빙빙 돌렸다가 다시 손으로 받쳐 들고 비벼대는 솜씨는 남밖장만이 가지고 있는 정경이었다. 당시엔 애누리하는 것도 하나의 낭만이요, 되쟁이 콧노래 솜씨에도 한시대의 낭만이 숨어 있었다.

「온유한 마음으로 멋과 맛을 챙기는 고장 전주」 가운데 일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 남부시장의 비빔밥을 비비는 솜씨는 천하일품이었다. 건장한 사내가 양푼을 왼손에 받쳐 들고 오른손아귀로 꼭 쥔 수저 두 가락으로 양푼을 빙빙돌리며 비벼대는데 한참 흥이 나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치뜨린 양푼을 허공을 빙빙 돌리기도 하였다.

전주비빔밥은 한국음식문화의 전형으로 한국사상의 전통적 특징은 유, 불, 도 3교를 융합하는 조화의 원융정신에 있다. 이러한 원융적 사유가 가장 잘 반영된 음식이 비빔밥이며, 한국음식문화의 전형이 곧 ‘비빔밥문화’이다. 특히 전주비빔밥은 ‘먹기 위한 수단’을 넘어 ‘건강하기 위한 대안’으로, ‘푸짐함’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의 심미적 가치’를, ‘잡석의 비빔’에서 ‘상생의 비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재료들이 지니고 있는 맛과 영양과 형색과 향취가 대화(大和)의 원융을 이루어 내·외재적 심미성이 풍부하다.

전주비빔밥은 동양적 우주자연의 생성원리인 오행(五行)의 순환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철학의 궁극 사유인 태극(太極)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

간다. 전주비빔밥에서의 태극은 곧 음식을 담는 둥근 놋그릇에 해당되며, 놋그릇은 무한한 맛의 생성과 변화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이후 온갖 재료들의 음양오행적 작용은 상생의 혼합을 통해 새로운 하나의 맛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전주비빔밥은 전통적 맛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우주자연론에 입각한 생명의식과 무한한 변화미를 내재하고 있다.

전주비빔밥에는 3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콩나물, 미나리, 애호박, 무, 황포묵 등 전주 10미 중 5가지가 필수 재료로 들어가며, 2010년 2월 전주비빔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특화된 지역 특산품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표준 조리법과 특화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국 및 해외에 난립한 전주비빔밥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 지정 전주비빔밥 표준 조리법

- 주재료: 쌀, 콩나물, 사골, 고추장, 막장, 참기름, 육회, 황포묵, 계란 등
- 나물: 시금치, 고사리, 애호박, 미나리, 버섯(송이, 표고), 오이, 무
- 조미료: 마늘, 후추, 부추, 깨소금
- 기호품: 호도, 은행, 밤채, 잣, 김
- 만드는 법
 1. 사골 고은 물로 밥을 짓는다.
 2. 밥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콩나물(100g)을 얹어 뜸을 들인다.
 3. 콩나물이 익으면 밥과 고루 섞는다.
 4. 쇠고기는 채 썰어 배즙, 청주를 넣고 무쳐서 1시간 정도 놓아둔 후 마늘, 청장, 참기름, 깨소금, 잣가루를 넣고 무쳐 두었다가 육회로 사용한다.
 5. 미나리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데친다.
 6. 데친 미나리는 소금, 참기름, 마늘, 깨소금으로 무친다.
 7. 콩나물(160g)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찬물에 행군다.

8. 도라지는 소금을 넣어 주무른 후 씻어 쓴맛을 제거한 다음 마늘, 소금을 넣고 볶다가 깨소금, 참기름을 넣는다.
9.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삶은 다음 마늘, 청장을 넣고 무쳐서 볶다가 깨소금, 참기름을 넣는다.
10. 표고버섯은 채 썰어 깨소금, 참기름, 청장, 마늘을 넣고 무친 다음 살짝 볶는다.
11. 애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찬물에 살짝 헹구고 물기를 짰 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참기름, 깨소금을 넣는다. 무는 채 썰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소금을 넣고 무친다.
12. 오이와 당근은 길이 4~5cm 정도로 곱게 채 썰어 놓고 황포묵은 4~5cm, 나비 1cm, 두께 3mm 정도로 썰어 놓는다.
13. 그릇에 밥을 담고 나물을 색스럽게 돌려 담고 가운데에 육회를 넣고 그 위에 달걀노른자를 얹은 다음 기름에 튀긴 다시마를 잘게 부수어 넣는다.
14. 고추장은 따로 내어 개인 식성에 맞추어 넣고 콩나물국과 물김치를 곁들여 낸다.

2) 전주콩나물국밥

우리 고유의 국밥 상차림은 밥과 국을 따로 차려 각각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 먹도록 간장과 함께 내놓는 따로국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활이 바빠지고 시간적 여유가 적어지자 아예 처음부터 국에 밥을 말아서 차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밥의 시초이다. 처음에는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맞추도록 간장을 따로 내놓았다. 그러다 아예 간조차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내놓게 되었고, 장이 들어간 국밥, 즉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내놓은 국밥이란 뜻의 장국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바쁜 시장통에서 콩나물국밥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장국밥으로 발달하였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콩나물을 먹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이름의

등장은 고려 고종 때의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에서 볼 수 있다. 콩나물의 머리가 노랗다고 해서 ‘대두황(大豆黃)’이라 했다.

일제시대 『전주부사(全州府史)』(1943)에는 전주 콩나물을 ‘각별미미(格別美美)’ ‘전주의 콩나물은 풍토병 약효가 있어 이 고장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전주에는 콩나물국밥 전문점도 적지 않고, 골목 골목에 콩나물해장국집도 많다.

전주콩나물국밥(탁백이국)에 대한 이야기가 일제시대 잡지인 『별건곤(別乾坤)』(1929. 12. 1) 「천하팔도명식물예찬(天下八道名食物禮讚)」에 나온다.

多佳亭人 平壤의 어복장ㅅ국 서울의 설넝탕이 명물이라면 全州 名物은 탁백이국일 것이다. 명물이라고 하면 무슨 특이한 珍味인 것 갖기도 하지만 실상 그러치는 안코 어복장ㅅ국이나 설넝탕과 맞치 한가지로 上下貴賤이 업시 누구나 먹고, 갑시 혈하고, 한테다가 맛이 구수하며 술속이 잘 풀니니 이만하면 어복장ㅅ국이나 설넝탕과 역개를 건줄 만한 명물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복장ㅅ국이나 설넝탕보담도 나은 편이 업지안타. 그것은 어복장ㅅ국은 고기로 끄리고 설넝탕도 소고기로 끄리는 만큼 원료가 다 그만한 맛을 갖추어가지고 잇겟지만 탁백이국은 원료가 단지 콩나물일 뿐이다. 콩나물을 솟헤 너코(시래기도 죠곰 넋기도 한다) 그대로 푹푹 살며서 마눌 양념이나 죠곰 넋는 등 마는 등 간장은 설넝탕과 한가지로 大禁物이요 소곰을 처서 휘휘 돌너 노흐면 그만이다. 元來 달은 채소도 그러하겠지만 콩나물이라는 것은 가진 양념을 만히 너어 맛잇는 장을 처서 잘 만들어 노아야만 입맛이 나는 법인데 全州콩나물국인 탁백이국만은 그러치가 안타. 단지 재료라는 것은 콩나물과 소곰뿐이다. 이것은 분명 全州콩나물 그것이 달은 곳 것과 품질이 달은 관계이겠는데, 그러타고 全州콩나물은 류산암모니아를 주어서 길으는 것도 아니요 역시 달은 곳과 가치 물로 길을 따름이다. 다가치 물로 길으는데 맛이 그러케 달으다면 결국 全州의 물이 죠타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업다. 그런 것

은 엿갯든 것처럼 맨콩나물을 폭신 삶아서 소곰을 처가지고 휘휘 내저어 노흔 것이 그와가치 맛이 있다면 신통하기가 짝이 엮는 것이다. 이 신통한 콩나물국을 먹는 법이 또한 운치가 있다. 아침 식전에 그러치 아니하면 子正 후에 일즉 일어나서 쌀쌀한 찬 기운에 목을 웅숭커리고 탁백이집을 차저간다. 탁백이집이라는 것은 서울가트면 선술집이다. 구수한 냄새와 푸근히 더운 김이竝다져 나오는 목노 안에 들어서 개다리상 가튼 길상에 걸어안져 튼튼한 탁백이 한 잔을 벌컥벌컥 드리켜고는 탁백이국 그놈 한 주발에 밥 한 술을 노아 훌훌 마시는 맛은 산해의 진미와도 박굴 수 업시 구수하고 속이 후련하다. 더구나 그안날 밤에 한 잔 톡톡히 먹고 속이 몹시 쓰린 판에는 이 탁백이국 외에는 더 덤혀 먹을 것이 업다.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맥히게 혈해서 탁백이 한 잔, 국 한 주발, 밥 한 덩이 三點을 합해서 一金五錢也라다. 全州가 특별히 음식이 헐키는 하지만 탁백이국은 특별 중 특별이다. 물론 階級을 초월한 것은 설녕탕 이 상이다. 이만하면 모든 것이 평범한 全羅道의 것으로는 꽤 제법이라 하겠다. 淸州로 全州에는 土疾이 몹시 심한데 콩나물국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예방한다는 것을 소개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전주콩나물국밥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첫째, 전주콩나물국밥은 콩나물과 소금뿐이었다.

둘째, 전주콩나물은 전주의 물이 좋아 다른 곳과 차별이 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셋째, 전주콩나물국밥은 아침 식전이나 자정 넘어서 이른 새벽에 먹는 국밥이었다.

넷째, 콩나물국밥집을 탁백이집이라 하여, 흑갈색으로 잿물을 칠하여 만든 오지그릇(뚝배기)에 담아 먹었다. 뚝배기는 불에 가열을 할 수 있고, 탕, 국, 찌개 등을 담은 그릇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전주콩나물국밥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인생관과 닮아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 큰 기교는 자연 그 자체이자 무위(無爲)이며, 이는 인공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사유는 음식미학

에 있어서 “좋은 맛은 맛이 없고, 좋은 형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대미무미(大味無味)’의 논리로 이어진다. 전주콩나물국밥은 가장 인위적인 가공이 배제된 무위(無爲)적 음식으로, ‘대미무미’의 심오한 맛과 철학이 함축되어 있다.

3) 전주한정식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었고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다는 사실은 전주의 음식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주가 혈통과 뼈대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후백제의 왕도 시기부터이다.

고려시대 전주 토호와 아리들은 후백제시대에 경주를 본향으로 견훤왕의 지지세력들이었으나, 사성(賜姓)을 받아 전주의 토성(土姓)으로 정착한 향촌 지배세력이었다. 이 향촌 지배세력은 후백제 당시의 혈통과 가문을 잇고 고려 말에 다시 조선왕조를 일으키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전주의 토성집단이 조선 후기에 중앙의 견제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가문의 전통은 유지되어 갔다.

이처럼 가문과 재력과 학력과 품위를 유지하는 선비집안의 음식은 곧 집안의 품격과 비례하였다고 한다. 음식상은 가문과 집주인의 인품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며, 음식 솜씨는 여인의 품격을 말해주고 상차림은 남자의 품격을 말해준다. 손 솜씨는 여인들의 대물림이다. 음식의 요체는 맛과 멋이다. 맛은 손맛이요 솜씨이며, 멋은 가문의 품격이다. 상차림에 품격이 있다는 뜻이다. 명망 있는 집에서 손님상을 내놓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전주 여인들의 음식 솜씨는 거슬러 올라가면 후백제 시기부터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맛을 내는 집안의 솜씨가 내려왔다고 본다. 집안 대대로 익혀온 음식 솜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식 밥상의 솜씨는 음식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의 노력이다. 이러한 이처럼 전주의 토착적인 향촌세력들이 일상적으로 먹어온

서민풍의 가정식 백반(밥과 채소반찬으로 이루어짐)을 일제시대에 상품화한 것이 한정식이다. 전주의 대표적인 백반 밥상이 전주한정식으로 그 전통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굶주림을 기근(飢饉)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기(飢)는 곡물이 여물지 않아서 생기는 굶주림을 뜻하고, 근(饉)은 채소가 자라지 않아 일어나는 굶주림을 뜻하여 곡식과 채소가 우리 식생활의 근본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균은 그의 저술 「한정록(閑情錄, 1618)」에서 집 근처에 채소를 심어 일상의 반찬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1958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 '팔도강산, 밭 가는대로 붓 가는대로'라는 칼럼에는 특미전주음식(特味全州飲食)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의 전통 있는 백반집인 '옴팡집'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統 있는 옴팡집」밥 한床에 두 時間의 精誠이라 하여 옴팡집을 소개한다. (중략) 옴팡집의 가지가지의 모든 반찬은 하나의 특미(特味)가 높지 않은 것이 없다.

옴팡집에서 내놓은 반찬은 한 접시 한 접시 전주음식의 명예를 거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주인의 성의가 이만저만의 것이 아니다. 나물 한 가지를 무쳐도 반드시 주인이 간을 맞추어 무친다. 평범한 조기찌개, 전어구이 등도 과연 주인의 솜씨는 전주 명물의 명예를 배가(倍加)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옴팡집의 음식이라 해도 주인이 만들지 않으면 가짜라고 한다.

옴팡집에선 반드시 주문을 받고야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만들어서 오래된 음식은 맛이 간다. 그러므로 백반음식을 먹으려면 적어도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앞의 신문자료를 통해 전주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정성과 전주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알 수 있다. 반찬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주인이 직접 정성을 다해 간을 맞추고 무치며, 주인이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가짜라고 말하는 장인정신, 주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음식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에서 비록 이는 ‘옴팡집’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이는 과거 전주의 각 가문의 상차림의 기본이었을 것이다. 이는 음식상을 가문과 집주인의 인품을 말해준다는 전주의 상차림에 대한 전통적인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음식을 먹는 사람 또한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또한 전주만의 전통이며, 전주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일 것이다.

전주한정식은 한국인의 기본 정서인 자신과 타자가 일체시되는 대동사상(大同思想)을 추구한다.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여 시간과 공간, 개체와 개체의 어우러짐을 추구한다. 전주한정식은 음식이 화려하더라도 재료의 성질을 해치지 않고, 종류가 많더라도 밥상 전체의 구성을 해치지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유가사상이 발휘되어 있다.

6. 마무리

전주의 음식문화 자원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그 우수함이 증명되어 왔지만 그 활용 면에서는 이러한 창조산업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많이 회자하는 글로컬리즘(globalism+localism)이 세계화시대 우리 음식문화에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글로컬리즘이란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조화롭게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즉, 세계적인 경향성을 반영하면서도 지역과 우리만의 개성을 부각시켜 다른 문화권과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전통문화는 보존하고, 새롭게 계승될 때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주어진 것을 보존만 하고 새롭게 변모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즉 창의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전통문화는 박제되어 있을 뿐이다. 음식문화에서도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개발을 구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전북음식문화연구회, 『전주 8미 및 장류 발굴 조사 보고서』, 전주시, 2001.
- 전북음식문화연구회,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에 관한 연구』, 1997.
-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 전북음식』, 1996.
- 전라북도, 『내고장 전북의 뿌리』, 1984.
- 이철수, 『전주야사 1집』, 전주시 관광협회, 1967.
- 신미경, 『전라북도 음식문화의 특성』, 전북음식문화연구회, 1995.
- 최승범, 『전라도 음식의 맛과 멋』, 전북음식문화연구회, 1996.
- 송화섭, 『전주음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전주시, 2005.
- 주영하, 『향토음식 담론의 역사적 변화와 문화권론』, 2010.
- 이동희, 『조선시대 전주의 역사와 문화』, 2005.
- 우리민속문화연구소, 『전주음식스토리개발사업』, 전주시, 2008.
- 이영은, 「전주음식에 대한 추임새」, 『새전북신문』, 2011.
- 이영은, 「전북 음식의 매력과 경쟁력은 무엇인가?」, 『새전북신문』, 2011.

한옥마을 건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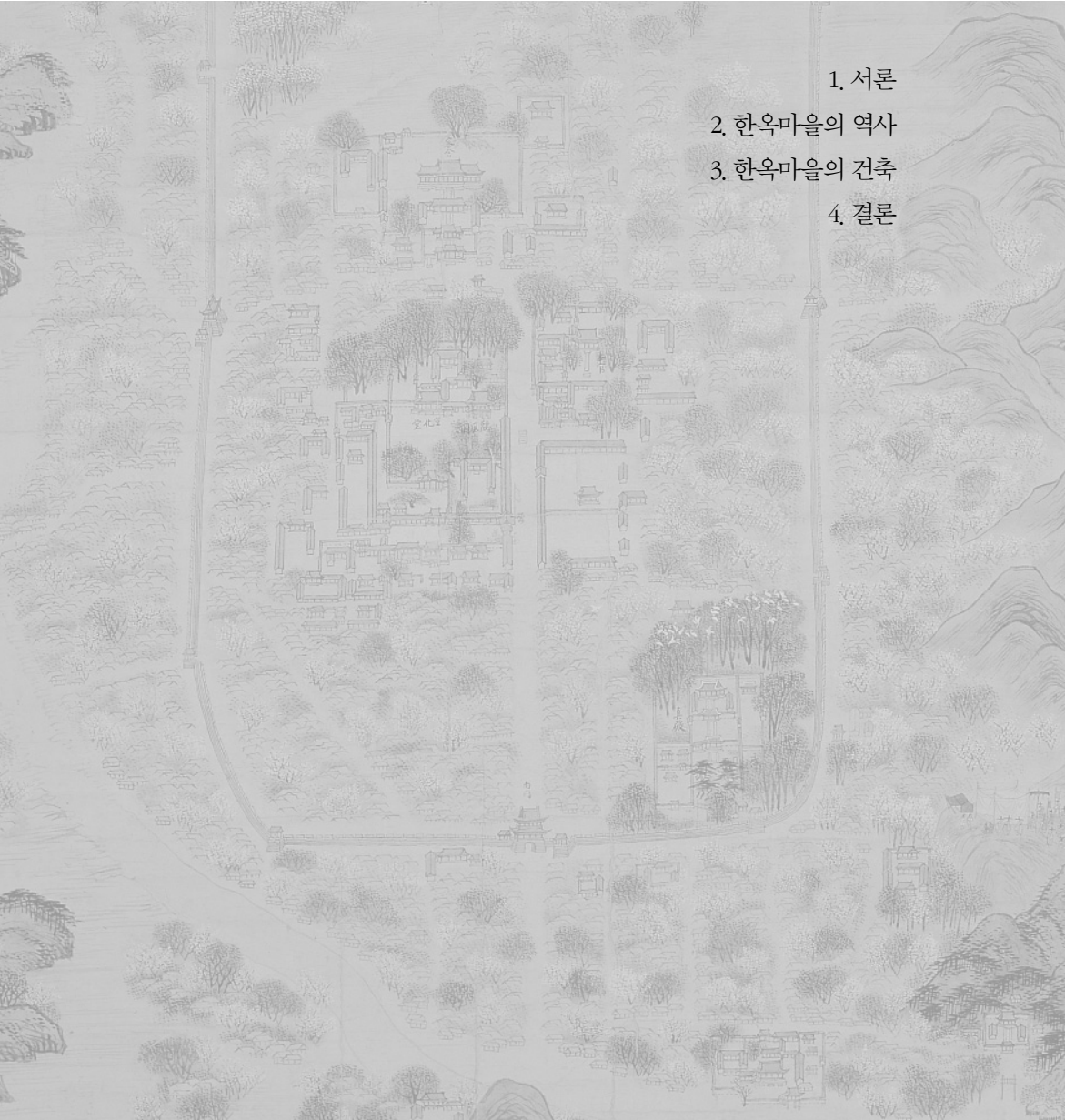
남해경(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2. 한옥마을의 역사

3. 한옥마을의 건축

4. 결론



1. 서론

전주는 판소리, 한지, 공예, 한식 등 한스타일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생활문화가 일상 속에서 생산·소비되고, 계승·발전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본산지이다. 현재 전주에는 수많은 전통문화 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전주는 전통의 삶이 현대적 생활양식과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가 되었다.

한옥마을은 이들 한스타일산업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우리나라에서 주거지가 관광지로 성공한 보기 드문 예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1년에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주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월요일 오전에도 수학여행을 온 학생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한옥마을은 이제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핵심 시설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문화지의 하나가 되었다.

한옥마을은 전주시 교동, 풍남동 일원의 한옥마을과 오목대 2지구를 포함하여 252,307㎡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 사는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200여 세대에 3,900여 명이 살고 있다.¹⁾ 이 지역은 과거 근대기에 전주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구 도심으로 오늘날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보면 신도심에 비하여 발전이 침체된 지역이다. 그렇지만 도시 경관 측면에서 보면 고전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약 700여

1) 전주시, 전주시통계연보, 2008.

채의 한옥이 위치하고 있다.

한옥마을의 최대 강점은 박제된 전통 마을이 아닌 실제로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숨 쉬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심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주거단지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생활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한옥마을은 전체가 한옥의 변천사, 특히 근대기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한옥건축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옥마을의 역사와 한옥마을의 도시계획적 현황, 건축적 현황을 알아보고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문화재, 그리고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옥을 소개하고 이들 한옥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옥마을 한옥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알아보고 시민으로서 앞으로 한옥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의 진정한 가치를 인지하고 한옥문화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2. 한옥마을의 역사

1) 역사적 배경

전주한옥마을이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언제부터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전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고문헌을 비롯하여 다른 문헌에서

도 한옥마을에 관한 뚜렷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고지도에서는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전주를 묘사하고 있으나 한옥마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고지도는 없다. 지방도 역시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²⁾ 단지 1872년에 제작된 지방도와 1745~1765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변사인방안지도에서 전주관아의 남문 쪽과 향교 사이에 민가를 묘사한 내용이 있다.³⁾ 이들 내용은 단지 민가일 따름이지 한옥마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은 아니다.

한옥이라는 표현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을 나타낸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즉, 한옥마을은 조선시대에 전라감영과 더불어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보고 있다.⁴⁾ 1930년을 전후하여 전주에서는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하여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⁵⁾

을사조약 이후 전주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처음에 전주부성의 서문 밖인 지금의 다가동 근처의 전주천변에 거주하였다. 전주에 처음으로 들어온 일본인은 야마구치현(山口縣) 사람인 이노우에쇼다로(井上正太郎)와 모리나가신식(守永新三) 형제로 당시 서문 밖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잡화상, 매약상(賣藥商)이 주류를 이루었고 의사,

2) 전주와 관련된 고지도는 광여도(18~19세기), 해동지도(18세기 중반), 1872년 지방도, 여지도(1790년), 비변사인방안지도(1745~1765년 제작), 전북대박물관 소장 전주지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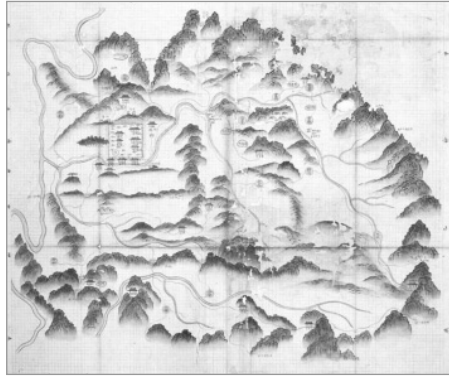
3) 현재의 한옥마을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 이곳이 한옥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때 부성안의 명문거유(名門巨儒)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곳에는 오목대와 발산, 한벽루 등의 명승이 있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자만동의 샘을 비롯하여 생활환경이 좋았다고 한다. <우리 고장 전주(전주시, 1982)> 실제로 한옥마을에는 월당(月塘) 최담(崔蠶)이 살던 최씨 종대(宗堡)를 비롯하여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의 학맥을 잇는 유학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부자 집 등의 부자들이 살기도 했다(필자 조사, 2009).

5) <http://tour.jeonju.go.kr/index.sko?menuCd=AA06001001000>



〈그림 1〉 1872년 지방도



〈그림 2〉 비변사인방안지도

대금업자 등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잡화상은 사탕을 단 것 중의 가장 으뜸이라 하여 매우 귀하에 여겼으며 나중에는 한국 상인들도 사탕을 많이 취급하였다고 한다.⁶⁾ 당시 성안과 성 밖의 거주 행위에는 신분의 차이가 적용되어 성 밖은 주로 천민이나 상인들이 거주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일본으로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양곡수송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군가도(全郡街道)가 개설되면서(1907) 전주부성의 서쪽 부분이 강제 철거되었으며 남문을 제외한 동문 주변도 철거되어(1911) 전주부성의 자취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성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성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서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다가동과 중앙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1934년까지 3차에 걸친 시구개정(市區改正)으로 전주는 격자형의 도시가 되었으며 서문 일대로 진출한 일본인들이 전주시내 최대의 상권을 차

6) 전주부사 제2편 통감부시대의 전주부, 1943.

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⁷⁾

그러면서 전주의 주거문화는 중화산동 일대에 조성된 기독교 건축과 선교사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다가동과 중앙동에는 일본인들의 주거지와 상업지가 형성되었으며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는 우리나라의 한옥주거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 1977년에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7년에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한옥건축물의 보존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7년 주민들로부터 재산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미관지구의 지정이 2년간 폐지되었다. 1999년 전통생활문화특구 기본사업계획이 작성되면서 다시 보존 의지가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 전주한옥보존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한옥 개보수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지정 고시되면서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하여 지역혁신 성공 사례로 선정 발표되기도 하였다. 2005년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 육성사업 기본 구상 모델이 선정되었고 2006년에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한옥마을 현황

(1) 도시계획 현황

전주한옥마을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화재 및 도시한옥이 밀집된 전통문화구역의 보전 및 정비,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

7) <http://tour.jeonju.go.kr/index.sko?menuCd=AA06001001000>

위계획구역”으로 풍남동 3가, 교동, 전동 일대 252,307㎡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외에 고도지구 규정에서는 최고고도지구로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표 1〉 전주한옥마을의 지역지정 현황

지 역		면적(㎡)	구성비(%)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1,845.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8,323.5	
	소계	240,168.8	95.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352.2	2.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786.0	2.3
계		252,370.0	100



〈그림 3〉 한옥마을 구역도

(2) 한옥마을의 건축 현황

① 건축의 용도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용도는 전체 708채 가운데 주거기능의 건축이 534채로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용도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혼합한 주상복합용도와 상업전용의 기능, 사무기능을 가진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거용도를 제외한 건물은 174채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주거기능이 주거단지임을 알 수 있다.

〈표 2〉 건축물의 용도

단위: 채, ()는 백분율(%)

용 도	전 체	용 도		
		주거기능	주거+상업	업무
수	708(100)	534(75)	5(1)	169(24)

② 건축년대

건축년대는 1940년대와 197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각각 105채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95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59채로 11%, 196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44채로 8%, 193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33채로 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타는 20~30채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192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22채가 있었으며 최근인 2000년대에 건축된 건물도 24채가 있었다. 1920년대에 건축된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한옥마을의 형성과 더불어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건축은 한옥마을의 지원금을 받고 개축이나 재축된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내용을 보면 한옥마을의 주거건축은 1940년에서 1970년대에 313채가 건축되어 전체의 59%가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에 한옥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이 실시되던 당시의 건축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3〉 건축년대

단위:채, ()는 백분율(%)

연대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기타	전체
수	22 (4)	33 (6)	105 (20)	59 (11)	44 (8)	105 (20)	33 (6)	26 (5)	24 (4)	83 (16)	534 (100)

③ 건축양식

한옥마을의 건축양식은 한식이 341채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옥이 100채로 19%, 일식이 39채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충식이 54채로 10%를 차지하고 있어 한옥마을 건축답게 한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절충식의 경우 1960년대 이후에 건축된 현대건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주택이나 관공서의 사택으로 사용되던 건물들이 대다수였다. 절충식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양식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 건축양식

단위:채, ()는 백분율(%)

양식	한식	일식	양옥	절충식	전체
수	341(64)	39(7)	100(19)	54(10)	534(100)

④ 건물 동수

하나의 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동수는 다음 표와 같이 1동이 260채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동이 205채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3동 이상은 미미한 숫자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옥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근대에 건축된 한옥이라는 점과 주변을 대상으로 한 임대 성격이 강하여 별동은 화장실이나 창고, 셋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전통한옥에서 볼 수 있는 채 나눔에 의한 사랑채나 아래채 등의 별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표 5〉 건물 동수

단위:채, ()는 백분율(%)

동수	1동	2동	3동	4동	기타	전체
수	260(49)	205(38)	60(11)	7(1)	2(1)	534(100)

⑤ 연면적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연면적은 50~100㎡가 323채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하가 137채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100㎡ 이상의 연면적을 보이는 한옥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이는 한옥마을의 건축이 주거건축이고 도심에 위치하는 관계로 대지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가 및 건축비의 영향으로 연면적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연면적

단위:채, ()는 백분율(%)

연면적	~50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	전체
수	137(26)	323(60)	43(8)	19(3)	3(1)	9(2)	534(100)

⑥ 평면양식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평면양식은 一자 형 평면이 409채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ㄱ자 형이 109채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ㄷ자 형은 1채에 불과하다. 이는 한옥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평면이 나타나지 않고 一자 형 평면이나 ㄱ자 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평면양식

단위:채, ()는 백분율(%)

평면양식	一자 형	ㄱ자 형	ㄷ자 형	기타	전체
수	409(77)	109(20)	4(1)	12(2)	534(100)

⑦ 건축구조

한옥마을 건축의 구조는 목조가 342채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적조가 125채로 23%를, 기타 조적조와 목조를 혼합한 양식과 콘크리트와 목조를 혼합한 양식, 콘크리트와 조적조를 혼합한 양식의 절충식이 36채로 7%, 콘크리트 구조가 31채로 6%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옥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목조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으며 근대에 건축된 조적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건축구조

단위: 채, ()는 백분율(%)

구 조	목조	조적조	콘크리트	절충식	전체
수	342(64)	125(23)	31(6)	36(7)	534(100)

3. 한옥마을의 건축

1) 한옥마을의 건축문화재

○경기전(사적 제339호)

경기전은 조선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사묘(祠廟)건축이다. 경기전은 1410년(태종 10)에 어용전(御容殿)이라는 이름으로 완산·계림·평양 등 세 곳에 창건하고 태종이 부왕인 태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다. 1442년(세종 24)에는 그 소재지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전주는 경기전, 경주는 집경전(集慶殿), 평양은 영종전이라 불렀다. 경기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4년(광해군 6)에 중건하였다.

건물의 구성은 본전을 중심으로 본전 가운데에서 달아낸 현(軒), 본전 양 옆의 익랑(翼廊)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두르고 있는 내삼문·외삼

문 등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본전은 다포식으로 맞배집 건물인데 기단을 석축으로 높게 쌓고 그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을 세웠다.

본전 앞에 축조한 현은 본전보다 한 단 낮게 쌓은 석축 기단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공포는 2익공 양식이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인 맞배지붕 건물로 익량을 두지 않았으며, 옆면 가운데에 사이기둥을 세워 삼문을 달았다. 경기전에 봉안하고 있는 태조 어진은 1442년에 그린 것을 1872년(고종 9)에 고쳐 그린 것이다.

그리고 전이나 유사 시 위협에 닥쳤을 태조 어진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완주 위봉산성에 행궁을 건립하였다. 실제로 동학농민 봉기 당시 태조의 어진을 행궁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진을 모시기에는 너무 누추하다 하여 위봉사에 모셨었다고 한다. 그리고 행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봉산성을 축성하기도 하였다. 행궁의 건축양식은 경기전과 거의 같은 양식이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위봉산성의 행궁부지에는 계단과 주초석 등이 일부 남아 있으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유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조경묘(유형문화재 제16호)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공 부부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1771년(영조 47)에 세웠다. 1854년(철종 5) 경기전을 고칠 때 같이 수리하였고, 1894년(고종 31) 위봉사에 잠시 모셨다가 이곳으로 다시 모셨다. 위패는 영조 47년에 왕이 친필로 써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

조경묘는 1771년(영조 47) 7도(七道)의 유생(儒生)들이 상소(上疏)하여 창건하였는데, 영조가 친필로 써서 보낸 ‘시조고신라사공신위(始祖固新羅司空神位)’와 ‘시조비경주김씨신위(始祖妃慶州金氏神位)’라고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조경묘에 봉안된 영정은 태조 영정과 함께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의 전화를 피해 내장산 용굴암을 비롯해 충청도 아산과 적상산성 등

으로 옮겨다니다가 1614년 경기전이 중건된 후 다시 돌아왔다. 1854년(철종 5) 10월에 조정묘는 경기전과 함께 중수되었고,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는 전주부성이 점령되려 하자 영정들을 위봉사의 행궁에 안치하였다가 그해 7월 17일 다시 전주로 옮겨왔다.

○ 오목대와 이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오목대는 1380년(우왕 6) 삼도순찰사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귀경하는 도중 승전을 자축하는 연회를 열었던 곳으로 1900년(고종 37) 고종이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畢遺址)’가 새겨진 비가 세워졌다.

경기전에서 남동쪽으로 500m쯤 떨어진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동쪽의 승암산에서 오목대까지 산이 이어져 있었으나 전라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맥이 끊겼다. 오목대에서 육교 건너편으로 70m쯤 위쪽으로 가면 승암산 발치에 이목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목대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李安社)의 유허(遺墟)로서 시조 이한(李翰) 때부터 누대에 걸쳐 살던 곳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용비어천가』에도 묘사되어 있다. 이목대에도 고종이 친필로 쓴 ‘목조대왕구거유지(穆祖大王舊居遺址)’가 새겨진 비가 오목대와 동시에 세워졌다.

○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전주향교는 고려 말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배향(配享)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당시의 위치는 현재 경기전 근처였으나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하여 경기전이 준공되자 1410년(태종 10) 전주성의 서쪽 황화대(黃華臺) 아래로 이전하였다. 그 뒤 1603년(선조 36) 순찰사 장만(張晩)이 좌사우묘지제(左社右廟之制)에 어긋난다

하여 조정에 보고, 왕의 재가를 받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654년(효종 5) · 1832년(순조 32) · 1879년(고종 16) · 1904년에 중수하였고, 1922년에 명륜당을 보수하였다.

경내 건물로 3칸의 대성전, 각 10칸의 동무와 서무, 신문(神門), 외문(外門), 만화루(萬化樓), 5칸의 명륜당, 각 6칸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3칸의 계성사(啓聖祠), 신문(神門), 입덕문(入德門), 4칸의 사마재(司馬齋), 6칸의 양사재(養士齋), 2칸의 책판고(冊板庫), 직원실, 제기고(祭器庫), 수복실 등 총 99칸인 대규모의 건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향교는 전라도 53관의 수도향교(首都鄕校)라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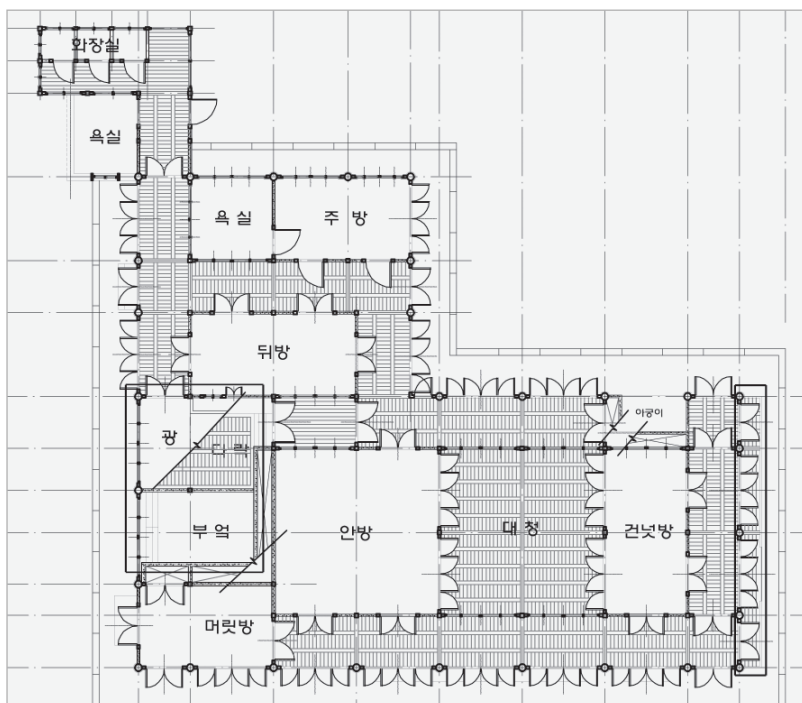
이 향교의 대성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5성(五聖) · 10철(十哲) · 송조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또 동무 · 서무에는 유약(有若) · 복불제(宓不齊) · 복승(伏勝) · 동중서(董仲舒) · 한유(韓愈)와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두리기둥을 세우고 맞배지붕을 얹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좌우 1칸씩은 눈썹지붕을 이어 달아 꾸몄다. 따라서 눈썹지붕의 도리가 뿔목으로 되어 길게 뻗어 나와 있는 독특한 양식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9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 · 가을에 석전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 ·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전적으로는 판본 67종 93책, 사본 32종 51책의 총 99종 144책이 있다. 현재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담당하고 있다.

○ 학인당(지방민속자료 제8호)

학인당은 조선 말기에 한국 전통 건축기술을 전승받아 지은 당시의 상류층 주택으로, 조선왕조 붕괴 후 궁중 건축양식을 민간 주택에 도입한 예



〈그림 4〉 학인당 평면도

이다. 일류 도편수·목공을 비롯한 연인원 4,280명의 건축기술자들이 동원되었고 압록강 주변의 산들과 강원도 오대산 등지에서 베어온 목재를 써서 2년 6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하였다. 공사비용으로 백미 4,000석이 들어갔다고 한다.

건축양식은 7량가구의 곱은자집으로, 꺾이는 부분의 팔작지붕을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암막새와 숫막새, 추녀와 서까래 끝 등을 동판으로 싸서 비바람의 해를 방지하였다.

이 집을 지은 백낙중(白樂中)은 뛰어난 효자로, 고종으로부터 승훈랑(承訓郎)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다. 그가 죽은 후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솟을대문에 당시의 명필 김돈희(金敦熙)가 쓴 〈백낙중지려

(白樂中之間)라는 현관을 걸어 놓았다. 본채는 백낙중의 호 인재(忍齋) 가운데 인 자를 따서 학인당으로 명명하였으며, 호산 이광열의 휘호로 된 현관을 걸었다.

○ 전동성당(사적 제288호)

원래 전동성당이 위치한 자리는 풍남문의 밖으로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을 비롯하여 그의 외종형 권상연과 유항검 등 호남지역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참수당한 순교 터였다. 1889년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外邦傳教會) 소속 보드네(한자명 尹沙物) 신부가 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1908년 V.L.프와넬(한자명 朴道行) 신부의 설계로 건물이 완공되었다. 호남지방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서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성당건축이다. 평지의 성당으로는 대구 계산동성당과 쌍벽을 이룬다.

화강석을 기반으로 사용한 붉은 벽돌 건물로서, 본당과 측랑(側廊)의 평면 구성에다 내부는 돔으로 되어 있다. 중앙의 종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된 작은 종탑들은 조화로운 입체감을 창출하고, 건물의 상승감을 더해 준다. 종머리는 로마네스크의 주조에 비잔틴풍을 가미하고 있다. 1988년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다.

○ 전동성당 사제관(문화재자료 제179호)

전동성당 사제관은 본당을 세운 뒤 2대 주임신부였던 라크루(한국명 具馬瑟) 신부가 1926년에 건축하였다. 이 건물은 1937년 전주교구청사와 교구장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 이후부터는 주임신부와 보좌신부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했었다. 3층 건물로 전동성당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본당과 같이 북향하고 있다. 건물 중앙에는 2층 현관으로 연결되는 주 출입구가 있으며 1층의 출입구는 건물의 남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데 1층 부분은 깎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

고 창 주변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다. 2, 3층 창대에는 화강석을 설치하고 창틀 외곽은 벽돌로 리아스식 쌓기를 하여 치장하였다. 지붕의 형태는 모임지붕으로 골합석 잇기를 하였는데 지붕면 네 곳 중앙에 도머 창을 설치하였다.

전동성당 사제관은 르네상스 양식을 바탕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을 가미한 절충식 건물로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운 외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의 건축기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1926년에 세워진 서양식 건축으로 전동성당의 본당과 더불어 역사적 가치가 큰 근대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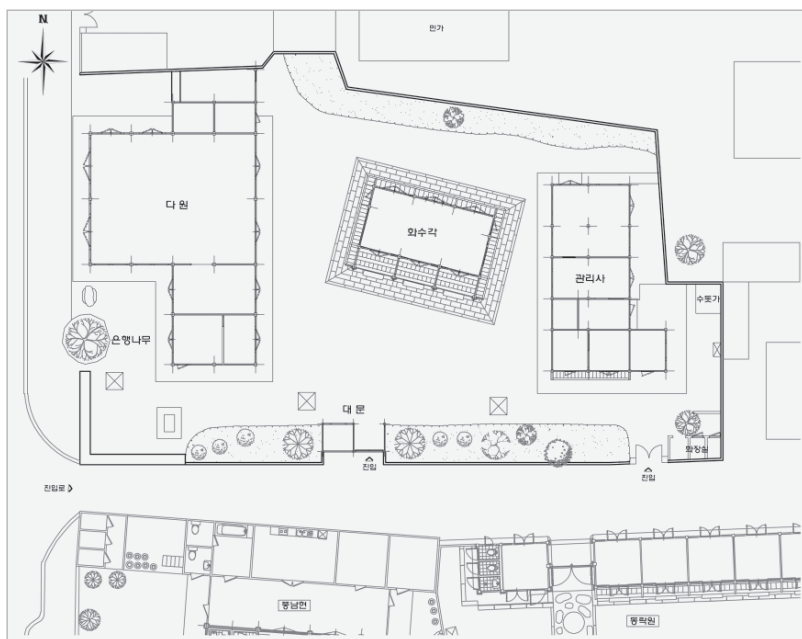
2) 한옥마을 한옥

(1) 최씨종대

이 집은 월당공 최담 선생이 낙향 후 후학양성을 위해 화수각(학당)을 건립하면서 건축하였다고 하며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단지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건립하여 중간에 소실된 것을 120년 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지는 동서방향으로 길고 서측이 좁은 직사각형 형태이다. 은행나무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령이 약 500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동쪽으로는 ㄱ자형의 건물인 다원을 두었고 대지의 중앙에 학당인 화수각을 두었다. 서측에는 ㄴ자형의 건물인 관리사가 있으며 화수각을 축으로 남측 담장의 중앙에 대문을 두었다.

화수각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전면 옆에 퇴칸을 두었고 그 뒤의 3칸을 방으로 구성하였다. 기단은 외벌대의 낮은 화강석기단으로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전면 옆에는 원형 가공한 화강석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주두를 놓고 창방 위에 소로를 놓아 장여와 도리를 받는 소로수장 양식을 하였고 그 외는 방형의 자연석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굴도리로 결구하였다. 구조는 5량집으로 홀처마 팔작집이다.



〈그림 5〉 최씨종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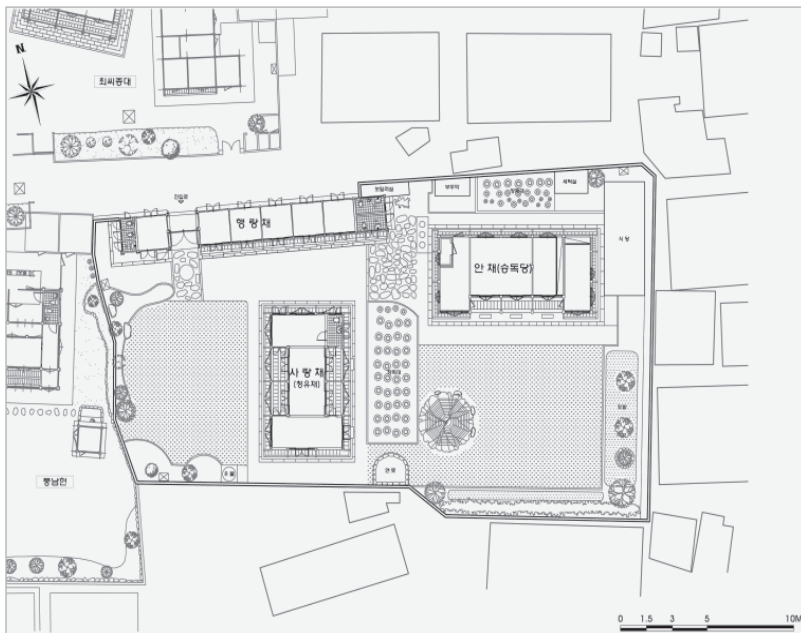
(2) 동락원

이 집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단지 1942년에 한국은행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2002년에 지역의 대학에서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입하고 개·보수하였다. 현재는 학생들의 전통문화 실습교육장 및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회가 전주에 들어와 선교하는 과정에서 설립하였는데 이때 학원선교를 구체화시킨 전킨(W.M.C.Junkin) 선교사의 기념관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집은 한옥마을에서 보기 드문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로 구성된 규모가 큰 집이다. 대지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은 형태이다. 대지는 직사각형 형상인데 공간을 동서방향으로 둘로 분할하여 안채와 사랑채를 배치하

고 남쪽에는 넓은 마당이 위치하고 있다.

사랑채는 대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면서 서향을 향하고 있으며 전면에 사랑마당이 있다. 행랑채는 담장을 겸하면서 동서로 길게 배치되었으며 대문 칸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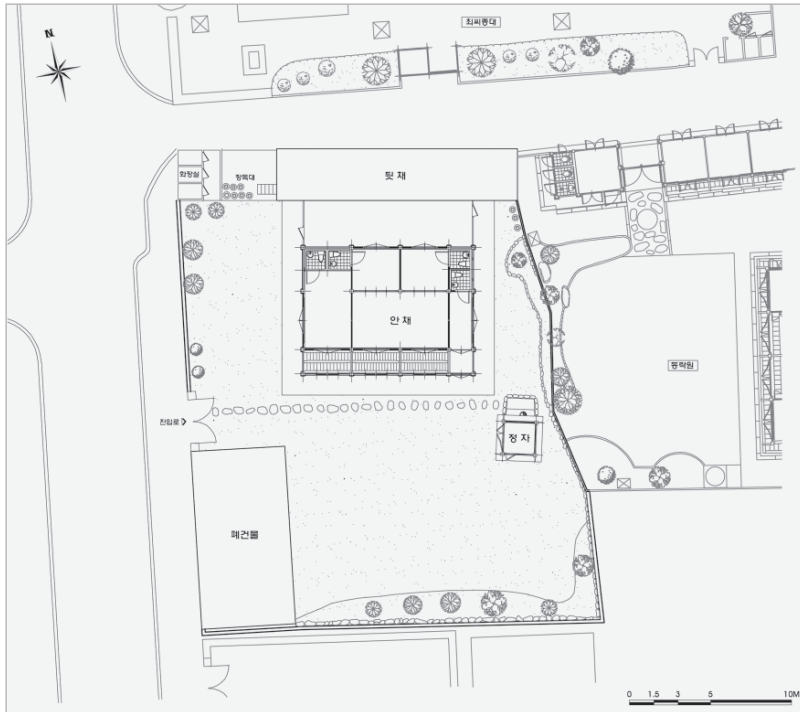
〈그림 6〉 동락원배치도

(3) 풍남헌

이 집은 1934년에 건립한 건물(안채 종도리 상량문: 歲在 甲戌四月二十六日巳時立柱同月二十八日午時上樑 子坐午向 應天之三光 備人間之五福)로 전 운수회사 사장이 지어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80년대 초에 다른 사람이 매입하여 내부 수리를 하면서 내부의 구조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2004년부터 현 주인이 구입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풍남헌”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7년에 대대적

인 해체보수를 하였는데 이때 공사는 대목장 신흥수의 제자인 정태도가 주도하였다고 한다.

인근에 살고 있는 전 집주인의 구술에 의하면 건립 당시에는 행랑채 등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대지 내에는 당초의 화강석 초석이 다수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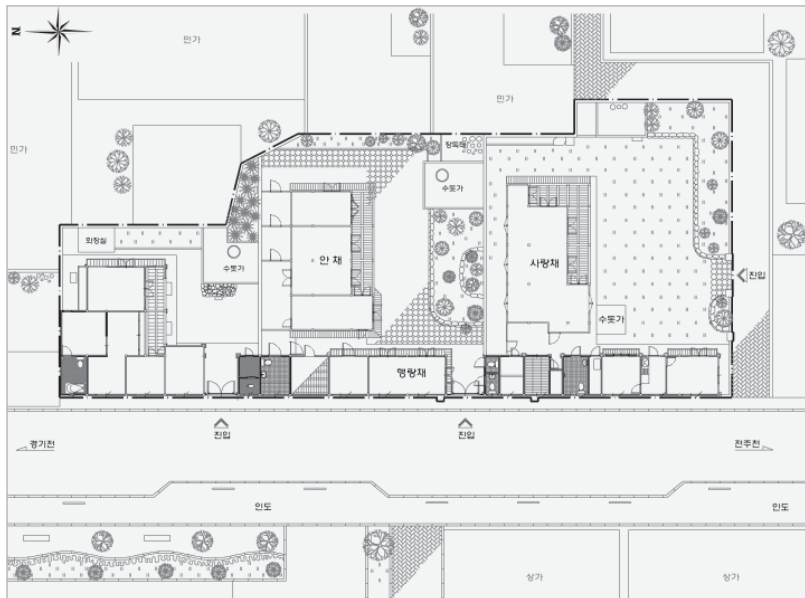
〈그림 7〉 풍남헌 배치도

(4) 삼원당 한약방

이 집은 상량문에 의하면 1937년에 건립되었다. 남북으로 긴 대지에 서쪽의 도로를 따라서 길게 담장을 겸한 一자 형태의 행랑채를 두었다. 부속채 동쪽의 끝 방을 자오선 방향으로 하여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였다. 중

양에 안채와 안채마당, 화단을 두고 그 남쪽에 사랑채와 사랑마당을 두었다. 북쪽의 부속채는 현 집주인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어머니 집이었다고 한다. 이 3공간은 행랑채를 제외한 삼 면에 적벽돌로 쌓은 담장으로 구획하여 각 영역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랑채에는 대문을 2곳 두었는데 첫 번째 대문은 북쪽에서 4번째 칸으로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 후면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는 담장을 만들어 출입할 수 없다. 두 번째 대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7번째 칸에 나 있는데 이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의 후면이 나타난다. 이곳 역시 담장을 만들어 출입할 수 없다. 이는 후일 하나의 대지였던 공간이 사랑채, 안채, 부속채 구역의 3공간으로 분할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건립 당시부터 도로를 따라 행랑채를 배치하고 그 안쪽에 안채와 사랑채를 둔 공간구성으로 전통적인 한옥의 배치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일종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치방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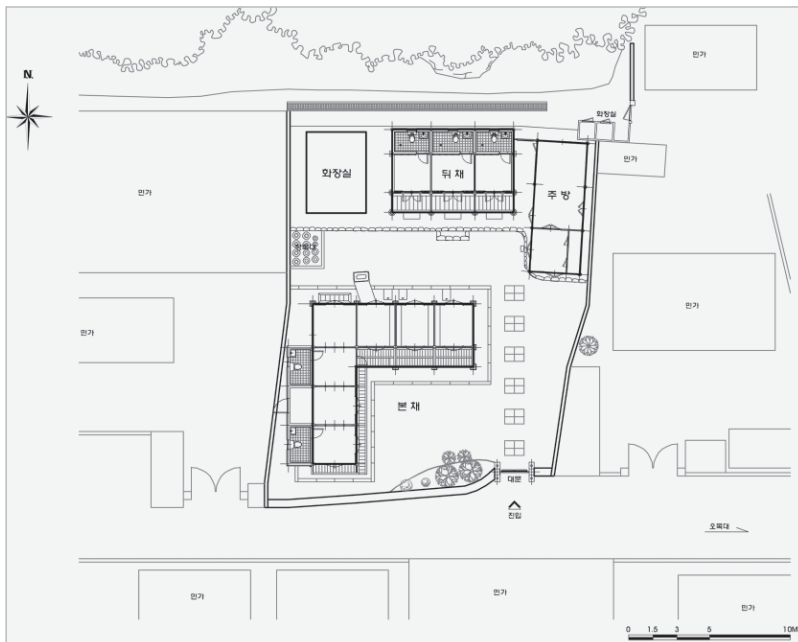


〈그림 8〉 삼원당 한옥방 배치도

현재의 안채는 본래의 형태에서 개조되었다고 한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자형 평면으로 좌측 후면에 정지가 있고 그 앞에 머리방이 있으며 그 동쪽으로 안방, 대청, 건넌방이 있고 건넌방의 전면에는 반 칸의 뒷마루가 있다. 건넌방의 서쪽과 머리방의 앞에는 쪽마루를 만들어 뒷마루와 연결하였고 집의 우측에도 쪽마루를 만들어 뒷마루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5) 양사재

양사재는 국립교육기관인 향교와 반대로 사학교육기관인데 향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났다. 양사재는 인재양성에 뜻이 있는 지방 수령이나 유림들이 발의하여 향교와 이웃한 곳에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유생들이 모여 생원, 진사 공부를 하였는데 진사시험에 합격하면 양사재에서 합격사실을 알리는 부표(附表)를 해야 비로소 인정될 정도로 영



〈그림 9〉 양사재 배치도

향력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지방 교육의 일익을 대표적으로 담당하였던 곳이다.

이 집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75년(고종 12) 판관 김계진이 노후된 양사재를 오목대 사우 터에 개축하여 문사들의 도장이 되게 하였으며 1951~1956년에는 전북대학교 전신인 명륜대학의 사택지로 가람이병기 선생이 기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고 한다. 1896년에 조선소학교령이 공포되자 이듬해인 1897년에 전라북도공립소학교의 인가를 얻어 그해 7월 10일에 전라북도 신교육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던 곳이다.

1980년에는 卍자 형태의 낡은 양사재를 헐고 집터를 돌아 옛 모습을 살려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2년 봄까지 이성로(李星魯) 씨의 미망인이 살았었고 2002년 10월부터 문화공간 양사재 운영팀이 민박과 야생차를 보급하면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6) 풍락헌(豊樂軒)

전주부에는 본래 형방청, 장방청, 작청, 군기고, 장청, 사령청, 통인청, 관노청 등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풍락헌뿐이다. 전주동



〈그림 10〉 풍락헌

헌은 풍락헌, 또는 음순당(飲醇堂)이라고 불렸다. 본래 전주부는 조선 초에 초창하였다. 건물이 낡고 오래되자 1758년 판관 서노수가 개건을 하였다. 그후 1890년(고종 27)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891년 판관 민치준이 중창하였다.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부가 폐지되고 전주군이 설치되면서 1934년까지 전주군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강제로 철거하여 매각한 것을 전주 유림인 유창근이 구입하여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옮겨 유씨 제각으로 활용하였다. 이때 본래 7칸이었던 동헌 건물을 6칸으로 줄여 이 건하였다. 그러던 것을 2007년에 전주시에 기증하여 7칸으로 복원한 것이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4칸인데 좌측 3칸에는 방을 들였고 4칸은 대청으로 하였다. 좌측 맨 끝의 방은 누정과 같이 툇마루를 돌출시켰다. 구조는 장대석 기단 위에 원추형의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운 다음 팔작지붕을 얹었다.

(7) 장현식 가옥

장현식 가옥은 본래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장흥 씨가 전주시에 기증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 건하였다. 일송(一松) 장현식(張鉉植)은 전북 김제에서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항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독립운동가였다. 일제시대에 3·1운동, 조선어학회사건에 자금을 조달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해방 후 전라북도 2대 도지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본래 이 집은 안채를 중심으로 전면에 대문채와 사랑채, 아래채가 있었고 후면에 사당이 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다른 건물들은 이전에 어려워 안채와 아래채만 한옥마을로 이 건하였다. 안채는 본래 한식이었으나 집주인이 일본집을 동경하여 높이를 높이고 장판벽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한옥의 양식을 근본으로 하고 근대풍을 가미한 집이다.

3) 한옥의 유형

(1) 한옥의 유형

한옥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의 평면유형을 분석하는데 본채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채에서 공간의 구성, 공간의 구조, 공간의 변용, 실의 기능, 실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본채와 연결된 부속 공간이나 부속사, 별채와의 공간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내용을 기준으로 평면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① 유형 1(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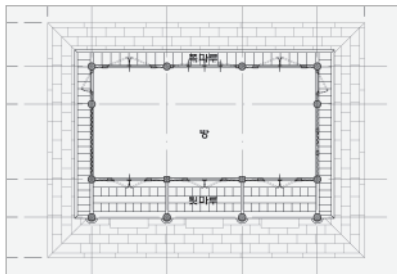
유형 1은 본래 주거건축의 형태를 변용이나 변형 없이 평면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이다. 이 형은 평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이들 집은 전부 10채로 교동에 7채, 풍남동에 3채가 분포해 있다.

ㄱ. 유형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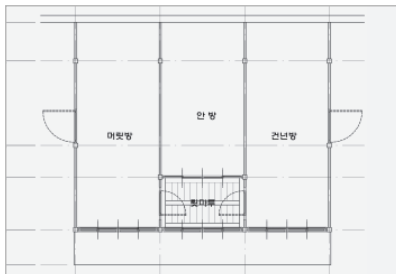
유형 1-1은 한옥마을 한옥평면의 가장 근원적인 평면유형인데 최씨 종대는 전면에 작은 툇마루가 있고 뒤에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부엌은 별채에 있다. 그리하여 이 집은 한옥마을에서 방과 툇마루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평면유형이다. 교동 이정자 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중앙 전면에 툇마루가 작게 형성되고 그 뒤에 안방이 있다. 안방 좌측에는 부엌이 있고 우측에는 작은방이 있다. 채종태 집은 교동 이정자 집과 같은 유형이나 중앙 전면의 툇마루가 길게 형성되었고 뒤에 방이 하나 더 있는 형이다. 이는 이정자 집이 발전되어 방이 하나 더 증가한 형이다. 이보근 집은 좌측에 머릿방⁸⁾과 정지가 있고 우측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으며 그 전

8)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정지 전면에 있는 방을 머릿방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ㄱ. 유형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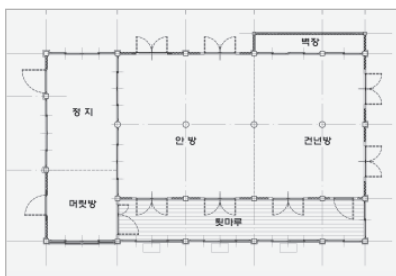
최씨 종대풍남동 3가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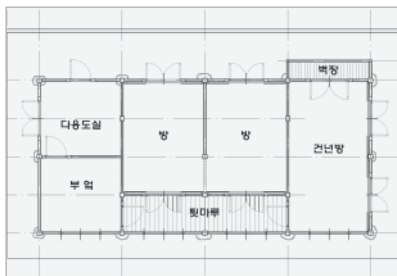
이정자 집(교동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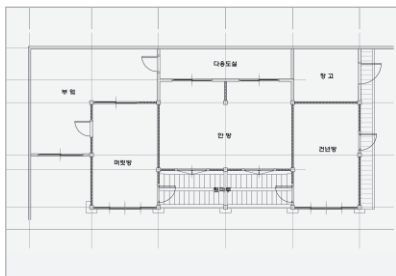
채종태 집(교동 24-2)



이보근 집(교동 63-13)



공가풍남동 3가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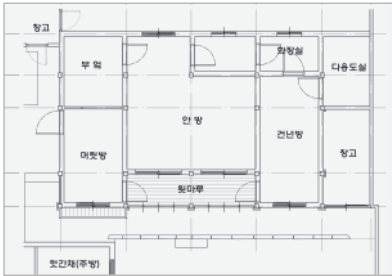
박연근 집(교동 15-16)



김순철 집(교동 82-2)



김신애 집(교동 24-11)



이해선 집(교동 165-1)

〈그림 11〉 유형 1-1

면에 마루가 있다. 그리고 건넌방 뒤편에 벽장이 돌출되어 있다. 풍남동의 공가는 이보근 집과 같은 유형의 평면이나 좌측의 부엌이 전면에 위치하고 다용도실이 후면에 있다.

박연근 집은 앞의 유형과 비슷하나 우측에 건넌방과 창고가 있고 좌측에는 건넌방이 있으며 이를 부엌이 감싸고 있는 유형이다. 김순철 집은 이보근 집과 같은 유형이나 좌측에 부엌이 아닌 머릿방이 있고 뒤에 부엌과 창고가 반겹집의 형태로 구성된 유형이다. 김신애 집은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기본적인 평면형태인 중앙 전면의 툇마루와 안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엌과 머릿방이 있고 우측에 건넌방과 창고가 있으며 그 우측으로 방이 1열 더 있는 형이다. 이는 중앙 공간에 우측에 방이 1열 더 첨가된 유형으로 겹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해선 집은 중앙의 안방을 중심으로 전면에 작은 툇마루가 있고 좌측에 부엌과 머릿방이 있으며 우측에 건넌방과 화장실이 있고 그 우측에 창고와 다용도실의 수장 공간이 1열 더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형은 一자형 평면으로 중앙 전면에 툇마루가 형성되면서 바로 뒤에 안방이 있고 좌측에 부엌과 머릿방이 있으며 안방 우측에 건넌방이 1차적으로 형성되고 그 우측에 창고와 다용도실의 부속 공간이 형성되는 형이다. 그리고 김순철 집의 경우 부엌이 뒤에 형성되고 있다.

ㄴ. 유형 1-2

유형 1-1이 ㄱ자형 평면인데 반하여 유형 1-2에서는 ㄴ자형 평면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집으로는 풍남동의 송계석 집을 들 수 있다. 이 집은 ㄴ자형 평면의 초기 형태로 ㄴ자형 평면의 꺾어진 부분의 전면에 작은



송계석 집(풍남동 3가 33-8)

〈그림 12〉 유형 1-2

툃마루가 형성되고 그 뒤에 방과 안방이 위치하고 있다. 좌측에는 ㄱ자로 꺾어지면서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우측에는 건넌방과 창고가 있다.

이 유형은 ㄴ자형으로 꺾어진 중앙 부근에 툃마루를 두고 뒤에 안방과 방을 두는 한편 좌측에는 부엌을 비롯한 부속 공간이 우측에는 건넌방과 창고가 위치하여 근본적으로 유형 1의 정형적인 평면형태를 따르면서 평면을 ㄴ자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② 유형 2(근대절충형)

ㄱ. 유형 2-1

유형 2는 근대기에 일본집과 근대풍의 평면양식을 혼합한 근대절충형이다. 유형 2-1은 일본집 양식을 도입한 절충형으로 교동에 2채가 있다. 박순임 집은 전면에 작은 툃마루를 두고 뒤에 거실을 두었으며 그 뒤에 안방과 작은방을 두었다. 거실의 좌측에는 부엌이 있고 전면에는 후에 공간을 개조하여 화장실을 두었다. 이 유형에서부터 이전에 나타나고 있던 툃마루와 별도로 거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의 모듈이 일본식 다다미방의 치수로 하였다. 집주인의 구전에 의하면 이전에는 거실의 바



박순임 집(교동 182-8)



송운호 집(교동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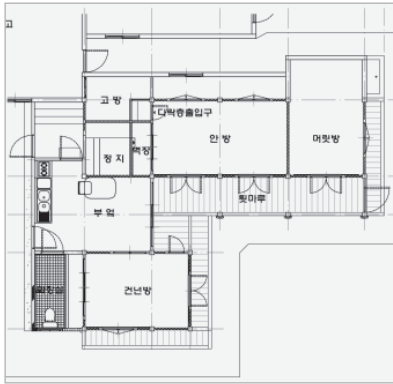
〈그림 13〉 유형 2-1

다에 다다미를 깔았었다고 한다. 이는 일견 우리나라의 겹집형태를 보여 주고 있지만 형태를 보면 일본의 전통적인 다다미방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평면유형을 혼합한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송운호 집은 ㄱ자형의 평면으로 꺾여진 안쪽 중앙 부분에 작은 마루를 두고 좌측에 부엌을 중심으로 한 부속 공간을 두었으며 우측에는 거실방, 뒤에는 안방과 창고를 두었다. 이집 역시 거실에는 일본식 다다미를 깔았었다고 하며 전체적인 모듈은 일본식 다다미방의 모듈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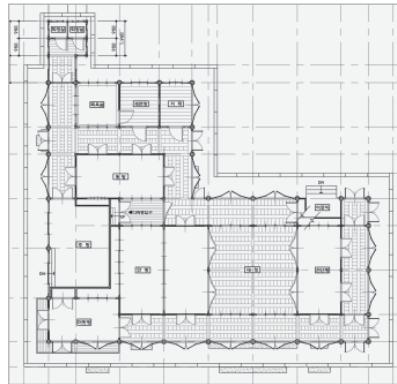
그러나 이 집들 역시 가운데 뒹마루를 중심으로 뒤에 안방이 있으며 좌측에 부엌이 있어 전형적인 한옥마을의 평면양식을 지니고 있다. 단지 안방의 전면이나 우측에 거실을 두어 거실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일본식의 모듈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유형은 한옥마을의 평면유형과 일본집의 다다미방을 혼합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유형 2-2

유형 2-2의 평면유형은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근대풍의 복도를 도입한 유형으로 교동에 2채가 있다. 오근풍 집은 전면의 복도



오곤풍 집(교동 57-4)



학인당(교동 105-4)

〈그림 14〉 유형 2-2

를 길게 형성하고 후면에 한옥마을의 평면양식인 부엌과 안방, 머릿방을 배치하고 마루 전면에 건넌방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루를 통하여 각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학인당은 전면 안방과 대청을 두고 좌측에 부엌을 두고 있으며 우측에 건넌방을 두었다. 그리고 후면에는 뒷방과 부엌, 욕실을 두었다. 그러면서 대청을 중심으로 전면에 마루와 후면의 복도를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결국 이 유형은 전통적인 한옥의 평면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근대양식의 복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유형 3(임대형)

유형 3은 방 1칸이나 한 세대를 임대하기 위한 유형이다. 유형 3은 다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방만을 임대하는 경우(유형 3-1), 하나는 방을 담장까지 확장하거나 담장까지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유형(유형 3-2), 방과 부엌을 임대하는 유형(유형 3-3), 다가구 임대형(유형 3-4), 별채를 임대하는 유형(유형 3-5)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ㄱ. 유형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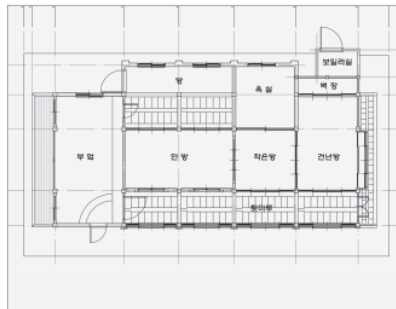
유형 3-1은 방 1칸을 임대하기 위한 유형으로 교동에 8채, 풍남동에 3채로 총 11채가 있다. 이 유형은 방의 출입구와 거주자의 증연을 근거로 분류하였는데 임대하는 방은 하숙이나 잠을 자기 위한 방으로 취사는 하지 않는 임대유형이다. 이는 70년대 이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2개소)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을 하거나 방 하나만을 임대하는 경우의 유형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당시 전주시의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주택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들이 방 하나만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곳이다.

이들 유형은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정형적인 평면양식처럼 앞에 툇마루가 있고 그 뒤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으며 좌측에 부엌과 수납을 위한 부속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우측의 방 뒤에는 대부분 벽장이 위치하고 있어 임대인들이 방 외에 수납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벽장 하부에는 아궁이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아궁이는 초창기에 연탄아궁이가 대부분이었으나 후에 기름보일러로 교체되면서 빈 공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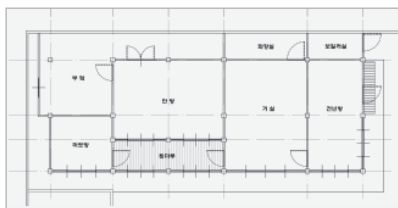
이 유형은 임대하는 방의 뒤편에 보일러실이 위치하여 난방을 임대인이 관리하는 경우, 방 뒤에 화장실이 위치하여 방과 화장실을 연계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ㄱ자 형의 평면으로 임대하는 방 옆에



교동다원(교동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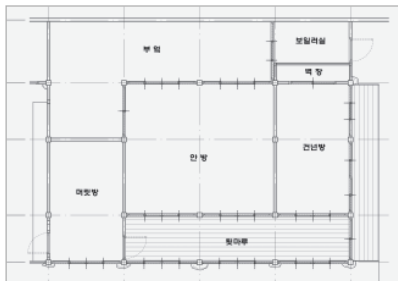
김용찬 집(교동 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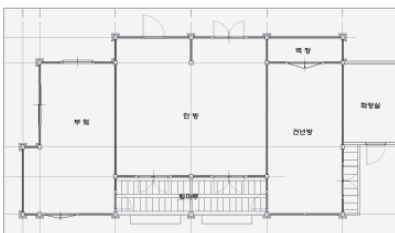
김창균 집(풍남동 3가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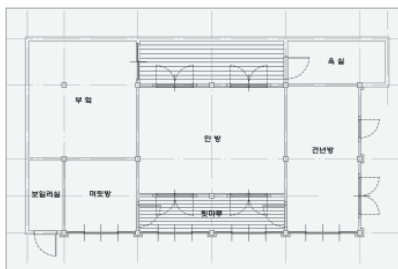
손회부 집(교동 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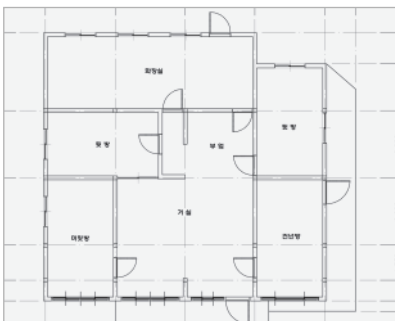
박태식 집(교동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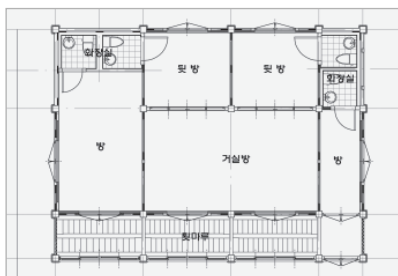
박시도 집(교동 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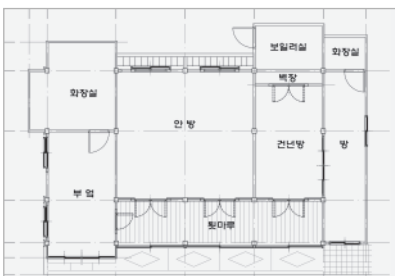
박승연 집(교동 124-1)



김기호 집(교동 118-3)



풍남한(풍남동 3가 46-1, 3)



엄철 집(교동 129-1)



양철식 집(풍남동 3가 40-3)

〈그림 15〉 유형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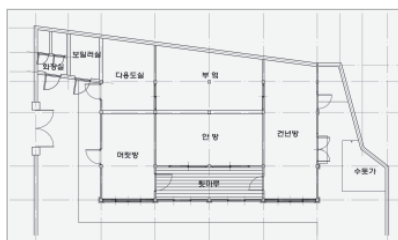
뒷마루가 있어 방과 담장까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교동다원은 뒷마루 뒤에 안방을 크게 두고 좌측에 머릿방과 부엌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건넌방과 방이 있고 그 사이에는 아궁이가 있다. 이 집은 건넌방의 출입문을 안방의 뒷마루와 차단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어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방을 구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집은 시대적으로 1970년대에 건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시로 진출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하숙이나 직장인들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평면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서는 지붕을 담장까지 연장하여 벽체와 담장 사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벽체와 담장 사이의 공간을 비를 피하도록 하여 임차인이나 주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ㄴ. 유형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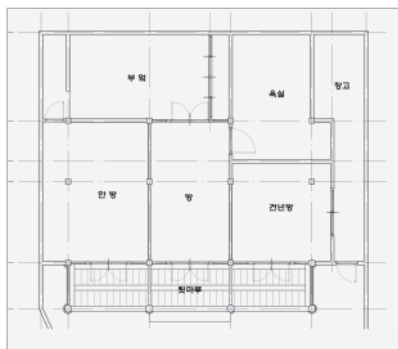
유형 3-2는 안채와 담장까지의 사이 공간을 지붕을 덧달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형으로 12채가 있다. 유형 3-4의 경우 방과 담장까지의 사이 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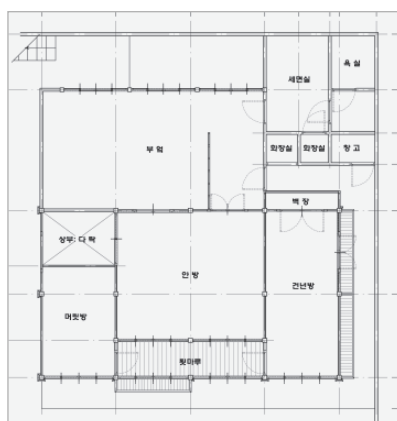
김영희 집(교동 98-4)



김연태 집(풍남동 3가 36-1)



최병재 집(풍남동 3가 54-13)



서춘식 집(교동 132-10)

〈그림 16〉 유형 3-2

활용하고 있지만 지붕은 없는 형인 반면 이 유형은 지붕을 덮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안채의 공간 구성은 전면에 뒷마루가 있고 뒤에는 안방과 건넌방이 있으며 좌측에는 부엌과 수납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측의 방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인이 방과 담장 사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한편으로 안채의 벽체와 담장까지 지붕을 연장하여 중간 공간이나 내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유형 역시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벽체에서 담장까지 지붕을 연장하되 담장으로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부엌이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를 위해서 방 앞에는 수도가 설치되기도 하고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김영희 집). 두 번째 유형은 벽체와 담장 사이의 공간을 칸을 막아 적극적으로 구획하고 이를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대인을 위한 전실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다(김연태 집). 세 번째 유형은 임대인의 방 앞을 적극적으로 칸막이하여 구획된 공간으로 하고 그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형이다.

창고는 물건을 수납하기도 하고 임대인의 전정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취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최병재 집). 네 번째 유형은 임대인이 방 앞 공간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뒤에 화장실, 창고, 욕실 등을 두어 기능을 지원하면서 이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형이다(서춘식 집).

ㄷ. 유형 3-3

유형 3-3은 임대형 방과 부엌이 조합된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는 형으로 10채가 있다. 그리고 임대하는 방의 수가 2개까지 증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 역시 한옥마을의 기본적인 평면형태인 전면의 뒷마루를 중심으로 뒤에 안방이 있고 좌측에 부엌과 부속 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임대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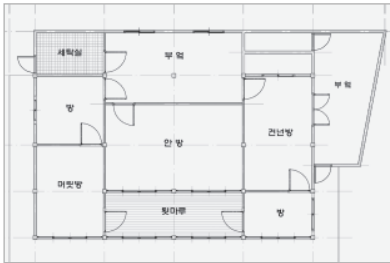
이 유형은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는데 하나는 임대하는 방과 부엌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임대유형으로 방과 부엌을 기본으로 욕실과 화장실, 창고 등이 위치한 형이다(김윤수 집). 두 번째 유형은 임대하는 방의 수가 2개로 나타나는 형이나 2개의 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 방을 통하여 다른 방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독립된 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이희용 집). 또 다른 유형은 임대하는 방의 구조가 부엌을 중심으로 2개의 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방을 거치지 않고 부엌이나 외부 공간을 통하여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유형이다(이원형 집).



김윤수 집(교동 25-2)



이희용 집(풍남동 3가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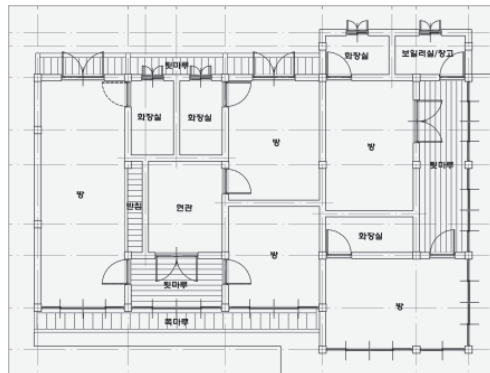


이원형 집(교동 94-3)

〈그림 17〉 유형 3-3

ㄴ. 유형 3-4

유형 3-4는 다가구임대형으로 한 집에 2가구 이상을 임대하는 유형인데 교동에 2채 있다. 원불교 수련원은 전면 중앙의 뒷마루를 중심으로 뒤에 안방이 있고 좌측에는 부엌이 있으며 우측에는 방이 있다. 그리고 우측의 방과 구획을 지어 뒷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화장실로 구성된 2가구의 임대형 방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 유형은 한 집에 두 가구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평면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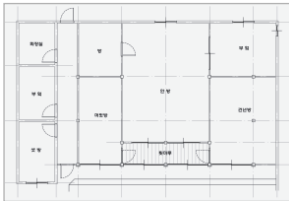


원불교 수련원(교동 90)

〈그림 18〉 유형 3-4

㉑. 유형 3-5

유형 3-5는 별채를 임대하는 형으로 안채는 주인이 살고 별채는 다른 가구에 임대해 주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교동에 2채가 있다. 이현진 집은 안채에 주인이 살고 별채를 임대하고 있다. 안채는 한옥마을의 기본형인 전면 중앙의 뒷마루를 중심으로 뒤에 안방이 있고 우측에 방과 부엌이 있고 좌측에 방이 있는 유형이다. 그리고 별채는 방과 부엌, 화장실로 구성되어 임대를 주고 있는 유형이다.



이현진 집(교동 40-2)



삼원당 한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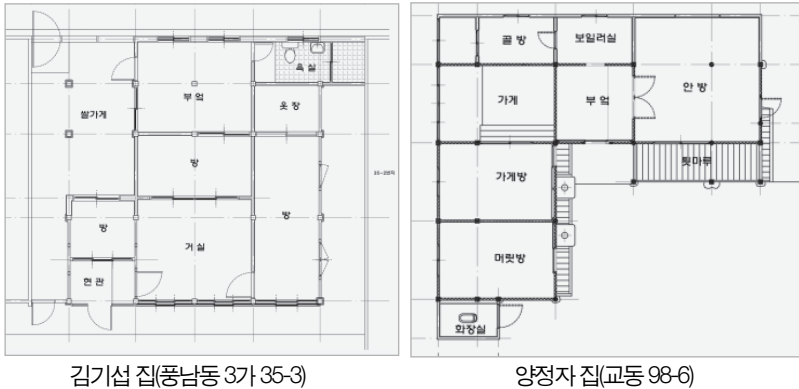
〈그림 19〉 유형 3-5

④ 유형 4(주상복합형)

유형 4는 주거건축의 일부를 변용하여 상업적 기능을 혼합한 유형으로 교동과 풍남동에 각각 1채가 있다. 김기섭 집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주거 건축 양식으로 구성된 평면의 좌측에 쌀가게를 둔 유형이다. 본래 이 집은 전면 중앙의 거실을 중심으로 뒤에 방이 있고 좌측에 부엌과 방이 있으며 우측에 방이 있던 유형이었다. 그런데 이를 변용하여 부엌을 쌀가게로 바꾸고 안방의 뒤편 공간을 담장까지 확장하여 방을 들이고 부엌을 설치하였다.

양정자 집은 ㄱ자 형의 안채 평면에서 한쪽 날개채의 방 하나를 가게로 변용하고 옆방을 가게 방으로 변용한 유형이다. 본래 이 집은 ㄱ자 형의 꺾여진 부분에 마루가 있고 좌측에 방과 부엌이 있고 우측에 안방이 위치한

형이었다. 그러던 것을 좌측 부엌을 중앙 전면 마루로 옮기고 뒤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였으며 좌측 부엌과 방을 가게와 가게 방으로 변용한 유형이다. 이렇게 변용된 시기는 1970년대로 그 시대에 이 지역의 상업시설의 필요성으로 변용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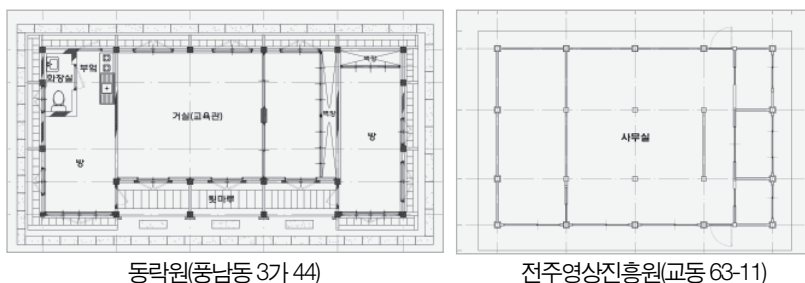


〈그림 20〉 유형 4

⑤ 유형 5(기타형)

유형 5는 주거건축이 타용도로 전용된 유형으로 교동과 풍남동에 각각 1채가 있다. 동락원은 전면의 뒷마루를 중심으로 중앙과 좌우에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는 좌측 방은 부엌이었으며 우측은 그대로 방이었던 유형이다. 그러던 것이 건축주의 의도로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변용되어 사용되다가 최근에 학생들의 실습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좌측의 부엌은 방과 화장실로 변용되고 중앙의 방은 교육관으로 바뀌었으며 우측은 그대로 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주영상진흥원 건물은 본래 주거건축으로 중앙 전면에 뒷마루가 있고 뒤에 방이 있으며 좌측은 부엌과 머릿방이고 우측은 방이었다. 그러던 것이 사무실용도로 변용되면서 중앙의 마루와 방이 사무실로 바뀌고 좌우 방은 사무실의 보조공간으로 변용되었다. 이들 두 채의 집은 본래의 주거



〈그림 21〉 유형 5

기능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변용된 경우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형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아 있다.

(2) 분석 및 종합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한옥을 대상으로 한 유형화에서 평면의 유형은 안채를 중심으로 공간의 구성, 공간의 용도, 공간의 변용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유형에서 유형 1은 건축된 이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거단위는 뒷마루에 방이 1실 있는 유형으로 一자 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이 평면은 一자 형을 유지하면서 뒷마루를 기준으로 뒤에 안방이 있고 좌측에 부엌과 머릿방이 우측에 건넌방이 위치하는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담장까지 확장되면서 겹집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一자 형 평면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평면에 있어서 최씨 종대처럼 뒷마루와 방이 있는 최소한의 주거형태도 있지만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평면의 원형은 뒷마루가 있고 뒤에 안방이 있으며 좌측에 부엌과 머릿방이 있고 우측에 건넌방이 있는 유형이 한옥마을의 원형(prototype)으로 판단된다.

유형 2는 ㄱ자 형의 평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일본식 주거건축의 영향으로 일본식 척도의 평면양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근대기의 영

향으로 복도를 통하여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는 기법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한옥마을이 일제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1960~1970년대에 한옥마을의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한옥마을 주거건축에는 일본 사람들의 숙소가 있었기에 이들 양식이 남아 있기도 하다.

유형 3은 방 1실이나 방과 부엌을 혼합하거나 한 세대를 위하여 임대를 하기 위한 유형이다. 유형 3은 세부적으로 방 1실을 임대하거나 방과 부엌을 한 단위로 임대하거나 한 세대를 위하여 임대하는 유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안채 외에 별채를 독립적으로 임대하는 유형도 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2곳 있었으며 대학교 1개교가 있었는데 이들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변용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 4는 방을 확장하거나 공간을 변용하여 주상복합기능을 부여하는 형태로 안채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별채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유형 5와 유형 6은 후에 공간을 변용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형으로 하거나 업무시설·교육관으로 변용된 형태이다.

이들 유형은 한옥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당시의 사회생활상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근대식과 절충된 유형이나 임대를 위한 유형 등으로 변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전주한옥마을의 주거건축은 완전한 전통건축이라기 보다는 근대기의 생활상을 담은 주거건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유형별 특성

유 형		특 성	수
유형 1(원형)		· 건축된 이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	10
유형 2(근대절충형)		· 원형에 일본식이나 근대풍을 절충한 양식	4
유형 3 (임대)	3-1 (방 임대형)	· 원형을 유지하면서 방을 확장한 유형 · 방이나 화장실, 세면실, 욕실 등을 임대	11
	3-2 (담장 확장형)	· 원형을 유지하면서 방을 담장까지 확장하여 임대 · 담장과 사이 공간 활용 · 간이형의 부엌 활용	12
	3-3 (방+부엌임대형)	· 방의 확장이나 칸막이를 구획 · 방과 더불어 부엌 확장 · 공간의 변용이나 확장을 통하여 부엌 설치 · 셋방으로 활용	10
	3-4 (세대 임대형)	· 안채의 방을 확장하거나 변용하여 다가구 임대양식으로 변용 · 방이나 살림집 형태로 임대	2
	3-5 (별채 임대형)	· 안채는 주인이 사용 · 별채를 임대	2
유형 4 (주상복합형)		· 방을 확장하거나 공간을 변용하여 주상복합기능 부여 · 안채의 일부를 활용	2
유형 5 (기타형)		· 주거와 업무기능 혼합 · 공간을 변용	2
계			55

4. 결론

한옥마을은 고려 후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옥이 도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여기에는 박제된 전통 마을이 아닌 실제로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숨쉬는 공간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지역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과 주민들은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주거를 관광산업화, 문화산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전통문화인 판소리, 한지, 한식 등의 콘텐츠를 가미하여 hardware와 software를 종합한 전통문화산업을 상품화하고 세계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옥마을에는 경기전, 조경묘, 전동성당, 학인당 등의 건축문화재와 더불어 한옥마을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셈이다. 여기에는 약 700여 채의 한옥이 위치하고 있다. 한옥마을의 최대 강점은 박제된 전통 마을이 아닌 실제로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숨쉬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즉, 도심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주거단지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생활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한옥마을은 전체가 한옥의 변천사, 특히 근대기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한옥건축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하고 소중한 문화재의 잠재력과 가능성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원과 재현 과정에서 한옥마을 건축의 Concept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복원과 재현의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르는 현대화 및 주거의 변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한편으로 행정 부서의 지원, 재정지원, 전문가 집단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주민참여 등이 종합되어 시스템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 차후의 문화산업에 대한 대비와 전통문화산업의 상품화, 세계화,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삼국사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조선왕조실록』
- 『호남읍지』
- 『완산지』
- 김민철, 『전주한옥마을과 생활문화』, 글누림, 2007.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학연문화사, 1994.
- 전라문화연구소, 『전주문화 정체성』, 신아출판사, 2004.
- 전라북도, 『전라북도지』, 1989.
-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의 역사와 문화』, 신아출판사, 2000.
- 전주문화원, 『우리 전주 문화유산』, 신아출판사, 1998.
- _____, 『전주향토지』, 1990.
-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2001.
- 전주역사박물관,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4.
- _____, 『전주학서설』, 2006.
- 전주시, 『전주시사』, 1997.
- 조선총독부, 『전주부사』, 1943.
- 한옥마을사람들, 『전주한옥마을자서전』, 2004.
- 전주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7.
- _____,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보안』, 2006.
- _____,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오목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2005.
- 남해경, 「건축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설계방법론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9.
- _____, 「한옥마을 주거건축의 평면유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0.
- _____, 「한옥마을 DB 구축에 관한 용역」, 전주시, 2009.
- 유응교, 「전주도시구조의 변화」, 『도시 및 환경연구소 논문집』, 1988.

전주한지의 역사성

이 동 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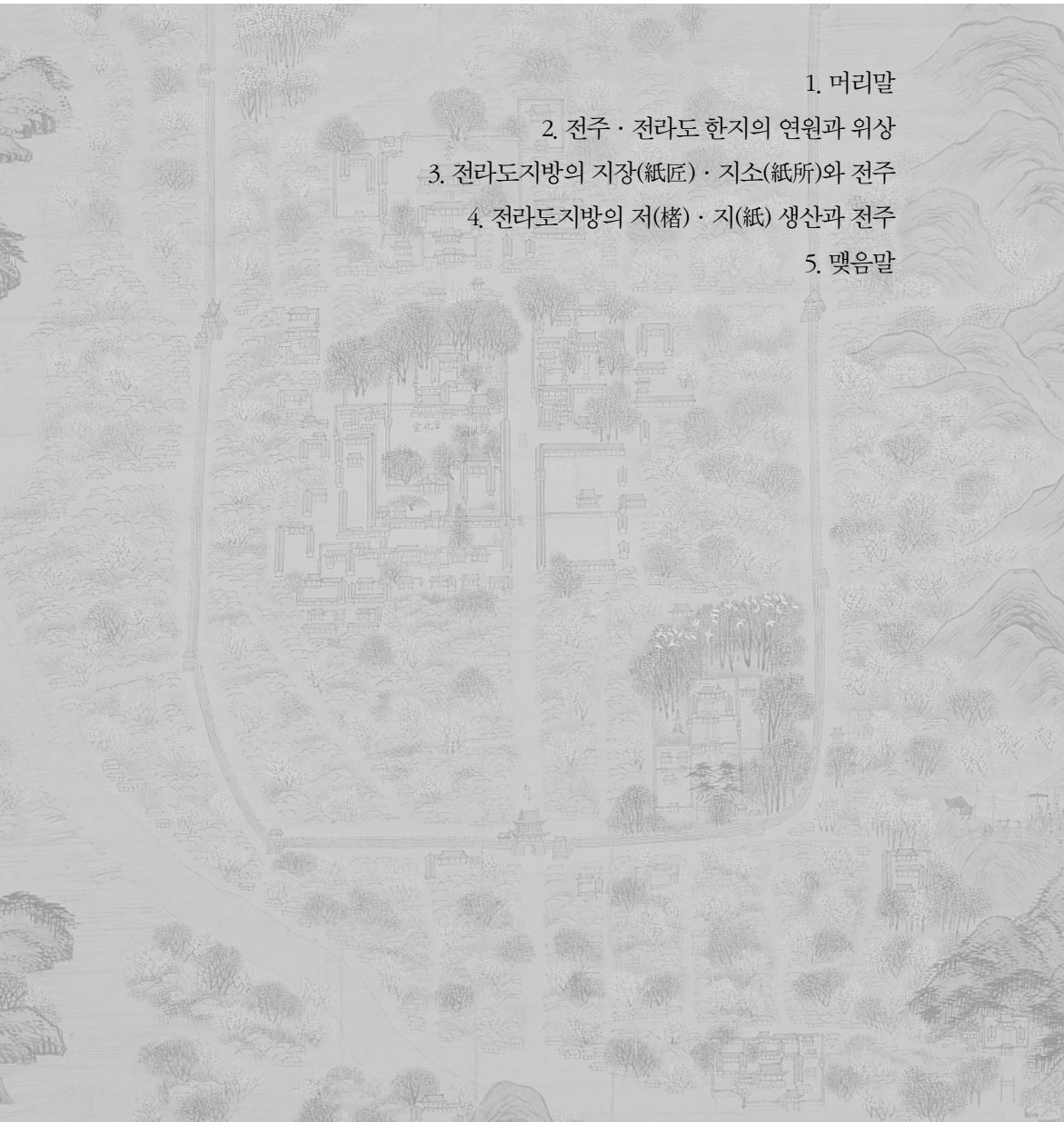
1. 머리말

2. 전주 · 전라도 한지의 연원과 위상

3. 전라도지방의 지장(紙匠) · 지소(紙所)와 전주

4. 전라도지방의 저(楮) · 지(紙) 생산과 전주

5. 맺음말



1. 머리말

근대화와 함께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종이 한지는 서양 종이 양지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근래 닥나무로 만든 한지의 내구성과 보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지공예를 비롯한 한지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지로 만들었던 전통공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한지를 현대와 접목시킨 현대공예도 한지공예의 한 장르로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지는 산업기술의 현장에서도 신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지는 21세기에 들어와 문화와 산업을 넘나들면서 그 가치를 무한히 높여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인 한스타일 6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전통 종이 한지의 고장이 바로 전주이다. 전주는 한지 생산의 중심이었다. 비록 많은 한지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제 몇몇 업체만이 남아 있지만 한지와 관련해 가장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주부채의 정신을 이은 공예인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산학연이 연계해 한지산업의 활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전주한지축제, 한지공예대전, 한지패션쇼 등을 열어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한지산업을 주도해 갈 한지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었으며, 한스타일진흥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주한지산업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지의 산업화에는 관심이 크지만, 그 토대가 되는 전주한지의 역사성에 대한 조사연구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전주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가 한지 생산을 대표하는 한지의 본가라고 막연하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주한지의 역사성 정립은 곧 전주한지의 상품성을 드높일 수 있는 길이다.

2. 전주·전라도 한지의 연원과 위상

우리나라에 종이와 제지기술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한다. 즉 중국으로부터 육로를 통해 2~4세기에 고구려에 가장 먼저 전래되었고, 백제는 해상을 통해 4~5세기에 중국의 강남에서 전래되었으며, 신라는 백제로부터 4~5세기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그렇다면 전주·전라도에도 4~5세기쯤에 종이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제지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중국인들이 제일의 종으로 선호하는 고려지는 이때 형성된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닥나무 재배와 한지생산은 국가산업으로 발전되었다.

이때 전주, 전북 지역에서도 상당량의 닥나무를 재배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시대 전라도가 닥나무 주요 산지였음으로 고려시대에도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에 정가신이 전주에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종이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기사는²⁾ 곧 고려시대에 이미 전주가 한지의 주요 산지였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전주한지의 전통은 그대로 조선시대로 이어져 전주한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 초의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전라도

1) 정성영, 『종이의 전래시기와 고대 제지기술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2) 『고려사』 권105, 열전 18, 정가신조.

의 특산물로 각종 종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그 종류를 열거하면, 표전지(表箋紙) · 자문지(咨文紙) · 부분단자지(副本單子紙) · 주본지(奏本紙) · 피봉지(皮封紙) · 서계지(書契紙) · 축문지(祝文紙) · 표지(表紙) · 도련지(■鍊紙) · 중폭지(中幅紙) · 상표지(常表紙) · 갑의지(甲衣紙) · 안지(眼紙) · 세화지(歲■紙) · 백주지(白奏紙) · 화약지(火藥紙) · 장지(狀紙) · 상주지(常奏紙) · 유둔지(油菴紙) · 유둔(油菴) 등이다.

그런가 하면 『세종실록지리지』 전주부 조에 전주 토산물로 표전(表箋) · 주본(奏本) · 부분(副本) · 자문(咨文) · 서계(書契) 등의 종이 및 표지(表紙) · 도련지(■鍊紙) · 백주지(白奏紙) · 유둔(油菴) · 세화(歲■) · 안지(眼紙) 등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도(道) 안에 오직 전주부와 남원(南原) 종이의 품질이 좋다고 부기되어 있다.

전주와 남원의 종이가 최고였음은 『세종실록』의 다음 기사에도 나타나 있다.

윤수가 아뢰기를, “처음 조지소의 신설을 당하여 모두 이르기를, ‘종이의 품질이 반드시 남원이나 전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고 하였는데, 지금 조지소의 종이 품질이 대단히 좋아서 도리어 남원 · 전주의 종이를 쓰지 않고 있사오니, 한 관사를 신설하여 오로지 직조만을 다스리게 한다면 또한 반드시 좋게 될 것입니다(『세종실록』 권49, 12년 9월 기유).

이는 곧 세종대 조지소가 설치될 당시 조선 최고의 종이가 전주와 남원에서 생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종이가 전주에서 생산되었음은 세종 7년 명나라 사신 윤봉이 “종이를 제조하는 방문(方文)과 사기를 바치라는 성지가 있었소”라고 한 것에 대해, 세종이 전라도 감사에게 “전주의 지장에게 역마를 주어 올려보내라”고 한 것에서도³⁾ 읽어볼 수 있다. 종이제조 방법을 알려달라는 중국 사신의 요구에 대해 전주의 지장을 불러들인 것은 전주종이가 최고

품질의 종이요, 제지 장인이 최고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중종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전주부의 토산물로 종이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상품(上品)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종이가 전주의 특산물이었으며 그것도 그냥 보통 종이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이다. 전주한지는 이후 조선 말까지 변함없이 특산물로 자리하였다. 즉 15세기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단종 2), 편찬),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중종 25), 편찬), 18세기 말에 간행된 『호남읍지』, 19세기 후반의 『호남읍지』에 한결같이 전주의 특산물로 한지가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또한 지속되었다. 조선 후기 임란 후 광해군 때 호조가 방납의 폐단 중 공상지에 대해 보고하고 방책을 건의하면서 “전주·남원과 같은 지역에서도 본색(本色)으로 상납하려고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⁴⁾ 방납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주와 남원의 종이마저도 현지의 종이가 올라오지 않고 방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란 후에도 전주와 남원의 종이가 최고의 품질로 대우받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8세기 후반 정조대에도 그러했다. 정조 때 서명응이 펴낸 『고사신서(攷事新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송나라 사람이 여러 나라 종이의 품질을 말함에 반드시 고려지를 최상의 것으로 하였다. 이는 당시 조공품으로 바쳤던 종이를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지금 조지서(造紙署)의 자문지(咨文紙), 평강(平康)의 설화지(雪花紙), 전주와 남원의 선자지(扇子紙)·간장지(簡壯紙)·주유지(注油紙)·죽청지(竹淸紙) 등이 가장 뛰어나다(徐命膺, 『攷事新書』12集 卷10 紙品 高下條).

3)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을묘.

4) 『광해군 일기』 권80, 6년 7월 임자.

즉 조지서의 자문지, 평강의 설화지를 비롯해, 전주와 남원의 선자지 · 간장지 · 주유지 · 유둔지 · 죽청지 등이 가장 빼어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조선 후기에는 전주와 남원의 선자지 · 간장지 · 주유지 · 유둔지 · 죽청지 등이 유명하였음을 알 수도 있다.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 즉 조지서의 자문지, 강원도 평강의 설화지, 전주 남원의 선자지 · 간장지 · 주유지 · 유둔 등이 조선의 특산 종이이며, 이외에 태지 · 죽청지도 빼어난 명품이라고 하였다.⁵⁾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 한지가 뛰어남은 조선 말에도 마찬가지이다. 19세기 후반에 쓰여진 『임하필기』에

동국의 저산은 해내가 으뜸이고 그중 호남이 제일이다. 완산은 그 품질이 다음이지 않으나 부드럽고, 순창은 정화하나 약하고, 남평은 단단하나 어둡고, 남원은 백설과 같고 부드러움이 기름덩어리와 같다. 천하제일의 기품으로 그 이유는 수질 때문이다. 영남은 거칠고 무거우며 빛깔이 고르지 않다(『林下筆記』 12, 楮山條).

라고 되어 있다. 호남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위 책에서 수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좋은 한지를 위해서는 물이 맑고 깨끗하고 알맞게 차가워야 되었다.⁶⁾

전라도 종이가 빼어남은 영남 안동의 풍습에서도 찾아지는데, 안동에서는 머느리를 친정에 보낼 때 담배잎 한두 근을 전주장지(全州障紙)에다 깔끔하게 싸서 보내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⁷⁾

5) 『임원경제지』 怡雲志, 文房雅製下, 紙, 東國紙品條.

6) 하종목, 「조선 후기의 사찰제지업과 그 생산품의 유통과정」, 『역사교육논집』 10, 1987, 48~49쪽.

7) 윤학준, 『양반동네 소동기』, 효리, 2000, 185 · 479쪽.

3. 전라도의 지장(紙匠) · 지소(紙所)와 전주

조선은 관영 수공업으로 관청에서 운영하여 필요한 수공업품을 직접 제조 조달하였는데, 이들 장인을 공장(工匠)이라 하였으며 지방의 장인은 외공장(外工匠)이라 하였다. 이들 공장 중 종이를 만드는 장인을 지장이라 하였으며, 지방의 종이 만드는 일을 관장하는 곳을 지소라고 하였다. 지장은 한양의 조지서를 비롯하여 지방의 각 지소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먼저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시대의 외공장의 종류 및 지방의 분포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 초 외공장의 종류 및 도별 분포

*자료: 『經國大典』 권 6, 工典 外工匠

구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강원	평안	함경	계
갑장(甲匠)	3	6	10	11	3	3	9	5	20
야장(冶匠)	40	71	68	121	34	36	32	36	438
궁인(弓人)	18	31	40	59	19	17	28	26	238
시인(矢人)	37	54	61	21	27	30	27	22	329
목장(木匠)	37	56	59	69	26	28	26	22	323
피장(皮匠)	5	56	61	67	28	31	28	21	297
유장(鑪匠)	3	4	6	7	2	2	8	4	36
칠장(漆匠)	3	56	61	73	26	28	27	20	294
사기장(沙器匠)	7	23	39	30					99
궁현장(弓弦匠)		2	2	3	2	2	26	22	59
지장(紙匠)		131	236	260	38	33			698
석장(席匠)		58	58	271			1		387
조각장(彫刻匠)		1						1	2
마조장(磨造匠)		2	5	4	7	6			24
묵장(墨匠)		6	6	8					20
소성장(梳省匠)		1	1	3		1	1		7

구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강원	평안	함경	계
유구장(油具匠)		55	55	58	1	1			170
황옹장(黃瓮匠)		1							1
소장(梳匠)			1	2		1			4
선자장(扇子場)			2	6					8
상자장(箱子匠)			4	6		2			12
석장(石匠)					1	1		1	3
연철장(鉛鐵匠)					1	2			3
각장(刻匠)						1	1		2
수철장(水鐵匠)					3				3
단장(簞匠)					3				3
종모아장(繫帽兒匠)							1		1
총계	153	614	775	1,129	221	225	214	180	3,511

* 윤원호, 「조선시대 전북지역의 경제」, 『전라문화논총』 2, 1988에서 발췌

〈표 1〉에서 보듯이 조선 초의 8도 전체의 외공장 수는 3,511명이다. 반면 서울 경야문의 공장은 129종에 2,795명으로 수공업이 서울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외공장을 도별로 나누어 보면 경상도가 그 큰 규모답게 공장도 1,129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전라도로 775명이며, 전체의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도는 전라도보다 적어 총 614명이다.

전체 외공장 중 지장의 분포를 보면 총 698명으로 20%에 이른다. 총 27개 종목 중의 하나인 지장은 단일품목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도별로 보면 경상도가 260명(37%)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바짝 쫓아 전라도가 236명(34%)에 이르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치면 496명으로 전체의 71%로 지장들이 영남과 호남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청도 131명을 합치면 627명으로 전체의 90%에 이른다. 지장들이 삼남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곧 종이 생산이 삼남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주산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상도는 지장보다 석장(席匠)이 더 많다. 반면에 전라도는 지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야장(冶匠)으로 68명에 불과하다. 지장의 반절에도 못 미치는 수다. 이것은 그만큼 제지업이 전라도의 중심 수공업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1개 군현당 평균 지장 수를 계산해 보면 전라도가 4.39명으로 가장 많고 경상도가 그 다음으로 3.96명이다. 전라도의 지장 집중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다. 따라서 군현 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지장을 더 많이 보유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조선 초 외공장의 지역별 지장 현황

*자료: 『경국대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전주	23	남평	3	경주	10	군위	3	충주	5	대흥	2
남원	23	옥과	3	상주	1	지례	3	청주	6	석성	2
나주	10	곡성	3	성주	6	고령	3	공주	6	니산	2
광주	8	운봉	3	안동	1	안음	3	홍주	6	연산	2
장흥	7	장수	4	진주	8	인동	3	청풍	2	회덕	2
익산	4	창평	3	합천	5	계령	3	단양	2	진검	2
김제	3	동복	3	금산	4	문경	3	영동	2	회인	2
과양	3	진도	4	영해	4	청하	3	괴산	2	정산	2
무안	3	해남	4	영천	4	진보	3	천안	3	진천	2
옥구	3	홍양	3	선산	6	신령	3	서천	3	보령	2
함평	3	회순	3	청송	3	용궁	3	보은	2	아산	2
금산	5	능성	3	김해	6	함창	3	옥천	2	예산	2
진산	3	강진	3	밀양	17	예안	3	임천	3	황간	2
여산	3	고부	5	거창	3	의흥	3	한산	3	비인	2
인피	3	부안	3	울산	6	영산	3	서산	3	평택	2
영광	4	금구	3	웅천	3	진해	3	오천	3	결성	2
영암	4	만경	3	영일	4	산음	3	태안	3	청산	2
무장	4	진안	3	홍해	4	단성	3	온양	2	영춘	2
순천	7	무주	3	풍기	5	경산	3	남포	2	목천	2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담양	5	용안	3	한양	5	칠원	4	홍산	2	문의	2
낙안	3	함열	3	청도	8	현풍	3	덕산	2	청양	2
순창	5	고산	3	동래	5	곤양	4	직산	2	당진	2
보성	3	태인	3	의성	4	기장	3	은율	2	음성	2
용담	3	구례	3	언양	3	하동	3	부여	2	전의	2
임실	3	장성	3	장기	1	영덕	3	청안	2	연기	2
정읍	3	진원	3	사천	1	삼가	2	연풍	2	제천	2
홍덕	3			풍천	4	창원	5				
				영주	3	봉화	3				
				초계	3	함안	6				
				남해	3	양산	4				
				거제	3	대구	4				
				고성	4	비안	3				
				의령	3	하양	3				
				창령	3						

*김삼기, 『조선 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16쪽 발췌

〈표 2〉에서 보듯이 군현별로 구분해 볼 때 단일 군현으로 가장 많은 지장을 두고 있는 곳이 전라도 전주와 남원으로 각각 23명의 지장이 있다. 경상도는 가장 많은 지장을 둔 곳이 밀양으로 17명이다. 전주 남원에 못 미치는 수이다. 충청도는 가장 많은 지장이 배치된 곳이 청주 공주 홍주로 각각 6명이다. 강원도는 2명, 황해도 4명이 가장 많은 군현이다.

전라도의 현황을 좀 더 보면 전주 남원 다음으로 나주가 10명이며, 광주 8명, 장흥과 순천이 각각 7명 순이다.

전체적으로 각 지장 수별 군현 수를 표로 정리해 보면 23명이 2개 현, 17명이 1개 현, 10명이 2개 현, 8명이 3개 현, 7명이 2개 현, 6명이 8개 현, 5명이 10개 현, 4명이 21개 현, 3명이 79개 현, 2명이 59개 현, 1명이 39개 현이다. 지장이 3명 있는 곳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이 있는 곳, 1명이

있는 곳 순이다.

각 도별 조선 초 『경국대전』에 등재된 지장수와 조선 말 『대전회통』에 등재된 지장 수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편 지장들이 배치된 지소는 국초부터 있어 왔으며 여러 군현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모든 군현에 지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소의 위치는 탁 나무와 땔감을 확보하기 쉽고, 맑은 물과 넓은 바위를 구비한 지역에서 가능하였다.⁸⁾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경납지물(京納紙物)이 대동미에 흡수되어 폐지되자 지방관청에서는 지소(紙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혁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장은 흩어져버렸고, 지전(紙田)은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그러나 지물 품귀현상이 일고, 청나라의 지물 요구가 과다해 지자 다시 삼남지방에 종이 납품을 분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소가 다시 복설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부족한 지물을 사찰(사찰지소)이나 주민(민영지소)들에게 부과하였으나, 폐단이 야기되자 주로 18세기 초반부터 지방에 다시 지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로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지소들이 복설되었다.⁹⁾

전라감영에서는 진상과 관용지물을 납부해 오던 송광사가 폐잔하게 되자 기묘년 지소를 다시 설치하였다.¹⁰⁾ 그리하여 전라감영 안에 인출방(印出房)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지소(紙所)를 두었으며, 전주부성 밖으로는 전주천 너머 도토리골과 남원 가는 길 남관 쪽에 외지소가 있었다.¹¹⁾ 전라

8) 김석희, 「이조 후기의 수공업 연구(1)」, 『문교부연구보고서(인문과학계)』 3, 1971, 230쪽; 하종복, 앞의 논문, 48~49쪽; 김덕진, 「조선시대 地方官營紙所의 운영과 그 변천-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12, 전남대, 1993, 459쪽.

9) 김덕진, 앞의 논문, 462~466쪽.

10) 『호남영사례』, 공청 : 한국지방사자료총서 8, 사례편 ① 188쪽.

11) 「전주부성 지도」(전북대박물관 소장본, 1840년경; 국립전주박물관 소장본, 1870년경). 이에 대해서는 이동희, 「고지도로 본 조선 후기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전북사학』 26,

도 읍지와 읍사례 등을 놓고 볼 때 전주 남원, 순천, 광양, 광주, 나주, 담양, 순창 등지에도 지소가 있었으며, 이들은 대개 19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다.¹²⁾ 경상도 대구는 1782년에 지소가 복설되었다.¹³⁾

4. 전라도 지방의 저(楮)·지(紙) 생산과 전주

조선 초 태종 10년 사간원(司諫院)의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유백순(柳伯淳) 등이 종이의 쓰임새가 넓고 거기다가 저화까지 만들고 있어서 닥나무 수요가 큰데 대소민가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대소 민가(大小民家)에 닥나무밭(楮田)이 있는 자는 백에 하나둘도 없고, 간혹 있는 자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빼앗기어, 이익은 자기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베어버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한탄할 일입니다. 또 중국(中國)에서 본조(本朝)의 종이를 좋다고 하여 간혹 와서 구하기도 하니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원컨대, 각 도로 하여금 대호(大戶)는 2백 주(株)를, 중호(中戶)는 1백 주를, 소호(小戶)는 50주를, 내년 2월까지 한하여 일체 모두 심게 하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고찰하여, 만약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저화(楮貨)로 수속(收贖)하고 수령(守令)을 죄 주되, 일찍이 저전(楮田)이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들지 않게 하소서.

2003 및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2004 참조.

12) 김덕진, 앞의 논문, 465쪽.

13) 『영남읍지』, 대구부.

즉, 민가에 닥나무밭이 백에 하나둘도 없고, 있는 자도 베어버리니 각 도에 명해 대호는 2백 주, 중호는 1백 주, 소호는 50주를 심게하고 감사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령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이처럼 국초부터 적극적으로 닥나무 재배정책을 펼쳤다. 그리하여 『경국대전』 공전 재식조(栽植條)에 저전(楮田)을 기록한 장부를 호조 본도 본읍에 각각 1부씩 비치하고 재식배양(栽植培養)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법령은 조선후기 영조대 『속대전』 체제에 들어와, “進上靑竹田·官竹田·楮田 敬差官都事 加意察處 不勤護養者 監考刑推”라고¹⁴⁾ 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조선시대 닥나무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삼남지방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호남과 영남이 닥나무의 양대 생산지였다.¹⁵⁾

호남지방의 시대별 저(楮)·지(紙) 산지와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호남지방의 닥나무·종이 생산지 시기별 추이

지명 \ 서명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25)	攷事新書 -1771년(영조 47)	임원경제지 -19C 전반(순조대)
남 원	○	○	○(紙)
담 양	○	○	○(紙)
순 창	○	○	○(紙)
용 담	○	○	○
임 실	○	○	○
무 주	○	○	○
곡 성	○	○	○
옥 과	○	○	○
운 봉		○	○(紙)

14) 『속대전』 戶典, 諸田.

15) 『楮竹田事實』 鼎組 癸丑 12월 17일조, “卽以兩南言之 大抵楮與竹卽是土產 而民人輩作爲生業 前此數十年 則一涉兩南之境 所謂竹田楮田 到處耕播 逐年長養矣”

지명 \ 서명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25)	攷事新書 -1771년(영조 47)	임원경제지 -19C 전반(순조대)
진안	○	○	○
보성	○		○
광양	○	○	○
구례	○	○	○
동복	○	○	○
순천			○(紙)
낙안	○	○	○
전주	○(紙上品)	○(紙)	○(楮紙)
금구			○
부안			○(山楮)
고산			○(紙)
나주			○(紙)
광주			○(紙)
함평	○	○	○
무장			○(楮紙)
남평			○(紙)
해남	○	○	○
제주			○(山楮)
계	17	17	27

*하종묵, 「조선 후기의 사찰제지업과 그 생산품의 유통과정」, 50쪽 발췌

〈표 3〉에서 보듯이 전라도 56개 군현 중에서 16세기 전반 중종대에는 닥나무와 종이 생산지가 총 17군현이었으며, 18세기 영조대에도 17개 군현으로 군현 수에 변함이 없으나, 19세기 순조대에는 대폭 늘어 27개 곳이 종이생산과 관련하고 있다. 이처럼 영조대까지 산지 수의 증감이 없었으나 순조대에 부쩍 늘어나게 되는 것은 정조의 닥나무 재배 장려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17년 이후 적극적인 닥재배 장려책을 전개하였다.¹⁶⁾

〈표 3〉를 통해 조선 전기간에 걸쳐 닥나무 또는 종이 산지였던 곳을 헤아려 보면 총 16개 곳으로, 전주·남원을 비롯해 순창·용담·임실·무주·진안·담양·곡성·옥과·광양·구례·동복·낙안·함평·해남 등이다. 여기에 두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운봉과 보성을 합치면 모두 18개 곳이다. 이렇게 볼 때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종이 생산지는 이들 18개 군현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대표적인 산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닥나무를 조금이라도 재배하는 곳을 모두 총괄해 보면 산지범위는 훨씬 넓어져 전라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18세기 말 『저죽전사실(楮竹田事實)』에 이런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주도 3개 현을 제외한 전라도 53개 군현 가운데 48개 군현에 닥나무밭이 존재했다.¹⁷⁾

〈표 4〉 전라도 각 군현의 저전(楮田) 현황

*자료: 『楮竹田事實』

군현	닥나무밭 수	군현	닥나무밭 수	군현	닥나무밭 수
전주	1,035	진산	75	구례	168
나주	2	창평	17	곡성	60
광주	2	용담	49	운봉	93
능주	3	영암		임실	87
남원	81	임피		장수	7
장흥	4	망경		진안	9
순천	271	함열		동복	50
담양	12	금구	12	화순	13
장성	22	광양	21	홍양	4
무주	47	부안	11	해남	12

16) 이에 대해서는 하종목, 앞의 논문, 51~52쪽; 김삼기, 『조선 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98쪽(『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민속원, 2006).

17) 『저죽전사실(楮竹田事實)』에 의하면 경상도는 70개 지역 가운데 62개 지역에 저전이 분포했으며, 충청도는 54개 지역 가운데 44개 지역에서 닥나무를 재배하였다.

군현	닥나무발 수	군현	닥나무발 수	군현	닥나무발 수
여산	23	강진	2	용안	
보성	22	옥과	27	법성	
익산	3	고산	88	함평	15
고부	3	옥구	1	태인	9
영광	31	남평	11		
진도	1	홍덕	189		
낙안	4	정읍	10		
순창	11	고창	64		
금산	46	무장	299		
김제	1	무안	1	54곳	3,028

*김삼기, 『조선 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104쪽

군현별로 보면 전주가 1,035 곳으로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닥나무 발을 가지고 있다. 남원은 81개 곳이다. 물론 실제 규모는 어떠했는지, 이 숫자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1곳당 닥나무 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⁸⁾ 그렇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전주지방의 지장 수를 고려해 볼 때 전주가 최대의 산지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런 추세는 조선 말까지도 계속되었다.

한편 1830년대경에 편찬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종이가 거래된 시장을 살펴보면 호남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그와 엇비슷하게 영남이 17개 곳, 호서와 관동이 각각 3곳, 경기와 관서가 각각 2곳, 해서가 1 곳이다.¹⁹⁾

전라도 19개 종이 시장은 전주, 나주, 광주, 남원, 순천, 무주, 순창, 용담,

18) 경상도의 경우는 닥나무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풍기의 경우 닥나무발 213곳에 18,987그루를 심어 1곳당 2373.4주(柱)의 닥나무를 심는 반면, 함양은 213곳에 210그루로 1곳당 평균 1주가 채 되지 않는다.

19) 김삼기, 앞의 논문, 95쪽에 종이시장이 정리되어 있다. 순창이 빠져 있다.

광양, 남평, 흥덕, 고창, 무장, 구례, 곡성, 운봉, 장수, 화순, 고산 등이다. 이것들은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북부산지권(전주·고산·용담·무주), 중동부산지권(구례·곡성·순창·남원·운봉·장수), 남부연해권(순천·광양), 남서부평야권(광주·나주·남평·화순), 서부연해권(고창·흥덕·무장) 등이다.²⁰⁾

전주, 남원, 순창 등지에 지호(紙戶)가 촌락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며,²¹⁾ 고산현에는 20개 지역을 모은 도회소(都會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²²⁾

5. 맺음말

구한말 제정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세력 확장을 위해 조선의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등 제반 문물을 조사 정리한 정책자료집으로 1900년에 발행한 『한국지』(원명 KOPEII)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제지조(製紙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동방의 국민, 특히 중국, 일본과 한국의 가정생활에서 종이는 서구나 신세 계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한국의 경우에 언급하자면, 이 나라에서는 종이와 종이로 만든 제품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한국에서 종이가 다방면에 걸쳐 사용되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종이로써 화투장 부채 병풍 벽지 외등 깔개 등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산 양산

20) 하종목, 앞의 논문, 79-80쪽.

21)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출판사, 2003, 65쪽.

22) 김삼기, 앞의 논문, 21쪽.

비를 가리는 모자와 비옷 병복(兵服) 등심(燈心) 노끈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 이 종이로써 한국의 부녀자들은 치마 옷을 지으며 방수포(防水布)를 만들기도 한다.

...대단히 두터운 종이는 러시아의 판지(板紙)보다도 현저하게 질기며 이것으로 여행가방을 만든다. ... 종이를 여러 겹으로 접기만 하면 모포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사람을 집어던져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한국의 제지업은 많지 않은 발달된 제조업 중 하나로 한국사람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아직까지 그들의 이웃 나라인 중국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아니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인들을 어느 정도 능가하고 있다.

...제지업은 일반적으로 북부를 제외한 반도의 모든 지역에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양질의 종지와 종이의 절대다수는 전라도에서 제조되고 있다 (『국역 한국지(國譯 韓國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위 러시아의 조사보고서는 조선의 한지의 쓰임새가 어떠했고, 종이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였으며 전주·전라도의 한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즉 러시아인들은 현지조사를 통해 우리 종이 한지의 쓰임새가 무한하고, 제지기술이 중국을 능가하며, 그리고 가장 질 좋은 한지와 절대 다수의 한지가 전라도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보았듯이,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라도는 한지의 본산이었으며 그 중심지가 전주였다. 전주한지는 그런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는 최고의 종이였다.

전라도의 혼례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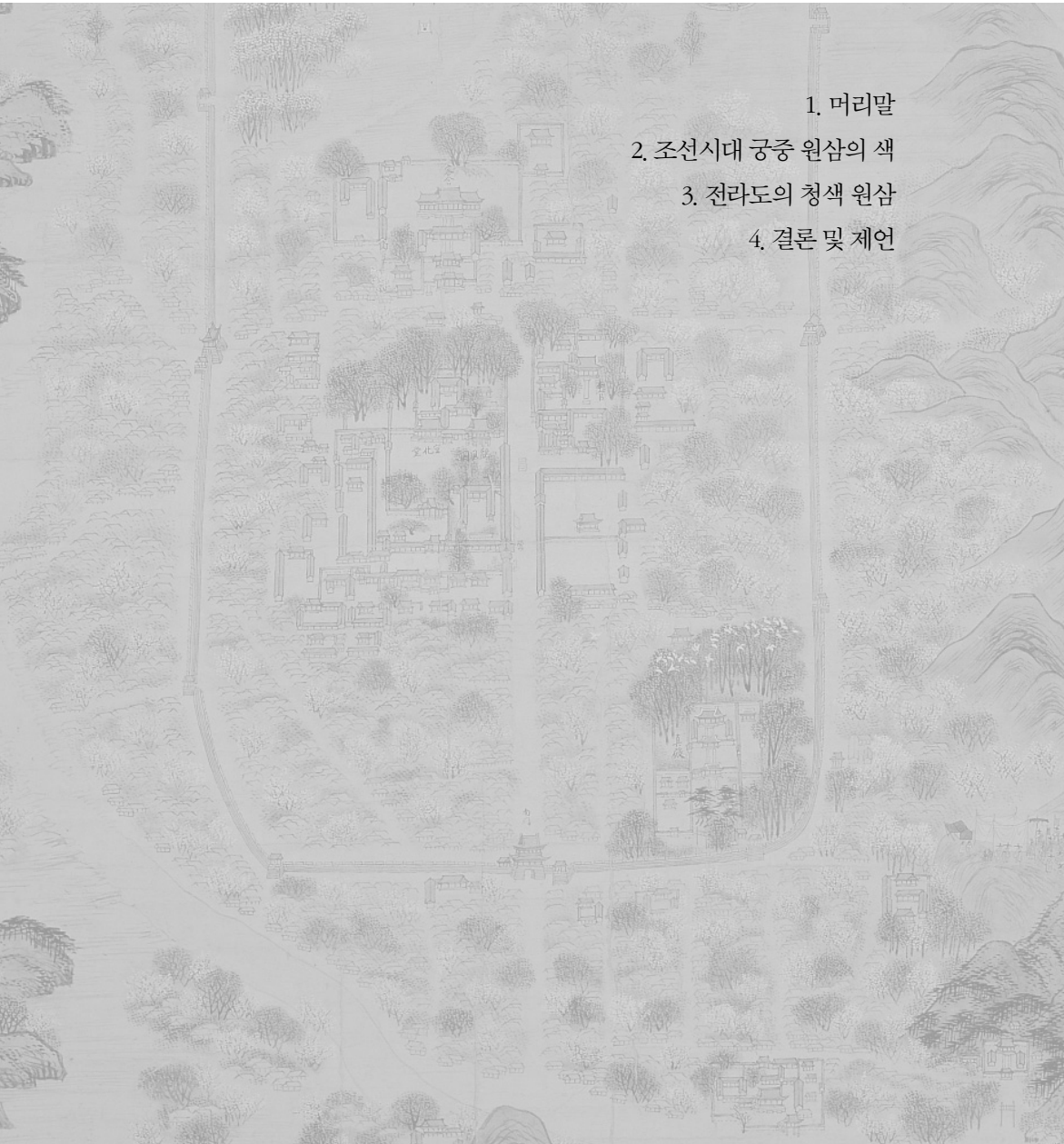
박현정(전주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조선시대 궁중 원삼의 색

3. 전라도의 청색 원삼

4. 결론 및 제언



1. 머리말

우리나라 혼례복은 한국이라는 지역 안에서 우리 민족이 착용해 온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 19세기 말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서양식 혼례 의식이 도입되었으나 20세기 전반기는 여전히 전통식 혼례 의식이 남아 있었으며 서양식 혼례 의식을 행하는 경우에도 본 예식을 마친 후 폐백이라는 전통적 의식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폐백을 위해 신랑과 신부는 본 예식을 마친 후 전통 혼례복으로 갈아입었으며 이러한 서양식과 전통식이 융합된 혼례 의식 절차와 그에 따른 복식 착용 방식은 현재까지도 오랜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에서는 신랑의 혼례복으로는 청색, 심청색 등 청색 계통의 관복이 착용되었고, 신부의 혼례복으로는 초록색과 청색의 원삼이 혼용되었다. 혼례복에 받침옷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으며 혼례시 신부는 청, 홍 두 벌의 치마를 겹쳐 입기도 하였다.¹⁾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전라도에서 착용된 신부의 전통 혼례복 원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 복식이자 민속 복식인 이 시기 혼례복 원삼은 조선시대 민서충 복식문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민속의상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서충 복식은 원시시대로부터 변치 않고 내려왔다는 기존의 설과는 달리 민서충 복식에 대한 상류층 패션의 현저한 영향이 있음과 민서충 복식에는 어떤 기본이 되는 원래의 형태와 패션이 있음이 밝혀졌다.²⁾ 원삼 역시 본래 조선시대 궁중 여자의

1) 전정희, 전주(전라도지역) 혼례복식, 『궁중복식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1, 1999, 32쪽.

례복의 하나였다.

원삼의 형태는 것이 곡선 것이며 앞길 양쪽 옷자락이 중심에서 마주 닿아 있으며 보통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길다. 소매에는 색동을 달고 소매 끝에는 흰색으로 한삼을 대었다. 과거 복식사 개설서에서 궁중 원삼의 색은 신분에 따라 황색, 홍색, 자적색, 초록색으로 분류되었는데³⁾ 이는 현존하는 궁중 유물 원삼의 색이 황색, 홍색, 자적색, 초록색인데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나는 원삼의 색은 대홍색, 홍색, 자적색, 초록색, 아청색, 흑색으로 청색 계통과 흑색 계통 색명이 추가된다. 문헌에 없지만 유물로 현존하는 황색 원삼은 대한제국 성립 후 황후가 착용한 원삼이며, 아청색 원삼은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후궁 숙의(淑儀)의 원삼으로 규정되어 있다. 흑색은 내인의 원삼 색으로 나타난다.

후궁이 착용한 원삼의 색으로 문헌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이유로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었던 청색 원삼이 전라도 지역 전통 혼례복 수집 조사에서 발견됨으로써 궁중복식제도에 나타난 원삼의 색 중 청색이 실존하였음과 20세기 전반기 전통 혼례복으로 초록색뿐만 아니라 청색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혼례복 원삼의 기본이 되는 조선시대 궁중 원삼의 신분별 색에 대해 고찰한 후 전라도의 청색 원삼에 대해 살펴본다.

2. 조선시대 궁중 원삼의 색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 원삼의 신분별 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궁

2) 황춘섭, 『민속의상』, 수학사, 1986, 16쪽.

3)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삼성인쇄주식회사, 1975, 453~484쪽.

중 여성의 신분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궁중 여성은 왕비, 세자빈, 내명부, 외명부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품계를 초월한 지위로서 내명부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왕비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두 번째로 역시 무품의 지위에 있으며 장차 왕비가 될 세자빈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내명부 제도는 태조, 세종, 세종 3대에 걸친 제도를 취사 선택하여 성종 때 『경국대전』에 제도화되었다. 『경국대전』 내명부 품계 중, 정1품 빈부터 종4품 숙원까지는 왕의 후궁에 해당한다.⁴⁾ 조선시대 후궁은 왕비나 세자빈과 마찬가지로 가례색을 설치하고 간택을 거쳐 선발된 정식 후궁과 왕의 눈에 띄어 승은하게 된 승은 후궁으로 구분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후궁 간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⁵⁾ 세 번째로는 후궁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한편 외명부에는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종친의 처, 왕과 왕세자의 딸, 문무관의 처 등이 해당된다. 왕의 본부인인 왕비에게서 출생한 아들은 대군, 후궁에게서 출생한 아들은 군으로 봉작되며 대군의 처는 부부인, 군의 처는 군부인으로 봉작된다.⁶⁾ 한편 종친인 대군과 군은 무품이지만 종친의 처는 품계가 있어 부부인은 정1품, 군부인은 정1품~종1품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 종친 처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경국대전』 외명부에 의하면 왕의 적녀는 공주, 서녀는 옹주에, 왕세자의 적녀는 군주, 서녀는 현주에 봉작된다. 공주와 옹주는 무품이었으나 군주는 정2품, 현주는 정3품이었다. 다섯 번째로 왕과 왕세자 딸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경국대전』 내명부 품계 중,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상궁층에 속하며, 이들 밑에는 또 품계 없이 잡역을 맡고 있는 무수리 등의 하층 궁인이 있다.⁷⁾ 이들은 궁중 행사 때마다 각

4) 이영숙, 「조선 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1982, 98쪽.

5) 신명호, 『조선시대 왕실문화 조선의 왕』, 가람기획, 2005, 185~201쪽.

6) 신명호, 『조선 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 88~93쪽.

7) 이영숙, 「조선 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1982, 98쪽.

각의 역할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지만 이 직함은 행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행사가 끝나면서 없어지며 통상적으로 모든 궁녀들의 명칭은 ‘내인’이라고 했다.⁸⁾ 마지막으로 이 내인들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외명부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던 문무관 처는 일상 생활공간이 궁중이 아니므로 본 고에서는 제외한다. 이상의 논의 순서는 『국혼정례』의 목차 순서와도 동일하며 여기에 내인만 추가한 것이다. 각각의 신분별 원삼의 색은 다음과 같다.⁹⁾

1) 왕비 원삼

조선시대 왕비의 원삼은 가례 즉 왕실의 혼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상장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00년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는 왕비 원삼의 최초 기록인 동시에 궁중 원삼의 최초 기록이다. 선조의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는 1569년 왕비로 책봉되고 가례를 올렸으며 1600년 6월 사망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선조33/06/27 무술).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원삼은 습의가 아닌 ‘외재궁소용’ 품목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의궤의 내용 순서를 살펴보면 장례절차에 따라 복, 목욕, 습 각각의 내용의대와 외비의대, 소렴의 내용의대와 외비의대, 대렴의 내용의대와 외비의대 다음에 외재궁소용이 나온다. 의인왕후의 외재궁 의대로 사용된 원삼은 홍색으로 대홍광사 원삼이었다.

〈표 1〉 조선 왕비 원삼

시대	문헌	착용자	의례	내용
1600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의인왕후	상장례	大紅廣紗 元衫 壹

8)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5, 149쪽.

9) 조선시대 궁중 신분별 원삼의 색은 필자의 논문(박현정, 「조선시대 궁중원삼의 신분별 색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권 10호, 2009)에서 발췌하였다.

2) 왕세자빈 원삼

조선시대 왕세자빈의 원삼은 가례와 관례에 착용되었다.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왕세자빈의 원삼 색은 모두 초록색으로 경종단의후(1696)까지는 운문필단이었다가 경종선의후(1718)와 진종효순후(1727)는 화문필단으로 바뀌었으며, 문조신정후(1819)와 순종순명후(1882)는 화화주로 바뀌었다. 안감은 모두 목홍초를 대었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나타난 왕세자빈의 원삼 역시 초록색으로 초록광적원삼에 안감은 목홍초를 대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왕세자 시절인 1882년 1월 20일에 관례를 행한 후 1882년 2월 21일에 첫 번째 왕세자빈 민씨와 가례를 올렸다. 왕세자빈 민씨의 가례 때 의례복은 『순종순명후가례도감의궤』와 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동일 인물의 동일 행사이지만 문헌에 따라 원삼의 색과 소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례도감의궤』에는 이전 왕세자빈과 같이 초록화화주원삼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기에는 가례절차에 따라 원삼의 색과 소재에 차이가 있어 삼간택에는 초록수천만세직금원삼, 가례에는 자적수천만세부금원삼, 관례에는 자적수천만세직금원삼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선 왕세자빈 원삼

시대	문 헌	착용자	의례	내 용
1651	현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	현종명성후	가례	圓衫1 雲紋草綠匹緞35尺 內拱木紅絹20尺
1671	숙종인경후가례도감의궤	숙종인경후	가례	圓衫1 草綠雲紋匹緞35尺 內拱木紅絹20尺
1696	경종단의후가례도감의궤	경종단의후	가례	圓衫1 草綠雲紋匹緞35尺 內拱木紅絹20尺
1718	경종선의후가례도감의궤	경종선의후	가례	圓衫1次 草綠花紋匹緞35尺 內拱木紅絹20尺

시대	문 헌	착용자	의례	내 용
1727	진중효순후가례도감의궤	진중효순후	가례	圓衫1次 草綠花紋匹緞 35尺 內拱木紅綃20尺
1749	국혼정례	빈궁(嬪宮)	가례	草綠廣의圓衫1
1750	상방정례	빈궁(嬪宮)	가례	圓衫1次 草綠廣의圓衫 35尺 內拱木紅綃20尺
1819	문조신정후가례도감의궤	문조신정후	가례	圓衫1次 草綠禾花紬35 尺 內拱木紅綃20尺
1882	순종순명후가례도감의궤	순종순명후	가례	圓衫1次 草綠禾花紬35 尺 內拱木紅綃20尺
1882	의대20(966) 壬午 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삼간 택시]빈궁마누라의대발기	순종순명후	삼간택	초록수천만세직금원삼 다홍별문단내작 봉띠
1882	의대40(988) 壬午 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 빈궁마누라의대발기	순종순명후	가례	자적수천만세부금원삼 다홍별문사내작
1887	의대65(1015) 병술 납월 빈궁마마관례시 의대건기 의대66(1016) 정해 정월 관 례시 대전의대단자	순종순명후	관례	紫의繡(壽) 千萬世織金圓衫

3) 후궁 원삼

조선시대 후궁의 원삼은 가례와 상장례에 착용되었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는 숙의 간택 및 가례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정식 후궁으로 간택된 후궁의 가례를 기록한 것으로 후궁 중 유독 숙의 가례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조의 고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영조25/11/23 무진). 숙의 원삼은 아청색이며 안감은 대홍광사를 대었다. 한편 『상방정례』는 ‘너울, 수식 가채, 흑각잠, 원삼, 대대, 상’ 등 숙의 가례 시 원삼 일습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가례 때 의례복으로 원삼을 착용한 실례로는 헌종 후궁 경빈김씨가 있

다. 헌종은 1837년 첫 번째 왕비 효현왕후 김씨를 맞이하였으며, 1843년 효현왕후가 죽자 1844년 두 번째 왕비 명헌왕후 홍씨를 맞이하였고, 3년 후인 1847년 10월 21일 경빈김씨와 가례를 올렸다. 8월 4일 초간택, 9월 3일 재간택, 10월 18일 삼간택이 이루어졌고 10월 19일 책빈례, 10월 20일 납폐례, 10월 21일 동뢰연과 조현례, 11월 17일에 관례를 행하였다. 경빈김씨가례복은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와 발기『기타 127(장2-2708)』에 기록되어 있다. 경빈김씨는 삼간택에 초록금수복자원삼을 입었는데 안감은 다홍단이며 초록단부금수자홍배를 부착하고 봉대를 매었다. 책빈례와 조현례에는 초록직금원삼을 입었으며 다음 달 관례 역시 원삼을 착용하였다.

한편 경빈김씨는 가례 다음 해인 1848년 대왕대비 순원왕후 육순 기념 진찬에 참석하였으며 이때 자적인화문사직금원삼을 착용하였는데 안감은 유청화문사였고 금치봉 홍배를 부착하였다. 『국역헌종무신진찬의례』를 통해 경빈김씨의 지위를 고찰해 보면 후궁인 경빈김씨는 왕비와 함께 대왕대비에게 3작을 올리며 치사를 행한다.¹⁰⁾ 경빈김씨의 원삼의 색이 가례 때의 초록색에서 자적색으로 달라진 것은 후궁으로 간택되었으나 왕의 총애를 입어 궁중 내 실질적 지위가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역으로 경빈김씨의 지위 상승을 통해 자적색 원삼이 초록색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헌종 후궁 경빈김씨의 상장례 기록 『경빈예장소등록』을 통해 원삼이 상장례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경빈 김씨는 1907년에 사망하여 장례가 진행되었다. 이 기록은 비록 대한제국 시대이지만 경빈김씨는 사망 당시 71세였으며 6년 전 헌종계비 효정왕후 철순기념 신축진찬 때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복에 사용된 유의는 조선왕조 때 착용한 옷이라고 생각된다. 1907년 차비 전수 이명진이 홍직금단부금원삼을 흔들며 돌아오시기를 세

10)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역헌종무신진찬의례』 권1, 민속원, 2004, 150~151쪽.

〈표 3〉 조선 후궁 원삼

시대	문 헌	착용자	의 례		내 용
1749	국혼정례	숙의	가례		圓衫次鴉靑廣紗1匹 內拱大紅廣紗1匹
1750	상방정례	숙의	간택		圓衫次鴉靑廣紗1疋 內拱大紅紗1疋 大帶次 大紅廣의半幅8尺 付金次貼金1束
			가례		圓衫次鴉靑廣紗壹匹 內拱大紅廣紗壹疋
1847	기타127 (장2-2708) 덩미가례시일기	헌종 경빈김씨	삼간택 1847.10.18		봉대, 초록단부금슈자홍배 초록금슈복자원삼, 다홍단내작 일작
			책빈일 1847.10.19		초록직금원삼, 다홍한단내 작 일작, 금치봉홍배
			조현례 1847.10.21		직금원삼
			관례 1847.11.17 (또는26일)		초가의-원삼, 재가의-원삼, 삼가의-원삼
			무신춘진연 및 치사의복 1848.3.17~19		자덕년화문사직금원삼 뉴정화문사내작 일작 금치봉 홍배
1847	헌종비경빈김씨 순화궁 가례시절차	헌종 경빈김씨	삼간택의복 1847.10.18		草綠金壽福字元衫, 多紅緞內作
			가례시의복금침 1847.10.21		草綠織金元衫, 多紅漢緞內作
1848			戊申春進宴及 致詞 1848.3.17~19		紫의鱗花紋紗織金元衫, 柳靑花紋紗內作
1907	경빈예장소등록	헌종 경빈김씨	상장례	복	紅織錦緞付金圓衫
				대림	圓衫[草綠織金緞付金] 胸襟[鳳金雉] 帶[多紅完子長春緞付金鳳]

번 부르는 복을 행하였다. 또한 대렴에는 봉금치흥배를 부착한 초록직금 단부금원삼에 다홍완자장춘단부금봉대를 매었다.

4) 군부인 원삼

조선시대 종친의 처인 군부인 원삼은 가례와 상장례에 착용되었다. 가례의 경우는 왕실 가례에 참석하는 경우와 본인의 가례가 포함된다. 1847년 홍선군부인은 헌종과 후궁 경빈의 가례 때 종친의 처로서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홍선군은 추존 장조사도세재의 후궁인 숙빈임씨의 2남은 신군의 손자로서 1843년에 홍선군에 봉해졌으며 따라서 그의 처는 군부인이 되었다.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와 발기『其他127(장2-2708)』에 의하면 경빈김씨 가례 때 궁중에서 홍선군부인에게 원삼을 보냈다. 경빈김씨 가례 때 홍선군부인이 궁에서 받은 원삼은 초록색으로 겹감은 초록향직이고, 안감은 다홍한단이며, 봉대가 포함되어 있다.

의화군부인은 1893년 본인의 가례와 1894년 4월 8일 춘절에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가례 의례복의 경우 문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의화군은 고종의 아들로 1891년 의화군에 봉해졌으며 1893년 10월 29일 참봉 김사준의 딸 김덕수와 길례를 올렸다(『고종순종실록』 고종30/10/29 정축). 의화군부인은 10월 20일 삼간택을 거쳐 10월 21일 납채, 10월 27일 납폐, 10월 29일 친영과 동뢰연, 10월 30일 조현례를 올렸다. 의화군부인은 삼간택에 초록직금전자원삼에 다홍공단봉대를 매고 머리에는 칠보족두리를 썼으며, 가례 때 역시 초록직금원삼을 입었는데 안감은 다홍별문단 내작이었다. 또한 『의복28(1047)』에 의하면 의화군부인은 이듬해 춘절에도 역시 초록사직금원삼을 입었다. 당시 왕비였던 민비는 ‘김덕수의 용모와 부덕을 사랑하여’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의화군부인은 당시 내명부 최고 수장인 민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삼간택부터 가례, 4월 8일까지도 직금을 한 화려한 초록 원삼을 입게 된 것이다.

한편 군부인이었다가 부대부인으로 신분이 높아짐에 따라 원삼의 색이 달라진 예를 살펴볼 수 있다. 홍선군부인은 남편 홍선군이 홍선대원군이 되면서 여홍부대부인이 되었다. 여홍부대부인은 1898년에 사망하여 장례가 치러졌으며 홍선대원군과 여홍부대부인 민씨의 장례 기록인 『예장청등록』에 부대부인의 원삼이 기록되어 있다. 여홍부대부인의 혼을 부르는 복을 위해 유의로서 아청도류사부금원삼을 혼들었으며, 대렴에는 자적고단부금원삼이 사용되었다.

〈표 4〉 조선 군부인 원삼

시대	문 헌	착용자	의 례		내 용
1847	기타127(장2-2708) 덩미가례시일고	홍선군부인	경빈가례	1847. 10. 21	초록향직원삼, 다홍한단내작, 봉대
1847	헌종비경빈김씨 순화궁가례시절차	홍선군부인	경빈가례	1847. 10. 21	草綠鄉職圓衫, 多紅漢緞內作, 鳳帶
1893	예단 · 패물23(1244) 패물의대발기	의화군부인	삼간택	1893.10.20	초록직금단자원삼, 다홍공단봉대 칠보족두리 일
1893	의복18(1037) 십월길례시부인의 복발기	의화군부인	가례	1893.10.29	초록직금원삼 다홍별문단내작
1894	의복28(1047) 갑오사월팔일춘절 군부인의복발기	의화군부인		1894.4.8	초록사직금원삼
1898	예장청등록	여홍부대부인	상장례	복	鴉青桃榴紗付金圓衫
				대렴	圓衫紫의庫緞付金裡松花 色貢緞內緞藍貢緞袖口藍 金緞黃金緞白貢緞付金]

5) 공주·옹주 원삼

조선시대 공주·옹주의 가례에 착용되었다.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딸이자 효명세자의 누이인 명은공주의 상장례 기록에 의하면 가례에 착용했던 원삼을 상장례 절차 중에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33년 명은공주가 사망했을 때 기록인 『명은공주방상장례등록』에는 공주의 혼을 부르는 복에서 '가례 때 입었던 초록직금단원삼'을 혼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초록직금단원삼은 명은공주가 1823년 동녕위 김현근에게 하가할 때 착용한 것으로, 소림에도 사용하였다. 안감은 진홍운문대단이며 봉금수홍배를 부착하였다. 명은공주는 1828년 어머니 순원왕후 40세 축하 진작에서 왕세자(효명세자, 세자빈 다음으로 치사를 올렸었다(『국역순조무자진작의궤』, 1828/2003). 이 역시 직금단원삼을 착용하게 된 배경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덕온공주와 화순옹주의 유물에서도 공주와 옹주의 가례복으로 착용된 녹색 원삼을 확인할 수 있다. 덕온공주는 순조의 딸이자 명은공주의 동생으로 1837년 남녕위 윤의선에게 하가할 때 의례복으로 입었던 녹색 원삼이 남아 있다. 원삼의 겹감은 연두색에 수 자가 금박된 대화문사이고 안감은 홍본사이나 안감은 없어졌다.¹¹⁾ 화순옹주는 영조의 후궁 정빈 이씨의 딸이며 효장세자의 동생으로 1756년 월성위 김한진에게 하가하였으나(『조선왕조실록』, 영조08/10/14 무진) 2년 후에 사망하였다(『조선왕조실록』, 영조34/01/17 갑진). 화순옹주 원삼은 겹감은 초록색 수복자 도류 불수문단이며 안감은 다홍색 연화당초문단이고 대는 홍색 비단으로 봉문을 금박하였다.¹²⁾

11) 석주선, 『의』,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6, 88쪽.

12) 석주선, 『의』,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6, 84쪽.

〈표 5〉 조선 공주·옹주 원삼

시대	문헌	착용자	의례		내용
1833	명온공주 방상장례등록	명온공주	상장례	복	嘉禮所着圓衫用之[草綠織錦 緞圓衫]
				소렴	草綠織錦緞圓衫 眞紅雲紋大 緞內的 鳳金繡胸背
1837	의	덕온공주	가례		연두색 壽금박大花紋紗원삼 紅本紗 안감(없어짐)
1756	의	화순옹주	가례		초록색 壽福자도류불수문단 다홍색 연화당초문단 안감 홍색 비단 鳳帶

6) 내인 원삼

조선시대 내인 원삼은 본인의 관례와 왕실 행차 및 연회에 착용되었다. 내인이 본인의 관례 때 의례복으로는 연두에 가까운 남송색 원삼을 입었음을 상궁 증언으로 알 수 있다.¹³⁾

1811년 순조는 원자중위를 계기로 각 전궁의 행차의식인 동가의절을 새로이 정비하게 하였다. 왕대비전[정조왕비 효의왕후, 중궁전(순원왕후), 혜경궁(정조 친모)의 『각전궁동가의절』, 정조 후궁이자 순조의 친모인 가순궁 수빈박씨의 『가순궁동가의절』, 정조 후궁인 경수궁 화빈윤씨의 『경수궁배위의절』이 그것이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각 전 시위 내인의 의례복으로 초록색과 아청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내인의 이름은 왕대비전부터 가순궁까지는 시위내인이라 하였고, 경수궁의 경우에만 배위내인이라 하였다. 내인은 행차 때 위치에 따라 전 시위내인, 중 시위내인, 후 시위내인으로 구분되는데 전과 후 시위내인은 초록사원삼에 자적금대를 매고,

13) 김용숙,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1996, 42쪽.

중 시위내인은 아청사원삼에 남단금대를 맨다.

한편 궁중의 각종 연회 기록인 진찬 및 진연의례에 시위각차비의 의례 복으로 원삼이 기록되어 있다. 1828년 순원왕후 40세를 기념하는 진찬 기록인 『순조무자진찬의례』부터 1902년 11월 고종 51세 및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진연 기록인 『고종임인진연의례』까지 시위각차비 즉 내인들의 직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의례복은 동일하게 흑사원삼과 초록원삼임을 알 수 있다. 지면 관계상 1829년 순조의 사순 생신 및 재위 30년을 기념하는 진찬 기록인 『순조기축진찬의례』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계청 전도상궁 및 도부집사 상침 전언 사찬 찬홀 전찬 전등여관은 어우미를 하고 남색상 위에 남사상을 입고 의례복으로 삼색연광수가 달린 흑사원삼에 남색 금수대를 매었으며, 시위 찬청 승인 전인상궁 및 상식 상식 상찬 상기 전식 상인 사인 전빈 전선의 각차비여관은 어우미를 하고 남색상 위에 홍사상을 입고 의례복으로 삼색연광수가 달린 초록원삼을 입고 남색 금수대를 매었다. 한편 이 기록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순조기축진찬병풍』에 의하면 내인들의 원삼의 색으로 초록색과 청색이 확인된다(그림 1).¹⁴⁾

즉 『진찬의례』와 『각전궁동가의절』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내인의 원삼 색으로 초록색, 아청색, 흑색이 등장한다. 그러나 기록에는 흑색임에도 불구하고 병풍 그림에는 청색으로 그려져



〈그림 1〉 기축진찬병풍

14)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476쪽.

있어 제도상 흑색일지라도 실제로 청색을 사용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 조선 내인 원삼

시대	문 현	착용자	의례	내 용
1811	각전궁동가의절	전 시위아내인일쌍	행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중 시위내인팔쌍	행차	鴉靑紗圓衫 藍緞金帶
		후 시위아내인일쌍	행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1811	가순궁동가의절	전 시위아내인일쌍	행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중 시위내인팔쌍	행차	鴉靑紗圓衫 藍緞金帶
		후 시위아내인일쌍	행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1811	경수궁배위의절	전 배위아내인일쌍	행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중 배위내인사쌍	행차	鴉靑紗圓衫 藍緞金帶
		후 배위아내인일쌍	행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1829	순조기축진찬의궤	계청전도상궁 및 도부 집사 상침 전언 사찬 찬 홀 전찬 전등여관	진찬	黑紗圓衫 三色緣廣袖 藍色錦繡帶
		시위 찬청 승인 전인상 궁 및 상식 상식 상찬 상기 전식 상인 사인 전 빈 전선의 각차비여관	진찬	草綠圓衫 三色緣廣袖 藍 色錦繡帶

3. 전라도의 청색 원삼

20세기 전반기 전통 혼례복으로 착용된 원삼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대한 민속학적 조사를 통한 혼례복 연구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다.¹⁵⁾ 이

15)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남한을 중심으로」, 『한국복식』 7, 1989; 단

들 연구에서 조사된 원삼은 모두 초록원삼이었으며 치수는 조선시대 궁중 원삼보다 작고, 색동의 가짓수가 많고, 한삼이 홀으로 되어 있고, 금직이나 금박은 되어 있지 않다.¹⁶⁾

전라도 원삼에 대해 전정희는 1991~1993년 1차 조사를 통해 초록색 원삼 8점, 청색 원삼 5점(증언 2건 포함)에 대한 조사 결과를 1994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¹⁷⁾ 그 후 필자 등은 그 후속 논문으로써 그동안 원삼의 색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청색 원삼 규명을 목적으로 추가로 조사한 청색 원삼 2점과 증언 1건을 합하여 총 8점(증언 3건)의 청색 원삼에 대한 조사 결과와 문헌 연구를 병행하여 발표하였다.¹⁸⁾

청색 원삼 유물 1건 및 전라도 전통 혼례용 청색 원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실 윤오묵 여사가 혼례 때 착용해던 청색 법단 겹원삼은 청색 법단 겹감에 진분홍 명주 안감을 댄 겹원삼이다. 깃은 홍색 도투마리 깃이며, 소매는 진동에서 색동너비(7.8)만큼 나간 선에서부터 홍·황·청·진분홍·녹·자주 6색 색동을 대고 한삼을 달았다. 앞뒤 길이가 같고, 등술 중심선이 진동 위치에서부터 밑단까지 트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진동 밑 3.5cm를 박았다. 옷고름은 없고, 홍색 대를 매었다. 윤오묵 여사의 시모님이 혼례복 일습을 마련해 준 것으로, 그 후 윤 여사의 시누이, 동서, 며느리까지도 혼례 시 이 원삼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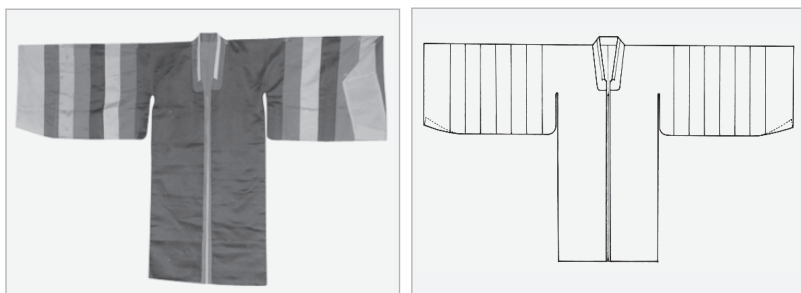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라도 혼례용 청색 원삼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째, 원삼 겹감의 색이 청색이다. 오행설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청색 옷을 입어야 나

국대 부속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 개화 이후-해방 전후』, 현암사, 1998.

16) 박경자, 「우리나라 혼례복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2,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69.

17) 전정희, 「우리나라 전통 혼례복에 관한 연구-전북지방의 원삼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30, 1994.

18) 박현정 · 전정희, 「청색 원삼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2권 1호, 1999.



〈그림 2〉 청색 법단 겹원삼(임실 윤오목 여사 착용)

라가 흥한다는 것은 고려 공민왕때¹⁹⁾를 시작으로 조선시대에도 수 차례 논의되어 왔다. 조선조 영조 2년에는 “우리나라는 동국이므로 마땅히 청색을 숭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백의를 입으니 어찌 좋은 징조라 하겠는가? 하물며 선조의 정령까지 있었음에랴! 공경으로부터 사서에 이르기까지 길복은 모두 청색을 숭상하도록 하라”고 하였다.²⁰⁾ 실제로 왕비의 최고 법복인 적의를 시작으로, 궁중 여인들의 치마, 남색 금침 등 궁중에서 청색 계통을 많이 사용한 것²¹⁾은 위와 같은 흥국 의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앞뒤 길이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혼용되었다. 『규합총서』에 의하면 “원삼 뒷길이 3척, 앞길이 2척5촌”²²⁾이라 하여 원삼의 뒷길이 앞길이 보다 긴 것을 알 수 있고 현존하는 궁중유물 원삼은 모두 뒷길이 앞길이 보다 길다. 그러나 실측한 청색 원삼 중에는 뒷길이 앞길이 보다 긴 것뿐 아니라 앞뒤길이가 같은 것도 있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통 혼례용 초록원삼²³⁾과 마찬가지로 색동의 수가 궁중원삼보다

19) 『고려사』 권72 지제26 여복 1357년(공민왕 6) 9월.

20) 『조선왕조실록』 영조 2년 10월 병인.

21) 김용숙,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1996, 355쪽.

22)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권2, 봉임칙.

많다. 정조 12년 10월 신묘에 “의장을 붙여 신분의 귀천을 표시하려는 것이 라면, 내명부나 외명부의 저고리·치마·머리장식·신발 등 모든 것이 품 계에 따라 달리하는 제도로서 … 원삼·장삼·당삼에는 소매 색동의 다과 와 비단(緞羅) 명색이 다르며 … 내조의 예가 오랫동안 폐지되어 빈 예문만 이 왕부에 간직되어 있을 뿐인데…”²⁴⁾라고 하여 신분에 따라 원삼 소매 색 동 수에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을 뿐 실행되지 않았 음을 말하고 있다. 궁중유물 원삼의 색동 수가 착용자에 상관없이 모두 2 색인 것은 품계에 따른 색동 수의 차이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실록의 기록 에 부합되는 한편 서민층 원삼은 4-6색으로 색동의 수가 많았다.

넷째, 깃의 색이 겹감의 색과 다르다. 현존하는 궁중유물 원삼의 경우는 각각 그 색에 따라 동일한 색의 깃이 달려 있다. 그런데 청색 원삼의 깃은 홍 또는 자주색으로 모두 붉은 계열의 색이다. 금직·금박을 할 수 없고, 치수도 작은 서민층 원삼에서 깃의 색을 겹감의 색과 다르게 하고 색동의 수를 많게 함으로써 변화와 화려함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색동 의 다색채 배색 개념은 한국인에게 화려하고 즐거우며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4.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궁중 신분별 원삼의 색을 살펴보면, 왕비는 홍 색, 왕세자빈은 초록색과 자적색을 입었다. 후궁은 아청색과 초록색을 입 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은 자적색과 홍색을 입기도 하였다. 군부

23) 석주선, 『의』, 단국대학교부속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5, 87쪽.

24) 『조선왕조실록』 정조 12년 10월 신묘.

인의 원삼은 초록색이었으며 군부인이었다가 부대부인으로 지위가 상승한 경우 아청색과 자적색을 입었다. 공주·옹주는 초록색을 입었으며, 내인은 초록색, 아청색, 흑색을 입었다.

20세기 전반기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통 혼례용 신부 의례복으로 초록색 뿐만 아니라 청색 원삼도 착용되었다. 아청색 원삼은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속의 간택 및 가례 시 원삼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왕의 총애를 입은 궁녀 중에서 왕자녀를 낳으면 속의 이상으로 봉해지며, 속의는 종2품에 해당한다. 한편 내인이 착용한 것으로 기록된 흑색 원삼은 동일 행사를 그린 그림에 청색으로 나타나 있다.

궁중복식제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삼 색으로써 청색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유물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라도 혼례복 청색 원삼 발굴을 통해 궁중 원삼의 색 중 청색이 실존하였던 것과 민서층의 혼례복으로 초록색뿐만 아니라 청색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색은 조선시대 오행설에 근거하여 길복의 색으로 권장되기도 하였다. 한편, 본 조사에 의하면 청색 원삼 착용자들은 대부분 양반가 또는 지방 유지로서, 당시 전라도 지방에서 청색 원삼은 상당히 고급 혼례복으로 통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사된 원삼 중 7건의 원삼은 깃의 색이 붉은색 계통이며 색동의 수가 4색 이상이다. 이는 금직·금박을 할 수 없고, 치수도 작은 민서층 원삼에서 깃의 색과 색동의 수로 변화와 화려함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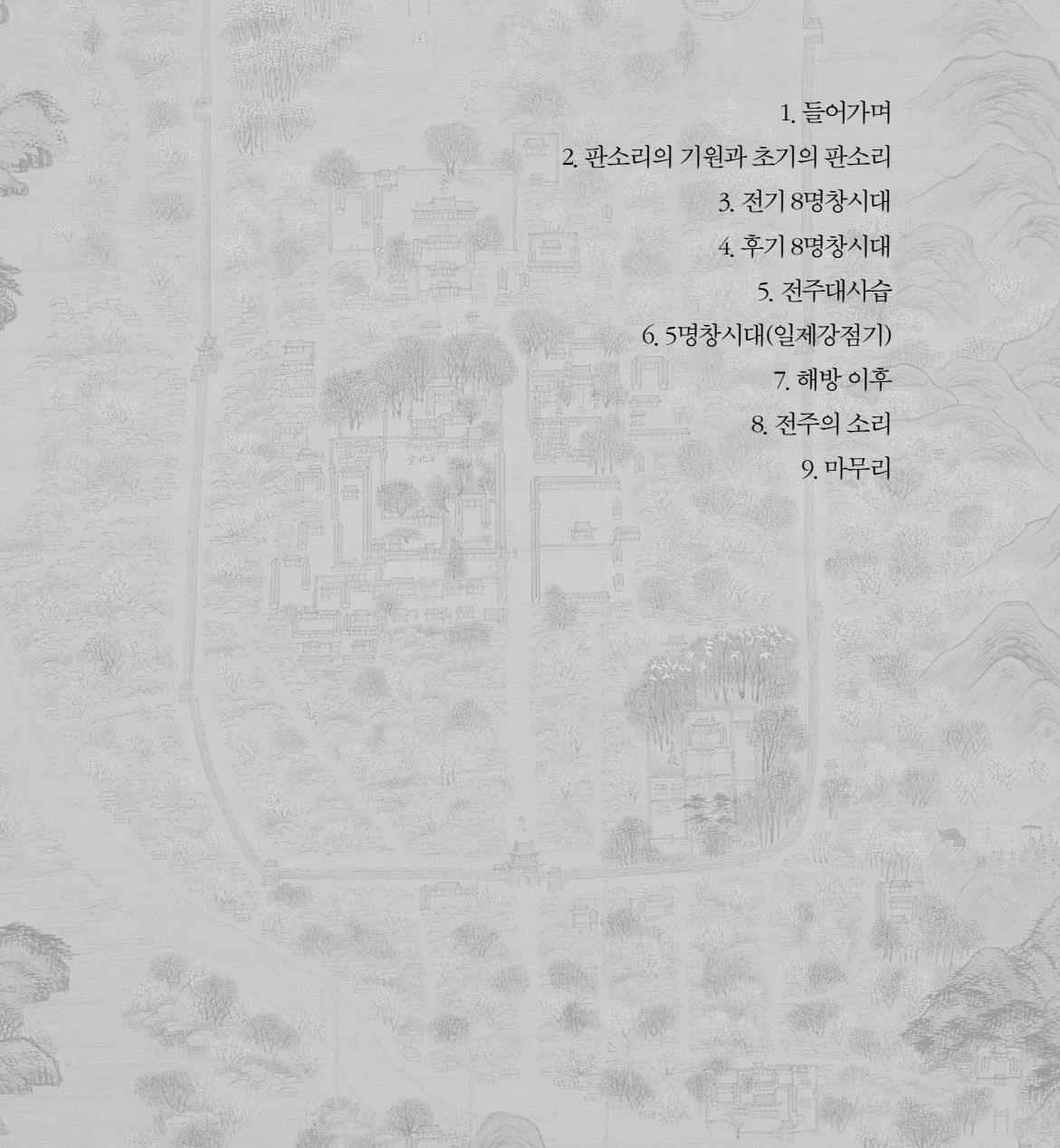
복식유물은 직물의 특성상 영존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필자 등이 실측 조사한 원삼도 착용된 후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보관상의 부주의나 훼손 등의 원인에 의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전통 복식은 돌, 혼례, 회갑, 상례 등의 통과 의례용 복식으로 그 착용 영역이 좁혀져 있다.

한국의 전통 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 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했던 세대와 그 세대의 부모와 조부모를 보고 성장해 전통 복식의 기

역을 소유한 세대를 통한 전통 복식의 발굴 및 보존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전통복식의 복원 및 재현 작업뿐만 아니라 현대에 활용 가능한 복식 상품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판소리와 전주대사습

최동현(군산대학교 국문과 교수)

- 
1. 들어가며
 2. 판소리의 기원과 초기의 판소리
 3. 전기 8명창시대
 4. 후기 8명창시대
 5. 전주대사습
 6. 5명창시대(일제강점기)
 7. 해방 이후
 8. 전주의 소리
 9. 마무리

1. 들어가며

전주의 판소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판소리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판소리와 전주의 판소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다. 부분과 전체는 따로따로 유리되어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호 유기적인 관련 속에 있기 때문에, 부분을 통해서 전체가 구성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의 의미가 규정될 때 부분의 참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전주 판소리는 우리나라 판소리의 전개와 관련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적인 문화현상을 전주지역에 국한하여 말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되었다.

또 전주는 행정구역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상의 전주는 여러 차례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권으로서의 전주,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전주'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판소리의 기원과 초기의 판소리

판소리가 어느 때, 어떻게, 어떤 사람에 의해 불려지기 시작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여기서는 판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판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판소리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이를 노래로 불러야 할 필요와 노래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판소리의 근원이 된 이야기를 근원설화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오래전

부터 우리 민족 내부에 전해 내려온 것들이다. 「수궁가」의 근원설화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라고 한다. 이는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하러 갔다가 염탐꾼으로 몰려 옥에 갇혀 죽게 되었는데, 고구려의 신하 선도해(先道解)가 옥으로 찾아와 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심청가」의 근원설화로는 역시 『삼국사기』에 있는 ‘효녀 지은’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렇듯 판소리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내부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인 것이다

판소리는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의 심층에 뿌리박고, 오랜 세월을 걸친 자기변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해 내려온 전승예술이기 때문에, 발생의 근원을 따진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의 근원에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정노식 같은 이는 판소리의 근원을 신라시대의 화랑의 음악에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판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변모·발전된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기가 어느 때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문헌을 통해서 판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은 영조 무렵이다. 영조 때 사람인 만화재(晩華齋) 유진한(柳振漢)의 문집 『만화집(晩華集)』 가운데 「가사 춘향가 200구」가 실려 있는 것이, 현재까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소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작자인 유진한은 『어우야담(於于野談)』의 작자인 유몽인의 6대 종손으로, 영조 때 천안지방을 중심으로 인근에 알려진 문인이었다. 그의 아들 금(槩)이 쓴 글에 의하면, 유진한은 1711년(숙종 37)에 나서 1791년(정조 15)에 죽었다. 또 금이 쓴 「가정견문록(家庭見聞錄)」 가운데 “부친께서 계유년(1753)에 남쪽으로 호남 문물을 돌아보시고, 그 이듬해 봄에 집으로 돌아오시어 춘향가 일편을 지으셨는데, 이 또한 당시 선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진한은 1754년에 「춘향가」를 지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춘향가」의 끝에 “늙은 시인이 타령의 가사를 쓰다”라는 구절이 있어, 소위 「만화본 춘향가」는 지은이인 유진한이 호남의 산천문물을 구경하

는 가운데 들은 바 있었던 타령(「춘향가」)의 가사를 한시로 옮겨 놓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를 통해 호남지방에 이때 이미 「춘향가」가 존재했으며, 노래로 불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충청도 선비가 감동을 받아 한시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세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히 호남을 돌아본 후에 지은 것으로 봐서, 충청도 지방에는 이 시기에 판소리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본 춘향가」의 내용은 현재의 「춘향가」와 매우 흡사하다. 긴 사설을 짧은 한시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보아 이야기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은 현대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춘향가」의 발생 시기는,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소급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생존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소리꾼은 하한담(혹 하은담이라고 함), 최선달, 우춘대 등이다. 우춘대는 1810년경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송만재(宋晩載)의 「관우희(觀優戲)」라는 시에 등장한다.

장안에선 모두들 우춘대를 말하지만	長安盛說禹春大
오늘날 누가 능히 그 소리 이어갈까	當世誰能善繼聲
한 곡조가 끝나면 술동이 앞에는 천 필의 비단이 쌓이는데	一曲樽前千段錦
권삼득과 모홍갑이 소년으로 이름있구나	權三牟甲少年名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1810년경에 우춘대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창이었으며, 이제는 후계자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춘대는 18세기 말경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춘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하한담과 최선달은 전주 신창의 대방(大房)과 도산주(都山主)였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신창’은 무부(巫夫, 무당 가계의 남자)들의 조직체인데, 당시에 무부들은 여러 가지 연예에 종사하고 있었다. 대

방은 각 도에 있는 신청의 우두머리를 말하며, 도산주는 대방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2명이 있었다. 최선달에 관해서는 충청도 결성 사람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하한담은 「갑신완문(甲申完文)」이라는 광대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관청의 처분을 적은 글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전주 신청의 대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소리꾼 고수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판소리사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판소리는 음악성이나 사설 내용이 지금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빈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과 같은 예술성 짙은 판소리는 훨씬 후에 태어난 광대들에 의해 이룩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북 지역의 소리꾼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 전기 8명창시대

19세기를 통틀어 판소리사에서는 8명창시대라고 한다. 8명창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 19세기 전반, 후기는 19세기 후반에 해당된다. 19세기의 판소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그 두 시기의 판소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전기 8명창시대에 이르러 판소리는 「변강쇠가」·「웅고집타령」·「배비장타령」·「강릉매화타령」·「가신선타령」·「장끼타령」·「무숙이타령」·「춘향가」·「심청가」·「수궁가」·「홍보가」·「적벽가」의 열두 바탕으로 정착하고, 여러 명의 훌륭한 명창들이 등장하여 판소리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판소리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8명창시대라고 하면 여덟 명의 명창이 활동하던 시기라는 뜻이겠으나, 여기서는 꼭 '8'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8명창시대란 '여덟 명 정도'의 명창이 활동하던 시기

라는 의미이며, 이때의 ‘여덟 명 정도’는 그 당시 활동했던 명창들 중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을 총괄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또 사람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달라서 꼽는 사람들도 다르다.

전기 8명창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권삼득, 송홍록, 송광록, 염계달, 모홍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주덕기, 황해천 등인데, 이 중에서 전북 출신은 권삼득, 송홍록, 송광록, 모홍갑, 신만엽, 주덕기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구체적인 더늠이나 특별한 선율 형태 등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러한 다양한 더늠과 선율의 개발을 통해 판소리의 음악적 세련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중에서 전북 출신의 업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권삼득(權三得, 1771~1841)

비가비로 전기 8명창 중에서 가장 선배격이다. 가승에 의하면 권삼득은 명문 안동권씨 29세손으로, 권래언(權來彦)의 둘째 아들이며, 이름은 정, 호가 삼득(三得)이다. 권래언의 호는 ‘이우당(二憂堂)’인데, 이는 부친을 남의 산에 묻어 놓고 아직까지 이장을 하지 못한 것과 자식이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두 가지의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권삼득은 향반 출신이었으나, 어려서부터 글 배우기를 싫어하고 소리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부친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죽이기로 하였으나, 죽음에 당하여 부른 한 곡조의 슬픈 소리에 감동한 사람들이 죽이 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여, 족보에서 제명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한다.

권삼득은 ‘덜렁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도 「홍보가」의 ‘놀이 보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춘향가」의 ‘군뢰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 대목’, 「심청가」의 ‘남경장사 선인들이 처녀를 사겠다고 외치는 대목’, 「수궁가」의 ‘벌떡게가 여쭙는 대목’ 등 여러 곳에 쓰이고 있다. 덜렁제는 높은 음역의 소리를 길게 지속하거나,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또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넓게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는, 이른바 도약형 선율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매우 씩씩한 느낌을 준다. 권삼득에 의해 판소리에 이 덜렁제가 도입됨으로써, 판소리는 초기의 설움조 일변도의 창법을 벗어나 표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송흥록(宋興祿)

남원 운봉 비전리 출신으로, 가왕(歌王)으로 일컬어지며, 흔히 ‘시중천자(詩中天子) 이태백(李太白)’에 비유된다. 송흥록은 그 당시까지의 모든 판소리를 집대성하여 한 차원 높은 예술의 경지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판소리의 중시조로 추앙을 받으며, 동편제 창법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안민영이 쓴 『금옥총부』에는 1842년(임인년) 가을에 순창에서 주덕기를 데리고 운봉으로 송흥록을 찾아가 신만엽, 김계철, 송계학 등 명창과 잘 놀았으며, 칠원에서는 기생 맹렬과 함께 있던 송흥록을 만나 사오일 잘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송흥록의 판소리사에 대한 공헌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계면조(설움조)의 완성이다. 계면조는 판소리의 기본이 되는 선율이다. 계면조는 본래 전라도 민요나 무가의 기본 선율이지만, 판소리에 도입되면서 보다 더 높은 예술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송흥록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둘째 진양조의 완성이다. 진양조는 송흥록의 매부인 김성옥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송흥록은 이를 세련시켜 완성의 극치에 이르게 했다. 진양조의 완성으로 판소리 계면조의 표현이 심화되었으며, 정가(正歌, 양반들이 즐기던 성악. 주로 가곡창을 말함) 선율의 판소리화에도 성공하였다. 진양조의 도입으로 판소리는 계면조 일변도의 창법을 벗어난 것이다. 셋째 산유화제의 도입이다. 산유화조는 메나리조라고도 이르는 것으로 경상도 민요의 선율을 가리킨다. 따라서 산유화조를 도입했다는 것은 곧, 전라도 이외의 지역의 음악적 유산도 판소리가 포괄하게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홍록은 당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음악적 유산을 판소리화함으로써, 판소리를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애호를 받을 수 있는 예술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판소리는 초기의 단순성을 벗어나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3) 모흥갑(牟興甲)

전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 경기도 진위, 또는 전북 죽산 출신이라고도 하나, 말년에는 전주 부근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 권삼득과 더불어 송만재의 「관우회」에 이름이 등장하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감사 부임도」라는 병풍에는 그가 대동강의 능라도에서 소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모흥갑의 특징적인 창법으로는 강산조가 있다. 이는 한때 그의 수행고수였던 주덕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을 보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모흥갑이 ‘전치몰락(前齒沒落)의 순음(脣音, 앞니가 다 빠진 입술소리)’으로 「이별가」 중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요’ 대목을 불러 주덕기로 하여금 사죄케 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부르던 소리를 말한다. 이는 주덕기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이와 비슷한 더늠이 판소리 「춘향가」에 남아 있다. 판소리 평조와 그 구성음은 비슷하나, 고음역 선율이 많아서 청아하고 들뜬 느낌을 준다.

4) 주덕기(朱德基)

전주 출신, 또는 전라남도 창평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송홍록과 모흥갑의 수행고수 노릇을 하였으나, 후에 소리 공부하기를 결심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 소나무 밑둥지를 베어놓고 주야로 제사를 드리며 수련을 했는데,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었다 하여 ‘벌목정정(나무를 베는 소리

쩌렁쩌렁 울리네)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그의 더듬은 「적벽가」 중 ‘자룡 활 쏘는 대목’ 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불려지고 있다.

5) 신만엽(申萬葉)

전북 여산 출신인데 후에 고창에서 살았다. 신만엽은 특히 「수궁가」를 잘 불렀다고 하는데, 그의 더듬으로는 ‘토끼 배 가르느 대목’ 과 ‘소지노화 대목’ 이 있다. ‘소지노화 대목’ 을 특히 석화제라고 하는데, 이는 가야금병창제라고도 하며, 선율형은 판소리 평조와 거의 같다. 석화제는 명쾌하지만, 계면조의 비장한 느낌에 비하여 가볍고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창들은 석화제의 남용을 금하고 있다.

6) 송광록(宋光祿)

남원 운봉 출신으로 가왕 송홍록의 동생이다. 처음에는 형인 송홍록의 고수 노릇을 했으나, 고수의 하대에 불만을 품고 제주도로 들어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대명창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소리는 아들 송우룡과 손자 송만갑, 증손자 송기덕에게까지 이어져, 동편 소리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었다. 더듬으로는 진양조 ‘사랑가’ 가 전하고 있다(최근에 송만갑의 후손이 등장하여, 송우룡이 송광록의 아들이 아니라, 송홍록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송우룡이 송홍록의 아들인지, 송광록의 아들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4. 후기 8명창시대

19세기 후반은 후기 8명창시대로 일컬어진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8명창에 드는 사람들은 박유전, 박만순, 이날치, 김세종, 송우룡, 정창업, 정춘풍, 김창록, 장재백, 김찬업, 이창윤 등인데, 이 중에서 박유전, 박만순, 김세종, 김창록, 장재백, 김찬업이 전북 출신이다. 후기 8명창들은 전기 8명창의 소리를 계승하여 다양한 더듬들을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 김세종과 이날치, 장재백은 「연수전중용하기」라는 문서에 등장하는데, 잔치에 초대되어 1885년(고종 22) 9월에 소리를 하고, 김세종은 100냥, 이날치와 장재백은 50냥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전기 8명창들이 대부분 다양한 향토 선율을 판소리화하여 다양한 선율형을 개발한 데 비해, 후기 8명창들은 전기 8명창들이 개발해 놓은 선율형들을 갈고 닦아 판소리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더듬들을 만든 것이다. 이 더듬들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 시대 후기 8명창에 드는 전북 출신 명창들의 활동 연대와 출신지, 더듬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활동 연대	출신지	더듬
박유전	1834~?	전북 순창	이별가, 새타령, 서편제 소리의 시조
박만순	헌종~고종	전북 고부	옥중가, 사랑가, 「적벽가」
김세종	헌종~고종	전북 순창	「심청가」, 천자뒤풀이, 동편제 소리의 시조
김창록	철종~고종	전북 무장	「심청가」, 심청 부녀 이별 대목
장재백	철종~고종	전북 순창	「변강쇠타령」, 「춘향가」, 광한루 경치
김찬업	고종	전북 홍덕	「수궁가」,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이 사람들 외에도 전북 출신의 소리꾼으로는 주상환(주덕기의 아들), 전

해중(부안), 김거복(죽포), 김수영(흥덕), 최승학(나시포, '나포' 인지 모르겠다), 서성관(금구), 전상국(임실), 백경순(부안), 송재현(전주), 장수철(전주), 양학천(운봉), 백근룡(태인) 등이 자기 나름의 더늠을 만든 사람이다. 정춘풍은 후기 8명창에 드는 사람인데, 본래는 충청도 양반 가문 출신이지만, 말년은 여산에서 보냈으며, 「소상팔경가」가 그의 더늠이다. 정춘풍은 송홍록, 김세종과는 기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동편제 소리의 시조이다.

이 시대 판소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판소리가 궁중에까지 침투하게 됨으로써, 판소리를 감상하는 일이 양반 귀족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원군은 판소리를 좋아하여 자신의 사랑에 늘 소리꾼을 불러다 놓고 판소리를 즐겼다. 소리꾼들은 이러한 대원군의 판소리 애호에 힘입어 벼슬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대 판소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또 한 사람으로는 고창의 신재효를 들 수 있다. 신재효는 중인 출신으로 자신의 사랑채에 수많은 소리꾼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판소리 사설의 정리와 개작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판소리 여섯 바탕 사설집과 25편에 이르는 단·잡가이다. 신재효는 양반들의 미의식을 매개로 하여 판소리의 개작을 시도했기 때문에, 신재효의 업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요소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둘째, 서편제 소리의 성립으로 상징되는 서민지향적 감성의 판소리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서편제 소리는 19세기 후반 순창 출신 소리꾼인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된 판소리의 한 흐름을 가리키는데, 계면조를 중심으로 판을 엮어나가며, 기교와 수식을 많이 다는 화려한 소리 양식을 특징으로 한다. 전기 8명창시대의 소리가 양반과 타 지역 음악 양식의 도입으로 특징지워진다면, 후기 8명창시대에 등장한 서편제 소리는 판소리의 모체인 전라도 무가나 전라도 민요의 선율적 특성의 강화로 특징지워진다.

셋째, 이 시대에 들어 여창 판소리가 등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판

소리는 본래 남자들만이 부르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대 고창의 신재효는 진채선이라는 여창을 양성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진채선은 1846년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검당포에서 출생하였는데, 신재효에게 발탁되어 소리를 배운 뒤, 경북궁 경회루 낙성식(1867)에 참여하여 소리를 하여 이름을 얻었으며, 후에 대원군의 사랑을 받아 운현궁에서 기거하였다고 한다. 신재효에게 배운 여창들만도 8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신재효에 의해 본격적으로 여창 판소리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채선 이후 판소리는 여창이 점점 늘어났으며, 마침내 현대에 와서는 여창이 판소리의 주류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전주대사습대회가 생겨나서, 판소리 창자들의 등용문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전주대사습은 본부(전주부)와 영문(전라감영)의 통인들이 중심이 되어 동짓날 펼치던 판소리 축제였다고 한다. 전주대사습대회는 경연은 아니었고 순수한 축제 형식이었으나, 많은 소리꾼들이 이를 통하여 이름을 얻게 되면서, 판소리 창자들의 등용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5. 전주대사습

‘대사습’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사전에는 ‘사습(私習)’이란 말이 “① 스승 없이 혼자 스스로 배워서 익힘. ② 활쏘기에서, 정식으로 쏘기 전에 연습으로 쏘는 일”로 나와 있다. 판소리 「적벽가」에는 “18기 사습하기”란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대사습’이란 말은 아마도 ‘혼자서 익힌 바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겨루는 일’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대사습’은 송만갑의 회고록에도 등장하는데, 송만갑은 순천대사습에서 소리를 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대사습은

전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다른 곳과 달리 전주대사습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주대사습대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선창극사』에는 정창업이 전주 통인청 대사습에 참여하여 실수를 한 뒤에, 오래 근신하고 노력하여 후에 명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기 8명창들이 전주대사습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발견되지 않고, 또 「전주대사습대회」라는 글을 쓴 바 있는 홍현식도 전기 8명창들은 전주대사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주대사습은 후기 8명창 시대 이전으로 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대사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주대사습은 조선시대부터 판소리 명창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던 판소리 축제였다.
- ② 『전주대사습사』에 의하면, 대사습은 영조(1724~1776) 때를 전후하여 아전들과 한량들에 의해 시작된 판소리 축제였다고 하지만, 19세기 후반기, 그러니까 후기 팔명창들이 주로 대사습을 통해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판소리의 고장인 전주에서는 명절이나 잔치 등에서 판소리를 듣고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동짓날 팔죽과 음식을 먹고 광대를 초청하여 통인청(通人廳, 통인들이 집무를 보던 곳)에서 판소리를 하고 놀았던 것이 전통이 되어 대사습이 되었다고 한다.
- ④ 동짓날이 가까워지면 본부(전주부)와 영문(전라감영)의 통인들은 판소리 명창들을 수소문하여 경비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초청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였다.
- ⑤ 무대는 오색 포목을 거미줄같이 늘이고, 사방에 큰 등불을 달고, 솟불을 띄워놓고, 주위에 병풍을 둘러치는 등 매우 화려하게 꾸몄다고 한다.

⑥ 전주대사습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면서 사라졌는데, 1974년 전라북도 국악협회에서 전주대사습놀이를 부활하기로 결의하고, 박영선, 임종술, 송광섭을 부활추진대표로 선임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주최로 1975년 9월 22일 역사적인 첫 대회를 개최하였다.

⑦ 1977년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이때부터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이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1984년부터는 문화방송과 제휴를 맺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⑧ 1983년에는 MBC에 의해 학생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만들어져, 판소리, 농악, 현악, 관악, 무용, 가야금병창, 민요, 어린이판소리의 여덟 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⑧ 복원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처음에는 판소리, 농악, 시조, 무용, 궁도의 다섯 부문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판소리 명창부, 농악부, 시조부, 무용부, 궁도부, 기악부, 가야금병창부, 민요부, 판소리 일반부의 아홉 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6. 5명창시대(일제강점기)

이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5명창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박기홍, 김창환, 김채만,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유성준, 전도성, 정정렬 등이다. 이 중에서 전북 출신은 유성준, 전도성, 정정렬이다. 이들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생존한 사람이 유성준(1949년)과 이동백(1950년)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1940년까지 모두 타계한다. 따라서 1945년 해방 때까지를 5명창시대로 잡는다.

국권의 상실과 함께 19세기 후반까지 민속음악, 특히 판소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전주는 20세기 들어 그 역할이 급속하게 축소된다. 그

역할의 축소는 제일 먼저 전주대사습의 폐지로 나타났다. 전주대사습은 19세기 후반 이 지역의 발달된 판소리 문화를 배경으로 판소리 창자에 대한 평가와 선발의 기능을 담당하던 민간 주도의 판소리 축제였다. 판소리 명창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습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했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 전주대사습이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대사습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송만갑(1865~1939)과 유공렬(1864~1927) 이후에는 없는 것을 보면, 대개 19세기 말경에는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들어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공연 활동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의 계기가 된 것은 협률사라는 서양식 극장의 건립이었다. 협률사는 고종 황제 등극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청경식장으로 축조된 것이었는데, 애써 준비한 청경 예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야무야되어 버렸고, 이러한 과정에서 협률사는 영업적 극장으로 변하여 명맥을 유지하다가 일제에 의해 1906년 혁파되었다. 그러나 협률사 이후 전통음악은 서울 중심, 극장 공연 중심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이 서울에서 극장 중심으로 공연되기에 이르자, 전주대사습이 하던 판소리 창자에 대한 평가·선발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서울 소재 극장에서 벌이는 ‘명창대회’가 맡게 되었다.

20세기 초 지방에서는 국권 상실 후 낙향한 소리꾼들에 의해서 ‘협률사’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포장을 치고 지방을 순회하는 공연에 나섰는데, 지방 협률사로는 1907년 김창환이 조직한 단체가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주지방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1920년경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 권번(기생 조합)이 설치되어 여기서 판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다수의 여자 창자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전북 지방에도 일찍부터 전주, 군산, 이리, 정읍, 남원, 등지에 권번이 설치되었다. 전주에서는 남문 옆에 전주권번이 생겨서 이기권, 김준섭, 신영채, 정남희 등이 강사로 있었다고 하나, 여기서 배출된 소리꾼으로 이름을 얻

은 사람은 없다. 전주지역에서도 협률사 공연은 간간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0년 2월 8일자 동아일보에는 동아일보 전주지국 주최로 전주극장에서 이화중선, 임방울 등의 공연이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열릴 것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어떤 공연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 시기 전통음악의 명맥을 이어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은 역시 곳곳에 있었던 판소리 애호가들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수준 높은 청중들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안방에서의 공연을 통해 판소리를 계속 향수하였는데, 일제강점기 내내 전주지역은 많은 소리꾼들이 묵으면서 소리를 하고 가는 곳이었다. 이들의 이름이 판소리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지역 판소리의 수준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토대였던 것이다.

이 시대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은, 1920년경에 전국 주요 도시에 권번(기생 조합)이 설치되어 여기서 판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다수의 여자 창자가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전북 지방에는 일찍부터 전주, 군산, 이리, 정읍, 남원, 순창 등지에 권번이 설치되어, 많은 여자 소리꾼들이 양성되었다. 소리꾼들은 이때부터는 대개 권번의 소리 선생을 하면서, 권번을 중심으로 판소리가 전승되게 되었다. 여성 창자들의 급증으로 판소리는 유흥화해 가는 한편 남성 판소리의 전통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전도성(全道成, 1864~?)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출신이며, 고종으로부터 참봉 교지를 받은 어전 명창이다. 부친 전명준과 송우룡에게 배웠으며, 말년에는 정읍군 태인면에 살면서 찾아오는 많은 명창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정정렬이다.

전도성은 자신의 소리가 함부로 저잣거리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

여, 창극 운동이나 협률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레코드 취입도 하지 않았다. 전도성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전통적인 소리와 공연 방식을 고집했던 소리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도성의 공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선창극사』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창극사』는 김제 만경 사람 정노식이 향간의 구전과 명창들의 구술을 기초로 역대 명창들의 일화와 더늠을 모아 놓은 것인데, 전도성은 해박한 판소리사에 관한 지식으로 이 책의 편찬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판소리사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귀중한 문헌이다.

2) 유공렬(柳公烈, 1863~?)

익산 출신으로 박만순에게 배웠으며, 30세경에 전주대사습에서 기량을 인정받아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40세경 상경하여 송만갑, 김창환 등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만년에는 고향에 내려와서 생을 마쳤다.

3) 정정렬(丁貞烈, 1876~1938)

전북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 출신이다. 같은 집안인 정창업의 문하에서 수업을 시작했으나, 이내 정창업이 별세하였기 때문에, 후에 이날치에게 배웠다. 성대가 약하여 오랜 수련 끝에 40세가 되어서야 이름을 얻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상무이사를 맡아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춘향전」(1935), 「심청전」(1935), 「홍보전」(1936), 「숙영낭자전」(1936), 「배비장전」(1938), 「옹고집전」(1938) 등 창극을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창극다운 창극은 이때 정정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정렬은 흔히 30년 앞을 내다보고 소리를 했다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정정렬이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소리꾼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정정렬은 빅터(VICTOR), 오케(OKEH), 폴리돌(POLYDOR) 등에서 음반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폴리돌에서 김창룡, 이동백, 조학진 등과 함께 낸 「심청가」와 「적벽가」, 임방울 · 김소희 · 이화중선 · 박녹주와 함께 빅터에서 낸 「춘향가」는 일제시대 최고의 판소리 명반으로 알려져 있다.

정정렬은 「춘향가」를 잘하여, 「춘향가」는 정정렬이 판을 막아버렸다'고 할 정도였다. 그만큼 정정렬의 「춘향가」는 예술성을 인정받았는데, 현대 「춘향가」는 거의 대부분이 정정렬의 「춘향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정정렬 판소리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장단에서 극단적인 엇부침의 추구이며, 둘째, 계면조 창법의 확대이다. 엇부침은 부족한 성량과 좋지 않은 성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구되었으며, 계면조의 확대는 일제 치하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대중의 슬픈 소리 취향을 수용한 것으로, 당시 청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정정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정렬의 소리는 김여란과 이기권을 통해 이어졌다.

4) 유성준(劉成俊, 1874~1949)

남원 출신이라고도 하고, 구례 출신이라고도 하나, 활동은 주로 구례, 하동, 진주 등지에서 하였고, 전라북도에서 활동한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송만갑과 함께 송우룡에게 배웠으나, 처음에는 송만갑의 그늘에 가려 별로 빛을 보지 못했다. 송만갑이 죽은 후에는 동편 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꾼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임방울, 정광수, 김연수, 박초월, 강도근 등이 대표적인 제자들이다. 특히 「적벽가」와 「수궁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

5) 장판개(張判介, 1885~1937)

순창군 금과면 연화리에서 살았으나,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오곡리에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출생지는 전남 곡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송만갑의 고수를 거쳐 명창이 되었으며, 1904년 송만갑을 통해 원각사 무대에 출연하였고, 그해 7월에는 어전에서 소리를 하여 고종으로부터 참봉 교지를 받았다. 그가 만들었다는 '제비 노정기'는 현재 '놀부 제비 노정기'로 되어 대부분의 창자들이 부르고 있다.

6) 김정문(金正文, 1887~1935)

진안 백운 출신으로 남원 주천에서 살았다. 유성준과 장재백의 생질이다. 어려서 유성준에게 소리를 배웠으나, 남에게 늘 뒤진다고 유성준에게 얻어맞은 후에, 유성준 문하를 떠나 송만갑의 고수가 되어 송만갑의 가르침을 받아 대성하였다.

김정문은 특히 「홍보가」를 잘 불렀는데, 그의 소리는 강도근과 박녹주에 의해 충실히 이어져 현대 「홍보가」의 중추가 되었다.

7. 해방 이후

해방 후에 권번이 해체되고 전주국악원이 개원했는데, 전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동국악원으로도 부른다. 전주국악원은 전경석 김명종 등의 회사로 건물을 구입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초대 국악원장은 김희순이 맡았다. 전주국악원은 6·25 직후에 전성기를 맞았다. 강사진으로는 판소리에 김원술, 김동준, 홍정택 등이 있었는데, 이때 소리를 배운 사람으로는 정미옥, 최승희, 이성근 등이 있다. 이들은 후에 다 전라

북도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고수로는 박창율이 있었는데, 박창율은 송영주, 김관철, 송인섭, 주봉신 등에게 북가락을 전수하였다. 송영주, 김관철, 송인섭 등은 순수한 아마추어였으나, 그 실력이 전업적인 고수에 못지 않아 전주 판소리 청중의 수준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되었다. 송영주, 김관철 등은 후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58년경 전주국악원은 분규가 일어나, 원장 김희순이 국악원 건물을 자의로 매각처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김세영이 전주역(현 전주시청) 앞에 있던 백도여관 2층에 전북국악원을 열어 1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갔다. 강도근이 강사로 있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전북국악원은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후진 양성에는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했다.

이후 오명순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완산칠봉 밑에 청학루라는 건물을 구입하여 일시 운영에 들어갔다. 김연수가 전주에 와서 제자를 가르친 것도 바로 청학루 시절이다. 1964년 도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청학루 자리에 비사벌 예술학교가 세워졌다. 조영자, 송재영이 이 학교 출신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끝내 법인 인가를 받지 못하고 분규에 휩싸였다가, 1979년 예림예술학교로 개칭되고, 후에 성은여고로 바뀌면서 국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학교가 되고 말았다.

홍정택은 전주국악원이 문을 닫게 되자 대구로 갔다가 1962년에 전주로 다시 와서 사설 국악원을 열게 된다. 홍정택은 이후 전주를 떠나지 않고 국악원을 지키며 제자들을 양성했다. 홍정택이 전주 판소리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것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끝내 판소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홍정택에게 소리를 배운 사람으로는 전정민, 조소녀 등이 있다. 홍정택의 공로는 전문적인 음악인들을 양성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홍정택은 우리 전통음악이 완전히 외면을 받던 시기에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많은 국악 동호인들을 길러냈는데, 이들은 후에 고급 감식안을 지닌 청중들로 성장함으로써, 전주의 판소리 청중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

로 기여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송장화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전주천 매곡교 아래 천막을 치고 다른 물건들을 팔면서 함께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는데, 김준섭과 박도화는 이 시기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이 시기 이 공연장은 초라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회고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곳은 전주지역의 소리가 면면히 이어지던 현장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면 전통음악은 완전히 자생력을 잃게 된다. 전통음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악인들이 요정에 출입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강장원과 임유앵 등도 1950년대 한때 전주에 머물면서 판소리를 했다고 한다.

오정숙은 1970년경에 전주로 와서 식당을 운영했다. 오정숙은 김연수의 다섯 바탕소리를 완전하게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일주와 조소녀, 민소완 등이 오정숙을 만난 것이 이때이다. 오정숙은 곧 전주를 떠났지만, 오정숙이 이일주, 조소녀, 민소완을 통해 뿌려놓은 김연수 바디 소리는 후에 전주 소리를 대표하는 판소리로 자라나게 된다. 김연수 바디 판소리는 김연수가 오명창들의 소리를 두루 배운 후에, 자기 나름대로 사설을 다시 깎고 짜서 만든 소리이다. 물론 그중에는 김연수가 작곡을 해서 넣은 부분도 상당수가 된다. 현대에 와서 김연수 판소리가 대단한 세력으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김연수에 의해 새로워진 판소리가 현대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운선과 장녹운, 최난수 또한 전주 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들은 전주에서 소리를 배운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전주에 모여들어 활동하며 전주 판소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한 때는 이들 세 사람이 전주 소리를 대표하기도 했다. 성운선과 장녹운은 별다른 제자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뒀으나, 최난수는 현재 군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장기인 박초월 바디 수궁가와 홍보가를 가르치

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도 많다.

1975년 마침내 전주대사습놀이가 복원되어 그 첫 대회가 열렸다. 전주 대사습놀이의 복원은 전주지역 판소리 애호가들의 옛 전통 복원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19세기 후반 전주대사습놀이가 이 지역의 발달된 판소리 문화를 배경으로 생겨난 순수한 민간 주도의 판소리 축제였듯이, 1975년 복원된 전주대사습놀이 또한 그 진행 방식이 경연으로 바뀌었을 뿐, 민간 주도의 판소리 축제인 것은 동일했다.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대회 장원은 이 지역에서 소리 기량을 닦은 오정숙이었다. 이후 전주대사습놀이는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등용문이 되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복원은 과거 전주지역의 전통을 되살려 전통예술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의의가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 민족 예술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판소리 전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던 전라북도에서는 판소리의 부흥을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판소리의 부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기우, 천희두, 천이두 등은 KBS, MBC와 손잡고 판소리감상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송영주, 김원술, 김판철, 송인섭, 이기우, 천이두, 천희두, 최동현 등은 대한고우회를 결성하고 판소리 감상회를 여는 한편으로, 1987년부터 「소리와 장단」이라는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986년 10월 5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의 개원은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생계를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수한 전통예술인들이 전주로 다시 모여들었다. 이들은 도립국악원의 교수나 창극단 등의 단원이 되었다.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이들의 활동도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판소리의 홍정택, 이일주, 최승희, 민요의 김유앵, 거문고의 강동일, 가야금의 강정렬, 풍물의 김상순과 나모녀 등이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사회교육을 목표로 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은 여러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연수생을 배출하여, 판소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창극단, 국악연주단, 무용단이 설치되어 각종 공연활동을 펼치면서 전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다.

1984년에는 전주우석대학교에 국악과가 설치된 이래, 1988년에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 한국음악학과, 1995년에는 원광대학교에 국악과가 설치되었다. 또 1995년에는 전주예술고등학교, 1997년에는 예술중학교가 설립되어 전통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음악 연주자를 양성하는 고급 교육기관이 마련됨으로써 전주는 전문적인 전통음악 연주자들을 공급하는 기지로서도 기능하게 되었다.

1984년부터 전라북도에서 판소리를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시작하였는데, 홍정택, 김유앵(작고), 이일주, 정미옥, 최승희, 주봉신(북), 이성근(북), 조소녀, 민소완, 이순단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소영, 조영자 등은 이미 명창의 반열에 올라 있다. 판소리 국가지정 준문화재인 김일구, 김영자 부부도 전주로 이사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송재영, 김연, 천명희, 김정호, 장문희, 차복순, 박영순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주의 판소리는 1980년대 이후 민족 예술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배우기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마련되었다. 이제 전주는 외형적으로는 민속음악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사라져가는 판소리를 되살리는 데 집중되었으며, 그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판소리를 우리의 현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살아 있는 예술로 가꾸어, 세계적인 예술로 육성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8. 전주의 소리

전주는 예부터 판소리의 공급지라기보다는 소비지였다. 전주는 오랫동안 호남의 중심지로서 기능해 왔고, 그 행정적 기능을 통해 곧바로 예술의 중심 소비지로 부각되게 되었던 것이다. 전주대사습놀이도 이러한 소비지로서의 기능을 통해 자라난 축제였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에는 여러 가지 음악이 모이기 마련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것도 전주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 예술인들을 공급하는 지역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도 이러한 전주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했기 때문에 소비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지자 전주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비지로서 수준 높은 청중들이 많았던 이 지역의 전통은 나중에 우리의 소리를 부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전주가 전통음악의 소비지에서 공급지로 서서히 변화해가던 시점은 해방을 전후한 시기부터이다. 이 시기는 전주가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어가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판소리에서는 이기권, 홍정택, 김동준, 오정숙 등이 이 시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이 설립되고부터 전주는 이제 전통음악의 공급지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도립국악원의 설립으로 판소리뿐만 아니라, 기악 부문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거문고의 강동일과 가야금산조와 병창의 강정렬은 전주의 기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축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전주의 소리의 특징은 무엇일까. 판소리의 경우 전주에 뿌리를 내린 소리는 이기권의 소리, 김동준의 소리, 오정숙의 소리, 그리고 최승희의 소리이다.

이기권(1905~1951)은 옥구군 임피면 영창리 출생으로, 전형적인 서편제

소리꾼인 정정렬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과 「숙영낭자전」을 배워 정정렬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나,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때는 ‘남에 박동실, 북에 이기권’으로 일컬어지기도 했고, ‘낮에는 찢꼬리가 울고, 밤에는 이기권이 운다’고 할 만큼, 전북 판소리를 대표했던 사람이었다. 이기권의 제자로는 홍용호(고수)·홍정택·강종철·김원술·김유앵, 최난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홍정택은 1962년 이후 전주에 머물며 전주 판소리의 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이기권의 제자들은 후에 대부분 소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기권의 소리를 오롯이 전승한 사람은 없다. 홍정택 또한 수궁가를 장기로 삼지만, 나중에 김연수의 수궁가 사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기권 소리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김동준(1928~1990)은 전남 화순 출생으로 박동실과 박봉술에게 배웠으며, 나중에는 고수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사람이다. 김동준의 적벽가는 박봉술 바디로 송홍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박봉래→박봉술로 이어진 전형적인 동편제 적벽가이다. 김동준은 전주국악원 시절에 박봉술을 만나 이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후에 이 적벽가를 이성근과 정미옥이 전승하였다. 이성근은 소리보다는 북에 전념하고 있지만, 정미옥은 적벽가를 장기로 삼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춘향가와 심청가는 전형적인 서편제 소리인 박동실 바디이다. 박동실은 김채만의 제자로, 일제강점기 광주 소리를 대표하던 사람이었는데, 6·25때 월북하였다. 박동실 바디 소리는 현재 부분적으로만 전승이 되고 있을 뿐이어서 활발하게 불려지지는 않고 있다.

오정숙으로부터 전승된 전주지역의 김연수 바디 판소리는 이일주, 조소녀, 민소완, 김소영, 조영자 등이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활발하게 전수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전주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가 되었다. 김연수 바디 소리는 전남을 근거지로 한 보성소리와 더불어 현대 판소리의 쌍벽을 이루면서 세력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 세력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지향점에 있어서도 김연수 바디 판소리는 보성소리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보성소리가 전형적인 소리 중심, 성음놀음 중심의 판소리라면, 김연수 바디 판소리는 극 지향의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성소리가 ‘청취 위주의 소리’라면, 김연수의 소리는 ‘보면서 듣는 소리’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이는 김연수가 조선성악연구회 시절 창극좌를 맡아 창극 운동을 시작한 이래, 해방 이후 김연수 창극단, 우리 국악단 등을 조직하여 창극 운동에 전념해온 경험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승희는 김여란(1907~1983)을 통해서 정정렬 바디 춘향가를 이어받았다. 최승희가 물려받은 김여란의 춘향가는 정정렬 바디를 가장 완벽하게 전승한 것이다. 정정렬의 춘향가는 ‘정정렬이 춘향가의 판을 막아버렸다’고 할 만큼 최고의 춘향가로 꼽히던 것이다. 현대 소리꾼 중에서도 김소희, 박동진, 김연수 등이 정정렬의 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을 짜서 불렀다. 정정렬의 춘향가는 현대 춘향가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가 된 것이다. 최승희가 전승한 정정렬 바디 춘향가는 그만큼 가치가 크지만, 아직은 별다른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최승희 말고는 정정렬 바디 춘향가를 완벽하게 부르는 다른 창자가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고 보면, 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척 아쉬운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9. 마무리

이상으로 전주의 소리와 전주대사습에 관해서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전주는 19세기까지는 전통음악, 특히 판소리의 중심지로서 평가와 선발의 기능을 담당했던 전주대사습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온 지역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서울 중심, 극장 중심의 공연 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주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전주는 뛰어난 감식안을 지닌 고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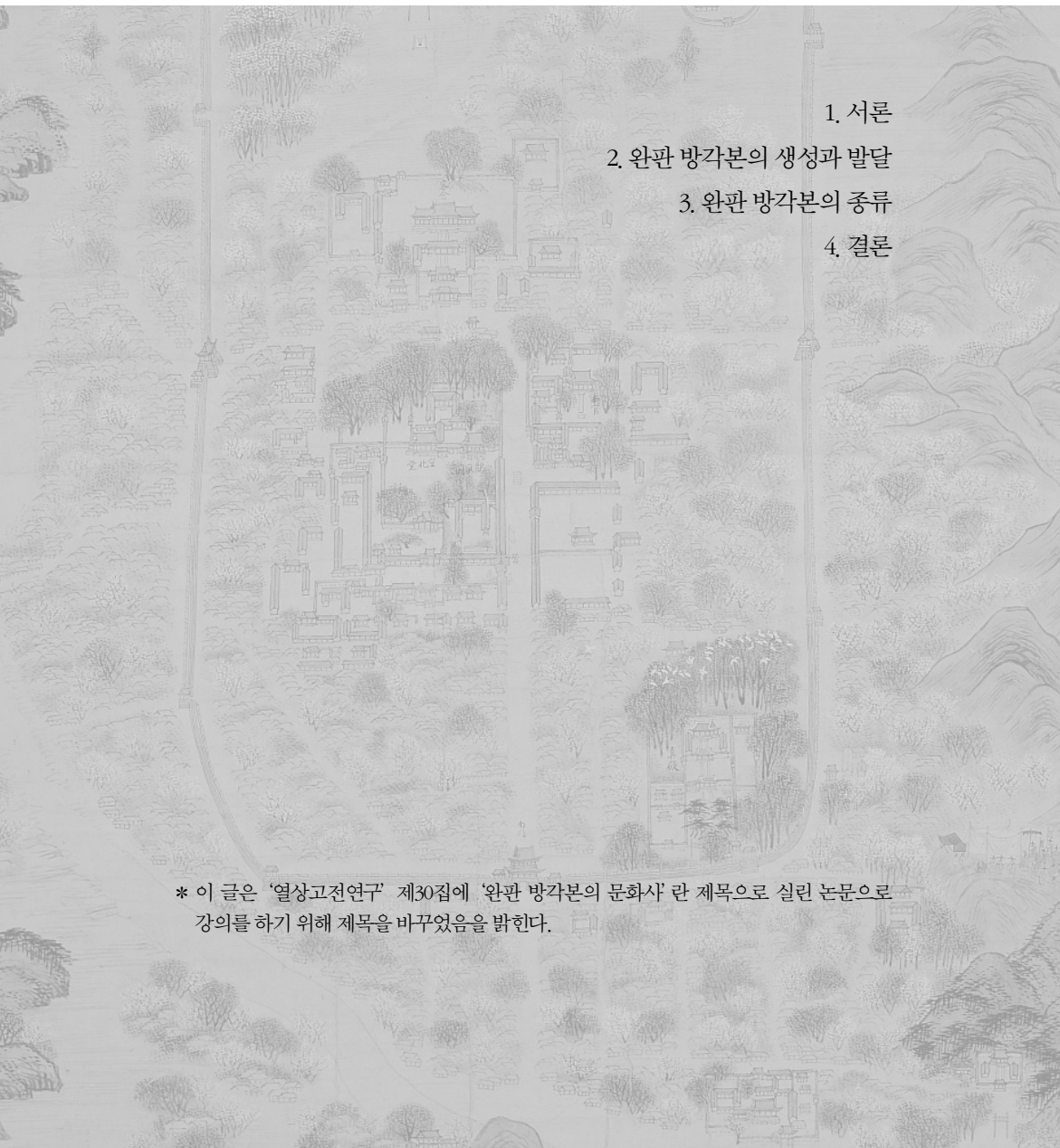
청중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서서히 전통음악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지로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소리를 주제로 하여 세계적인 축제를 벌이게까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훌륭한 기능을 지닌 명인 명창과 제대로 된 감식안을 지닌 수많은 청중들의 노력에 의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통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역대 판소리 명창부 장원자〉

1회(1975년) : 오정숙(1935~2008)	2회(1976년) : 조상현(1939~)
3회(1977년) : 성우향(1935~)	4회(1978년) : 성장순(1934~)
5회(1979년) : 이일주(1936~)	6회(1980년) : 최난수(1931~)
7회(1981년) : 최승희(1937~)	8회(1982년) : 조통달(1945~)
9회(1983년) : 김일구(1940~)	10회(1984년) : 전정민(1949~)
11회(1985년) : 김영자(1951~)	12회(1986년) : 성준숙(1944~)
13회(1987년) : 박계향(1940~)	14회(1988년) : 은희진(1947~2000)
15회(1989년) : 김수연(1948~)	16회(1990년) : 이명희(1946~)
17회(1991년) : 방성춘(1948~)	18회(1992년) : 최영길(1949~)
19회(1993년) : 이임례(1941~)	20회(1994년) : 송순섭(1939~)
21회(1995년) : 조영자(1957~)	22회(1996년) : 주운숙(1953~)
23회(1997년) : 전인삼(1962~)	24회(1998년) : 윤진철(1965~)
25회(1999년) : 이순단(1948~)	26회(2000년) : 모보경(1964~)
27회(2001년) : 왕기철(1950~)	28회(2002년) : 염경애(1973~)
29회(2003년) : 송재영(1960~)	30회(2004년) : 장문희(1976~)
31회(2005년) : 왕기석(1962~)	32회(2006년) : 고향임(1957~)
33회(2007년) : 김금미(1966~)	34회(2008년) : 박영순(1973~)
35회(2009년) : 허은선(1975~)	36회(2010년) : 박정선(1963~)
37회(2011년) : 조정희(1979~)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전주*

이태영(전북대학교 교수)

- 
1. 서론
 2. 완판 방각본의 생성과 발달
 3. 완판 방각본의 종류
 4. 결론

* 이 글은 '열상고전연구' 제30집에 '완판 방각본의 문화사'란 제목으로 실린 논문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 제목을 바꾸었음을 밝힌다.

1. 서론

완판본(完板本)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고대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조선시대 전주지방에서 출판된 방각본(坊刻本)’으로 풀이되어 있다. 완판본은 서울에서 발간된 경판본 옛 책에 대비된 말로, 전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목판으로 발간한 옛 책을 일컫는 말이었다.

전주는 당시에는 ‘완산(完山)’이라고 했고, 실제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당시 완주군 구이면에서도 발간되었기 때문에 전북 전주와 전북 완주군을 포함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작은 범위의 완판본이라 하면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에서 발간된 옛 책을 통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따라서 완판본은 ‘전주에서 발간한 옛 책’을 말하게 되었다.¹⁾

판매를 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간행한 책을 방각본(坊刻本)이라고 하는데 이 방각본의 원류는 서울에서 1576년(선조 9)에 간행된 「고사촬요(攷事撮要)」로 알려져 있다. 완판 방각본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판된 판매용 책을 말한다. 1714년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 서

1) 조선시대의 전주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완산감영)이 있던 호남의 수도였다. 그러므로 ‘전주, 나주, 남원’과 같이 비교적 큰 도시에서 책이 많이 발간되었는데 이를 모두 완산감영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완판본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주의 완산감영에서 찍은 것은 ‘전라감영본, 완산감영본, 완영본’, 나주에서 찍은 것은 나주의 옛 이름인 ‘금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성판본’, 남원운봉에서 찍은 것은 ‘운봉영본’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확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 완판본은 ‘전라감영이 관할하던 지역에서 찍은 옛 책’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

울, 대구와 더불어 많은 책이 발간되었다.

이제까지의 완판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류탁일(1985)에서 전반적으로 정리되었다. 이외에는 서지학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지 사항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완판 방각본이 성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화사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문화를 자세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완판 방각본의 발달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 몇 가지 문화적인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상업출판이 성행한 이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의 위치와 역할, 전주 시장의 기능, 한지의 대량 생산, 쌀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서 중농의 역할과 욕구, 전라도에서 탄생한 판소리의 소설화 과정, 일제시대 한글 교육 및 2세 교육, 지역민의 근대화 욕구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완판 방각본의 생성과 발달

1) 전라감영과 출판문화

조선왕조는 1392년 조선 태조 원년에 전주부에 감영(監營) 즉 관찰사영(觀察使營)을 설치하였다. 관찰사는 왕권의 대행자로서 한 도(道)의 모든 행정과 시정의 성패를 책임지며, 도내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총괄하던 최고 책임자였다. 전주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호남의 수도였다.

완산감영에서는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사대부 취향의 도서인 완영판(完營版) 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완산감영에서 발행한 책으로는 정치, 역사, 제도, 사회, 어학, 문학, 유학에 관한 60여 종류의 책이 간행되었다(鄭亨愚

외, 1979, 558쪽). 서적은 학문을 진흥시키고 정치와 문화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시대마다 서적 편찬과 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신양선, 1997, 11쪽 참조).

加髡申禁事日, 簡易文集, 簡易集, 綱目, 警民編, 警世問答, 國朝喪禮補編, 今忠壯遺事, 訥齋集, 大典通編, 東岳集, 東醫寶鑑, 屯庵集, 明義錄, 明義錄診解, 白江集, 史記英選, 史記評林, 三韻群彙, 三韻聲彙, 喪禮補編,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輯要, 小學診解, 續明義錄, 續兵將圖說, 受教輯說, 梁大司馬實記, 御製綸音, 御製追慕錄, 永世追慕錄續錄, 陸奏約選, 月軒集, 醫學正傳, 潛齋稿, 潛齋集, 正音通釋, 左傳, 朱書百選, 朱子大全, 朱子文集, 增補無冤錄, 蒼霞集, 豐山洪氏族譜, 鄉禮合編, 華東正音通釋韻考, 皇華集, 厚齋集, 訓義小學, 訓義小學具診解, 訓義小學大全, 訓義資治通鑑綱目, 欽恤典則

완산감영에서 발간한 서적의 서지 사항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警民編(乙丑(1829)六月完營開刊), 東醫寶鑑(歲甲戌(1754)仲冬內醫院校正完營重刊), 杜律分韻(庚戌(1790)仲秋完營新刊), 明義錄(丁酉(1777)孟秋完營開刊), 三韻聲彙(己丑(1829)季秋), 新編醫學正傳(歲己卯(1759)季夏內醫院校正完營重刊), 御定朱書百選(乙卯(1795)完營新刊), 五禮儀(乾隆癸亥(1743)秋完營開刊), 浣巖集(歲乙酉冬完營開刊南高寺歲), 尤菴先生言行錄(崇禎紀元後五更子(1900)秋完營開刊), 諭諸道道臣綸音(乾隆五十九年(1794)九月二十三日完營刊印), 陸奏約選(甲寅手選御定陸奏約選丁巳(1797)完營刊印), 朱子大全(辛卯(1771)入梓完營藏板), 華東正音通釋韻考(完營藏板)



호남관찰사가 전주에서 발간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감영에서 발간한 시대보다 훨씬 앞서서 발간된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자료들도 계속 시간본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십칠첩(十七帖, 王右軍書) : 중국 동진(東晉)의 서가 왕희지(王羲之)의 편지를 모은 법첩. 萬曆壬子冬(1612년)湖南觀察使 李相公冲模刊于完山府

완산감영의 위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은 완영관 책과 그 책을 찍은 완영 목판들이다. 완산감영에서 책을 출판할 때 사용한 책판이 현재 전주향교의 장판각에 약 5,000여 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책판은 1866년(고종 3)에 전라관찰사 조한국(趙翰國)이 향교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여 오고 있다. 주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동의보감(東醫寶鑑)」, 「성리대전(性理大全)」, 「율곡전서(栗谷全書)」, 「주자문집대전(朱子文集大全)」,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사기(史記)」, 「사략(史略)」 등의 책판이 있다. 이 가운데 필자가 소장한 「주자문집대전(朱子文集大全)」 표지 안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계축(癸丑, 1913)년에 전주향교에서 이 책판을 이용하여 후쇄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책을 인출했을 것이다.



朱子文集大全一部共六十一冊
先生沒後七百十三年
降生七百八十四年
癸丑孟夏於完府鄉校印來

전라감영에서 발간한 책은 주로 사대부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의 출판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다. 이때 독자들의 요청으로 ‘사간본(私刊本)’이 발행되는데 주로 전라감영에서 찍은 책과 함께 식자층들이 지적 활동을 위해 요구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간본’은 광범위하게 내용이 확대되면서 널리 출판하게 되었다. 판매용 책이 아니라 주문자용 책이었지만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러 차례 책을 찍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판매용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감영에서 판각과 인쇄기술을 익힌 각수들이 시내로 나가서 사간본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 또한 일부 책들은 전라감영에 있던 판목을 이용하여 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감영본이 사간본으로 출판된 책은 다음과 같다.

綱目, 警民編, 警世問答, 大典通編, 東岳集, 東醫寶鑑, 屯庵集, 明義錄, 明義錄諺解, 白江集, 史記英選, 史記評林, 喪禮補編, 性理大全, 聖學輯要, 續明義錄, 續兵將圖說, 受教輯說, 御製綸音, 御製追慕錄, 月軒集, 陸奏約選, 醫學正傳, 潛齋集, 正音通釋, 朱書百選, 朱子大全, 皇華集, 厚齋集, 訓義小學, 欽恤典則, 四書三經

다시 사간본에서 방각본으로 대량 출판된 책은 다음과 같다. 필자가 고서점에서 구입하거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래박의(東萊博義)’, ‘동의보감(東醫寶鑑)’, ‘주서백선(朱書百選)’ 등은 후쇄본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기까지 상당한 양이 방각본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東萊博義, 東醫寶鑑, 朱書百選, 童蒙先習, 三國誌, 四書三經 등

2) 태인방각본의 역할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가 「사요취선(史要聚選)」(1799), 「사문유취(事文類聚)」(1799),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1804), 「공자가어(孔子家語)」(1804), 「농가집성(農家集成)」(1806),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구황보유방합철(救荒補遺方合綴), 1806),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후집(後集), 1796),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전집(前集), 1803), 「동자습(童子習)」(1804), 「공자통기(孔子通紀)」(1803), 「대명율시(大明律詩)」(1800), 「증산염락풍아(增刪濂洛風雅)」(1796), 「효경대의(孝經大義)」(1803), 「효경언해(孝經諺解)」(1803) 등의 책을, ‘손기조(孫基祖)’가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1844)를 정읍 태인현에서 19세기 중엽까지 간행하여 판매하였다(송일기, 2000, 14쪽).²⁾ 이 책들은 당시 문인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실용적인 책들로, 수요자인 문인들의 요구에 따라 출판한 것이다. 전북 태인에서 발간된 방각본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서적이 많았다. 공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방각본은 「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통기(孔子通紀)」,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 등이다. 둘째, 유교적 교양이나 교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판하여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 「효경대의(孝經大義)」, 어린이 교육용 도서인 「동자습(童子習)」 등이 출판되었다. 셋째, 실용성을 가진 방각본을 출판하였다. 농사 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농가집성(農家集成)」과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가 있고, 당시의 백과사전인 「사문유취(事文類聚)」, 초학자들을 위한 문장 백과사전인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 등이 발간되었다.

2) 그간 필자의 글에서는 류탁일(1985)을 참고하여 태인판의 출판연대를 사용하였으나 그 뒤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의 생몰연대가 밝혀져 학계에서 수정됨에 따라 필자도 새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전북 태인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아주 일찌기 판매용 책을 대량으로 찍어낸 지역이다. 판매용 책을 찍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태인의 여러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종합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태인의 방각본은 지방의 상업적 출판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책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큰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의 태인은 현감이 있었던 큰 도시였고, 통일신라시대에 태인에 군수로 부임한 후 유상대(流觴臺)를 만들어 풍류를 즐긴 고운 최치원을 모신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을 만큼 유학자들이 많이 기거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그 지역에서 지식 탐구열이 높게 되었고 교육용 도서와 실용적 도서가 많이 발간되게 된 것이다.³⁾

태인방각본의 출판이 끝날 무렵인 1803년부터 전주에서 방각본 판매가 일반화되는 것은 전주와 태인의 출판문화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태인방각본의 책판은 전주로 옮겨와서 계속 출판된 것으로 확인된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표제구해공자가어(標題句解孔子家語)」(上, 中, 下)는 상권과 하권의 겉표지 배면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판본 「도옹전」(조옹전)이 반초서체로 찍혀 있다. 이는 이 책의 책판을 태인에서 전주로 가져다가 후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표지에는 책을 찍은 연대를 알 수 있는 ‘세재임술(歲在壬戌)’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임술(壬戌)’은 완판본 고전소설의 출간과 관련하여 추정해 볼 때, 1862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인에서 간행된 「증산림락풍아(增刪濂洛風雅)」는 ‘권지오(卷之五)’의

3) 정극인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작품인 「상춘곡」을 태인에서 지었다. 태인에서 방각본 책이 많이 간행된 이유는 당시 태인의 교육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말미암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일제 이항, 하서 김인후, 변양정 송순, 고봉 기대승, 송강 정철 등 걸출한 학자를 배출한 호남지역은 유학이 크게 진흥되어 호남 사림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향촌사회에 유학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태인, 고부, 담양, 장성을 중심으로 학문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말미에 ‘전이채재
(田以采梓)’의 기록이 있어서 태인
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증산
렴락풍아(增刪濂
洛風雅)」의 ‘권지



일(卷之一)’의 앞장에 붙어 있는 ‘목록’에 ‘세채병진개간(歲在丙辰開刊)’이라는 간기가 인쇄되어 있다. 이때 ‘병진(丙辰)’은 책판을 태인에서 가져다가 후쇄하였기 때문에 1916년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표지의 배지에 「소학언해(小學諺解)」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 「소학언해」는 1916년 전주 ‘칠서방(七書房)’에서 간행된 책이다. 이처럼 배지에 인쇄된 증거는 여럿을 찾을 수 있다.

3) 남문 시장의 발달과 상업 출판의 촉진

장명수(1994:119)에 따르면 전라도 전주는 시장의 발상지이고, 남문시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승된 한국의 유일무이한 역사적 시장이다. 맨 처음 시장이 열렸다는 1473년, 시장이 허용된 1525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존속하고 있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1840년대)와 「만기요람(萬機要覽)」(1809년)에서는 전라도에서 큰 시장으로 전주읍내장(全州邑內場)과 남원읍내장(南原邑內場)을 꼽고 있다. 전주의 시장은 전주부내대장(全州府內大場), 남문외장(南門外場), 서문외소장(西門外小場), 북문외장(北門外場), 동문외장(東門外場)으로 되어 있다. 전주 남부시장은 조선시대에 전국 5대 시장 중의 하나이다. 동문외장은 9일장으로 한약재와 특용작물을 거래하고, 서문외장은 7일장으로 양념과 어물을 거래하였으며, 남문외

장은 2일장으로 생활품과 곡식을, 북문외장은 4일장으로 포목과 잡곡을 거래하였다. 남문시장은 ‘남밖장’이라 하여 전라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전주교는 싸전다리, 매곡교는 연죽다리, 완산교는 염전다리, 서문 부근에는 약령시가 자리하여 아주 큰 시장을 형성하였다.

임원경제지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전주 시장은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시전이 많이 설치되어 민간에 필요한 물품이 거래되어 지역적 시장의 중심권이라 할 수 있었다. 전주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이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권이었다. 자연히 모든 물자가 거래되고, 소비도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들어와서 거래되었고 상설점포인 시전(市廛)이 설치되어 지역적 시장의 중심권으로 역할을 하였다(소순열·원용찬, 2003, 10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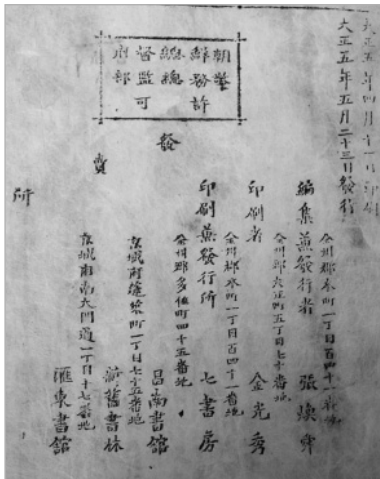
이 시장들은 1893년 동학혁명 전까지 번성하다가 1897년부터 일본인들이 다가동과 중앙동에 상점을 만들어 진출하면서 침체되어 동문, 북문시장이 소멸되고 서문시장은 남문시장에 통합되었다.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방각본을 찍어 판매한 책방은 ‘다가서포, 문명서관, 서계서포, 창남서관, 칠서방, 완흥사서포’ 등이다. ‘양책방’을 제외하고 모든 책방이 남문시장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남문시장이 매우 큰 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 실제로 전주의 남문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5대 시장 중의 하나여서 수많은 상인들이 전국에서 물건을 구입하

4) 한글교전소설에 적힌 책 주인의 주소를 살펴보면 전북, 전남, 충청, 부산, 제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전주의 시장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全北 金堤郡 大正 二年 九月 十五日之求 所有者 金泰儀’, 「췌한전」 ‘大正 八年 三月 一 前라북도 금산군 금성면 장도리 책주 이종두’, 「張風雲傳」 ‘務安郡 石谷面 大峙里 乙亥年 正月 十五日’, 「華容道」 ‘海東 朝鮮 全羅南道 靈光郡 道内面 外新里 단 주는 徐東鑑이요 지는 乃星이요 生年는 壬辰 生日는 二月 十二日이아’, 「심청전」 ‘단기 사이구일연 정유 십이월 이십오일 慶尙南道 陝川郡 大并面 大枝里 公羽 所有’, 「유충열전」 ‘東萊郡 沙上面 嚴弓里’, 「삼국지」 ‘濟州道 濟州面 二徙里 九利번지’, 「삼국지」 ‘朝鮮 全南 濟州道 濟州面 二徙

기 위하여 물려들었는데 이때 상인들이 책을 구입해 가거나 아니면 미리 주문을 받아서 책을 사다가 주는 경우가 되었을 것이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완판본 다른 책과 더불어 서울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었다. 그 증거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맨 뒤에 붙은 판권지에 ‘분매소(分賣所)’가 나오는데 그 서점들이 대체로 서울에 있는 서점들이다. 또한 ‘경향각서관(京鄕各書館)’이라는 기록도 함께 보인다. 이것은 여러 지역의 서점에서 판매했다는 기록이다. 판권지에 따르면 전주의 칠서방에서 만든 책을 서울의 ‘신구서림(新舊書林), 안동서관(雁東書館)’에서 판매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대구 ‘재전당서포(在泉堂書鋪)’의 고무인이 찍힌 경우도 있어서 말 그대로 경향 각지에서 책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서당(書堂)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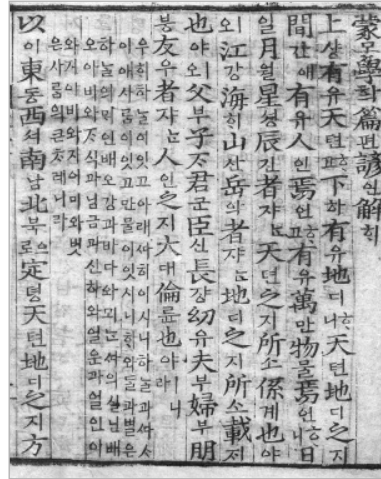
조선시대 서당은 사설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방(書房), 서재(書齋)라 불렸다. 남자아이는 7, 8세가 되면 서당에 들어가 한학의 기초와 습자(習字)를 배웠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서당의 숫자는 약 1만 개소였는데 이후 증가하여 1912년 4월 말에는 16,540개소가 되었고, 1919년 5월 말에는 23,556개소가 되어 학동들은 약 37만 명에 이르렀다. 1938년 3월 말 전북 도내의 숫자는 304개소에 지나지 않고 전주부 내에는 ‘노송정 서당, 완산 서당, 반곡 서당, 완흥 서당, 완산 서당, 상생 서당, 상생 서당’ 등 7개소에 지나지 않았

다(국역 전주부사, 391쪽 참조).

완판 방각본이 가장 많이 출판된 시기가 1911년, 1916년인데 이 시기가 서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여서 그만큼 아동용 책이 많이 발간되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2월에 총령 제18호에 의거 서당 규칙이 발표되었는데 교과서는 다음의 서적 중에서 선택케 하여 그에 대한 단속을 엄중히 하였다⁵⁾(국역 전주부사, 390쪽 참조).



천자문, 類合, 啓蒙篇, 擊蒙要訣, 소학, 효경, 사서, 삼경, 통감, 古文眞寶, 明心寶鑑, 文章軌範, 唐宋八家文讀本, 東詩, 唐詩, 法帖, 조선총독부편찬 교과서

실제로 전주에서 방각본으로 찍은 교육용 책은 다음과 같다.

蒙學二千字, 日鮮千字文, 千字文, 四字小學, 註解千字文, 草千字文, 養洞千字文, 杏谷本千字文, 新增類合文, 明心寶鑑抄, 諺解圖像童蒙初學, 啓蒙篇, 童蒙先習, 擊蒙要訣, 兒戲原覽

5) 종이(한지)의 대량 생산과 방각본의 발달

완산감영에서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지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한지의 제작은 자연히 서적을 발간하는 일과 관련되어 중앙정

5) 일제강점기에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은 시민들의 국어 교과서의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연삼국지」에는 반절표가 붙어 있어서 이 책이 한글을 읽히는 책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부에서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게 되었다.

한지를 만드는 지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지역의 한지 생산이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생산량을 중앙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전라감영에서는 한지를 제작하여 중앙에 상납하고, 중앙에서 내려보낸 책을 찍는 일 등 중앙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지를 제작하였다. 감영의 시설로는 조지소(造紙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종이를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지장(紙匠)이 있어 질 좋은 한지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였다.⁶⁾ 또한 전주의 인근인 상관, 구이, 임실 등에 지소(紙所)를 두기도 하였다. 전주부에는 서문과 남문 사이에 ‘지전(紙廩)’이 많이 들어서서 지전거리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69~1545년)에도 주요 종이 생산지로서 경상도 영천군, 밀양군, 청도군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부(全州府)가 나와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에는 전주를 상품지(上品紙)의 산지라고 하였고, 『여지도서(輿地圖書)』(18세기)와 『대동지지(大東地志)』(1864년)에는 조선시대 전주의 한지가 최상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 1910년대 한지의 종류는 약 40여 종이었다. 모두 닥섬유로 만

6)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지공(紙工), 지장(紙匠), 종이 갑옷(紙甲), 지화(紙花), 지의(紙衣)’ 등 종이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나온다.

「세종 027 07/02/15(을묘) / 광주목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백자 장본 10개를 잘 구어 올리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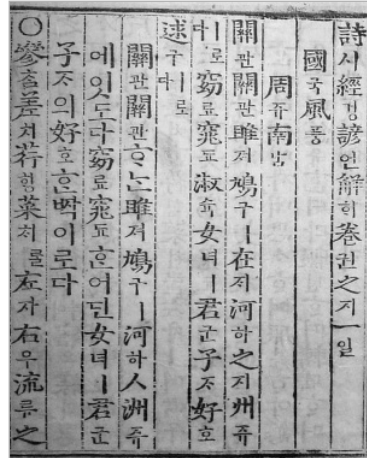
김자가 이 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곧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전주의 지장(紙匠)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보내라.” 하고, 광주목사(廣州牧使)에게 전지하여, “명나라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白磁) 장본(簞本) 10개를 정세(精細)하게 구어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

7)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편에는, 표전(表箋), 주본(奏本)과 같이 임금께 올리는 문서에 쓰이는 종이와, 부분(副本), 자문(咨文), 서계(書契)와 같이 나라의 공문서에 쓰이는 종이, 그리고 도련지(搗鍊紙), 중폭지(中幅紙), 갑의지(甲衣紙), 안지(眼紙),

든 종이들이었다. 20여 종의 한지가 전라도에서 생산되었는데 제일 비싼 종이는 전라도에서 만든 태장지(苔壯紙)였다.⁸⁾

우리나라의 한지 제조업체는 대부분 전라북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1936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한지의 총생산량 중 전북과 경상도가 전국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서삼경과 같은 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종이가 필요했고, 전주나 대구에서는 종이가 풍부하여 방각본으로 책을 찍을 수 있었다. 한글고전소설의 경우, 완판본은 84장본이 많은 반면에 경판본은 20장에서 30장본이 대부분이다. 경제적 수지를 맞추기 위한 출판이었지만 한지의 발달이 소설의 분량을 늘이는 계기가 되었다.



6) 판소리의 발달과 방각본 한글고전소설

전주지역의 통인들이 즐기던 대사습놀이는 1784년(정조 8)에 이 지방에 재인청(才人廳)과 가무사습청(歌舞私習廳)이 설치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날은 동짓날에 통인들이 광대를 초청하여 판소리를 듣고 노는 잔치인

세화지(歲畵紙), 백주지(白奏紙), 화약지(火藥紙), 장지(狀紙), 유둔지(油屯紙) 등 다양한 용도의 종이를 생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世宗實錄地理志』 전주부(全州府) 편에는 표전(表箋)·주본(奏本)·부본(副本)·자문(咨文)·서계(書契) 등의 종이 및 표지(表紙)·도련지(搗鍊紙)·백주지(白奏紙)·유둔(油屯)·세화(歲畵)·안지(眼紙) 등이 생산되었는데, 도(道) 안에 오직 이 고을과 남원(南原)의 것의 품질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8) 전주를 중심으로 지승공예, 지호공예, 지화공예, 색지공예 등 종이공예가 크게 발달하여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데, 이날이 되면 통인들은 광대를 초청하여 가무를 겨루었다.

판소리의 경우 발생 초기에는 광대가 해안 주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창을 하고서 그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판소리가 놀이로서의 기능을 가미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성래, 1995, 21쪽). 18, 19 세기를 거치면서 판소리는 특정한 계층만이 즐기는 예술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이 즐긴 것이어서 대중예술로 성장하여 소설 독자층의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되고 소설의 상업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유탉일, 1985, 37 쪽 참조).

전라도 지역의 소작농들은 벼와 한지를 재배하여 돈을 벌었고, 상업에 종사하여 부유층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일거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마침 전주에서 유행하던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적벽가’ 등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를 출판해줄 것을 요청한다.

동리 신재효(1812~1884)는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 등 판소리 여섯 마당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심청가」(41장본)를 저본으로 다시 소설로서 재미를 덧붙이면서 완판 「심청전」(71장본)을 만든 것이다. 완판 29장본 「별춘향전(別春香傳)」이 33장본으로 확대되면서 「열여춘향슈절가」라는 새 표제가 붙게 되었다. 이 대본이 독자의 호응을 받게 되자, 다시 84장본으로 재확대하면서도 「열여춘향슈절가」라는 표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권 45장, 하권 39장으로 된 완서계서포(完西溪書舖)판을 「열여춘향슈절가」로 부르고 있다.

1908년에 전주에서 발간한 완판본 「심청전」에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어



휘인 ‘꽤각질’은 표준어로는 ‘딸꾹질’이다. (꽤각질 두세 번의 숨이 덜거지니) 전북 전주에서 발간된 한글고전소설에 전주지역에서 쓰는 ‘태각질’이 아니고 어째서 ‘꽤각질’이 쓰였을까? 전남방언에서는 대체로 ‘포각질’이 일반적이고, 전북방언에서는 ‘포각질, 껴각질, 태각질’이 일반적이다. 전광현(전광현, 1983, 85쪽)에 따르면 ‘꽤각질’이 남원 운봉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남원 운봉지역은 경남 함양과 인접한 지역으로 경남 방언이 많이 사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꽤각질’ 형은 전남과 경남에서 사용하는 ‘포각질’과 전북에서 사용하는 방언 ‘태각질’이 접촉지역에서 서로 섞이면서 ‘꽤각질’을 만든 것이다.

‘꽤각질(꽤각질)’이 완판본 「심청전」에 나타나는 사실은 이 소설이 남원의 동편제 판소리의 원고가 전주에서 목판으로 발간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편제는 판소리 유파의 하나로 전라북도 운봉, 구례, 순창, 흥덕 등지에서 많이 부른다. 반면에 서편제는 광주, 나주, 보성 등지에서 많이 불렀다.⁹⁾

우리가 흔히 「춘향전」이라 부르는 「열여춘향슈절가」는 「심청전」, 「퇴별가」, 「화룡도」와 더불어 판소리계 소설이라 불린다. 이들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소설화시킨 것이다. 흥미롭게도 「열여춘향슈절가」에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남원의 말씨가 그대로 살아 있다. 남원은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이어서 평소에도 전남과 경남의 말씨가 많이 사용되는 곳인데 「열여춘향슈절가」에 많은 남원지역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열여춘향슈절가」가 독특한 방언을 보이는 것은 바로 전남의 말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의 배연형 교수는 필자의 발표를 듣고 완판본 「열여춘향슈절가」는 김세중제 동편제 판소리이고, 완판본 「심청가」는 송만갑제 동편제일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어만니 엇지 와겏소?(어머니 어찌 오셨소?) 「춘향 下, 33」

‘와겏소?’는 실제로 전남에서 ‘언지 와겏소?’와 같이 쓰이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는 존대표현이다. 이 표현을 보면 전남의 언어가 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완판본 「심청가」, 「열여춘향수절가」는 남원의 동편제 판소리의 원고를 전주에서 목판으로 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 근대 시민의식의 발흥

전라감영이나 서원에서 발간된 비방각본 고문헌은 문집류가 많고, 정치와 교육을 위한 책이었다. 이들 책들은 사대부(士大夫)들을 위한 출판이었다. 이 책의 영향으로 사가의 선비들이 책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간본이 출판된다. 일반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고전소설과 많은 교양서들이 출판되게 된다. 전북 태인의 방각본 출판은 지식에 대한 개화를 열망하는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의 출현은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방향에 촉진제가 되었다.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여 온갖 물건이 거래되었던 전주에서는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소작농민층이 형성되어 대량의 쌀과 닥나무를 재배하였고, 상업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 인구가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여유를 가진 서민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독서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대부들의 취향에 맞는 도서로서는 도저히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이러한 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완판 방각본이 출현한 것이다.

비방각본이 상류층의 고도의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책인 반면에, 방각본은 서민층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대중적 책들이었다. 비방각본이 정교(政敎)와 구휼(救恤)을 위한 교화적인 것이 주된 내용인데 반하여, 방각본은 격몽(擊蒙)을 위한 교육용 기초 서적, 가정생활 백과 도서, 흥미 위

주의 고전소설 등이 대부분이었다.

방각본 한글고전소설을 많이 발간한 것은 개화기 시대에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형성되었다는 증거이며, 이 계층은 넓은 호남평야를 일구는 경제적 안정을 얻은 농민들이나 상인들이었다. 결론적으로 호남지방의 농토를 배경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은 서민층과 상업으로 여유를 갖게 된 서민층의 문화적 욕구에 맞게 간행한 것이 완판 방각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완판 방각본의 종류

1) 완판본(전주본) 고대소설

완판본 방각본 소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은 1803년에 간행된 한문본 고소설인 「구운몽」인데, 이것은 전주에서 간행되었다.¹⁰⁾ 이 소설은 ‘숭정 후삼도계해(崇禎後三度癸亥, 1803)’의 간기를 가지고 있다. 1916년 칠서방(七書房)의 판매소인 창남서관(昌南書館)에서 발행한 판권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무려 113년 동안 한문본 고소설이 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등



10)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 작품 가운데 최초로 간행된 소설은 1725년(영조1)에 전라도 나주에서 간행된 한문본 「구운몽(九雲夢)」이다. 이 소설은 ‘숭정제도가사금성오문신간(崇禎再度己巳錦城午門新刊)’의 간기를 가지고 있다.

신화구해(剪燈新話句解)」는 중국 명나라 구우(瞿祐)의 단편 전기소설집(傳奇小說集)으로 상권과 하권 두 책으로 발간되어 판매되었다. 「구운몽(九雲夢)」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고전소설로 6권으로 되어 있고, 두 권씩을 묶어 상권, 중권, 하권 등 세 책으로 발간되었다. 「삼국지(三國誌)」는 진(晉)나라의 학자 진수(陳壽)가 중국의 위(魏)·촉(蜀)·오(吳) 3국의 정사(正史)를 편찬한 책으로 19권으로 되어 있고, 목록을 포함하여 20권으로 발간되었다.

전주에서 발행한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최고본은 「別월봉기」(하권, 48장본)로 1823년 4월에 전주시 평화동 석구동(石龜谷)에서 발간되었다.¹¹⁾

현존하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종류는 23가지이다. 이 가운데 판소리게 소설이 「열여춘향수절가」, 「심청가」, 「심청전」, 「화룡도」, 「퇴별가」로 5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웅소설이다. 판본이 다른 종류를 합치면 약 50여 종류가 된다.

- ① 열여춘향수절가(춘향전) ② 별춘향전 ③ 심청전 ④ 심청가 ⑤ 홍길동전 ⑥ 삼국지¹²⁾ ⑦ 언삼국지 ⑧ 소대성전 ⑨ 용문전 ⑩ 유충열전 ⑪ 이대봉전 ⑫ 장

11) 전주의 완판본은 「구운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해서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완벽하게 반듯이 쓴 정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글자체를 '민체'라고도 부르고 있다. 왜 이렇게 각수들이 반듯한 글자를 새겼을까?

정자로 글자를 새긴 이유는 소설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우리 한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어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한문소설과는 아주 다르게 그 발간의 목적이 단순한 소설을 발간한 것이 아니라 한글교육을 위한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글 고전소설 「언삼국지」의 첫 쪽에 '가갸거겨'로 시작하는 자모음표인 반절표가 붙어 있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소설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한글 교육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재미있는 한글고전소설을 읽으면서 한글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12) 전라감영에서 책을 찍어낸 책판은 다행히 잘 보관되어 현재 전주향교의 장판각과 전북 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방각본 책판 중 일부는 1940년대 윤규섭 씨가 서울로 옮긴 뒤 육이오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일본에서 수입

경전 ⑬ 장풍운전 ⑭ 적성의전 ⑮ 조웅전 초한전 퇴별가 화룡도 임진록 별
월봉기 정수경전 현수문전 구운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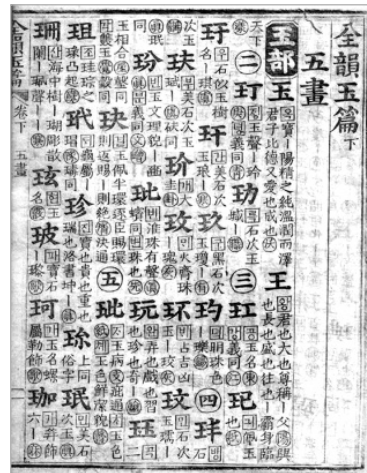
2) 자녀 교육용 도서

자녀 교육용 도서로는 「천자문」, 「사자소학」, 「이천자」 등이 발행되었
고, 「동몽선습」, 「명심보감초」와 같은 아이들의 수신서가 발간되었다.

- (1) 한자 학습서 : 蒙學二千字, 日鮮千字文, 千字文, 四字小學, 註解千字文,
草千字文, 養洞千字文, 杏谷本千字文
- (2) 교양서 : 明心寶鑑抄, 諺解圖像童蒙初學, 啓蒙篇, 童蒙先習, 擊蒙要訣,
兒戲原覽

3) 가정 생활백과용 도서

완관 방각본 중 생활백과용 도서가
많이 발간되었다. 이는 한자 공부를
위해 필요한 '옥편', 상례와 제례에 필
요한 도서, 한문과 한글로 편지를 쓰
는 법, 가정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 공문서에 필요한 이두문 작성
에 관한 책,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도서, 길흉화복에 관한 책 등이
발간되었다. 이 도서들은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많이 발간되었다.



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주로 분합(유충열전), 담배합(심청전), 난로 가리개(초천자
문)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완전한 삼국지 3권의 목판 한 개가 발견되
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 ① 한자 사전: 全韻玉篇, 御定奎章全韻, 三韻通攷
- ② 예절에 관한 책: 喪禮類抄, 喪禮, 四禮便覽
- ③ 편지 쓰는 법: 증보언간독, 언간독, 簡牘精要, 書簡草, 寒喧筭錄
- ④ 가정 의학서: 方藥合編,
- ⑤ 공문서 작성: 儒胥必知,
- ⑥ 중국 역사서: 少微家塾點校附書通鑑節要, 通鑑五十篇詳節要解,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史要聚選, 新刊增註三略直解, 東萊博議
- ⑦ 생활 상식: 文字類輯, 簡禮彙纂
- ⑧ 길흉화복에 관한 책: 天機大要

4) 유교 경전

유교는 공자를 시조(始祖)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 사상이다.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정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이러한 동양사상의 흐름 때문에 ‘사서삼경’은 사대부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완관 방각본 중 ‘사서삼경’은 아주 다양한 서지적 특징을 보이면서 발간되었다. 다른 방각본 책과는 다르게 아주 큰 책으로 발간된 것이 특징이며, 또한 후대에 편리하게 수진본으로도 발간된 특징을 보인다.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詩經諺解, 書傳諺解, 周易諺解, 中庸章句大全, 小學諸家集註, 詩傳大全, 大學章句大全

4. 결론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영향으로 전주에 모여든 많은 가내수공업은 목장(木匠), 지장(紙匠), 주석장, 선자장(扇子匠), 야장(冶匠), 유장(鑄匠), 마조장(磨造匠) 등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량생산을 위한 분업과 기계화가 되면서 전주의 가내수공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내수공업의 하나인 목판인쇄 출판업도 쇠퇴하기 시작한다.

완판 방각본이 한창 판매되던 1900년대 초에는 이미 서울에서는 활자본 신소설과 딱지본 고소설이 출판되었다. 신소설은 양지에 활자로 인쇄한 책이어서 목판에 한지를 사용하던 완판본과는 출판비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났다. 실제로 1920년대에는 필경으로 인쇄한 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1940·50년대에도 전주에서는 노루지에 석판으로 인쇄한 석판본이 유행하였었다. 이 석판본들은 다시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사간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활자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완판 방각본은 차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양 종이인 양지의 발달로 인하여 수공으로 인한 인건비가 많이 드는 한지 생산은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곧 방각본 출판에 많은 비용이 들게 한 이유가 되었다.

전주에서는 아중리에 있던 양책방이 홀로 남아 1932년까지 모든 방각본 책판을 모아서 한지와 양지(노루지)에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였으나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아히들의 성토표비」, 1923년, 全州天主公敎會, 필경 인쇄함.

「明心寶鑑抄」, 1932년(소화 7), 전주 양책방, 노루지에 목판 인쇄함. 간기에 '乙巳冬完西溪新刊' 이 있음.

「金海崗壽帖」, 1938년(소화 13), 전주 以文堂石版所, 석판 인쇄함(표제는

‘龜蓮珍藏’으로 되어 있음).

완판 방각본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그 책들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화려했던 방각본의 역사와 문화를 말하고 있다. 서민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개화 의식, 민주적 의식은 매우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은 책을 통하여 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완판 방각본이 그 역할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것이다.¹³⁾

특히 완판본 한문고전소설과 한글고전소설은 목판본과 필사본을 포함하여 수많은 양이 이 지역에서 출판되었다. 특히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서울의 경판본에 비교하여 양과 질이 매우 우수하여 후대의 소설 발달에 큰 공헌을 하였다. 활자본 소설은 물론, 한국의 현대소설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명실공히 소설문학의 원천지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13) 전주시에서 완판본 인쇄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완판본 문화관’을 만들었다. 지상 1층의 한옥에는 전시관이 들어서고 지하 1층에는 체험관이 들어서 2010년 10월경부터 관람객을 받아 체험하는 문화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판본의 문화적 위상을 전주시가 인정하고 전통문화의 하나로 선양한다 하니 고맙고 반가울 따름이다.

| 참고문헌 |

-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223~246쪽.
-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3.
- 박순호, 「완판 방각본 한글소설 목록(박순호 교수 소장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359~370쪽.
- 소순열 · 원용찬, 『전북의 시장 경제사』, 전라문화총서 11, 신아출판사, 2003, 102쪽.
- 송일기, 「泰仁 坊刻本の 出現 時期 및 養眞居士 朴致維의 行歷考」, 고서 제9호, 한국고서협회, 2000, 9~24쪽.
- 신양선, 『조선 후기 서지사』, 해안, 1997, 11쪽.
- 옥영정, 「한문방각본 간행에 대한 서지적 고찰」, 열상고전연구회 제47차 정례학술발표회 발표초록, 2009, 33~58쪽.
- 유탉일,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5, 37쪽.
- 이승철 · 구자운, 『한지의 역사』, 소호산림문화과학연구보고서 제2집, 1999.
- 이태영, 「完板(全州板) 坊刻本 한글 古小說의 書誌와 言語」, 정광교수회갑기념논문집, 2001.
- 이태영, 「완판본 ‘심청가(41장본)’ 해제 및 영인」, 국어사연구 4호, 2004, 351~436쪽.
- 이태영, 「지역 전통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30집(영남대), 2004, 273~304쪽.
- 이태영,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집, 2007, 29~54.
- 이태영, 「전라감영과 시장의 발달이 호남문화에 끼친 영향」,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 · 전라문화연구소, 2008, 165~190쪽.
- 임성래, 『조선 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21쪽.
- 장명수,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 全州府城을 中心으로 -』, 학연문화사, 1994, 119쪽.
- 장인진,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제15회 한국향토사연구 전국 학술대회 토론회, 2001, 61~70쪽.
- 전광현, 「전라북도도의 말」, 『한국의 발견』 전라북도편, 뿌리깊은나무, 1983, 85쪽.
- 鄭亨愚 · 尹炳泰, 『韓國册板目錄總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558쪽.
- 조희웅, 『古典小說 異本目錄』, 집문당, 1999.
-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상, 하)』, 박이정, 2006.
- 홍성덕 · 김철배 · 박현석 공역, 『국역 全州府史』, 전주시 ·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390~391쪽.

